

CITY OF ANGEL



2020 미래건축문화대상 「샤갈의 마을」大賞 수상!

타운하우스 부문(최우수 기획/설계)



주최 | ChosunMedia 조선일보 후원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한국주택협회 KOREA HOUSING ASSOCIATION 대한주택건설협회 KOREA HOUSING BUILDERS ASSOCIATION CAK 대한건설협회



First & Best 샤갈의 마을

지역최초 타운하우스로 주목받은 샤갈의 마을이
전국최고 품질과 가치를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믿어주신 선택과 두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고객의 명예를 높이는 샤갈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1·3단지 시행 2단지 자금관리 하나자산신탁 공동시공 대영에코건설(주) 태왕



대구 중구 동성로6길 61
문의 : 053 · 766 · 0707



스파크랜드

대구의 가치를 높이는 동성로 명작
헤파이브의 추억을 대구에 옮겨온 동성로 태왕스파크
새로운 경험 새로운 감동이 더 큰 가치로 이어지는 곳
쇼핑몰 그 이상 슈퍼몰!
동성로 태왕스파크입니다!



대관람차



해피비런즈





2020년 당연히 축구지!

대구FC엔젤클럽 관계자 중 한 명이 “어린 시절 축구를 하고 싶었지만, 부모의 반대로 선수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요즘도 취미로 축구를 하는데 그 플레이가 예사롭지 않아요. 가끔 ‘저 친구가 선수의 길을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미삼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겨서라도 “축구선수를 하겠느냐?”고, 그의 대답은 확실했습니다. “네, 당연히합니다. 축구합니다!”

위대한 문학가 알베르 카뮈에게도 ‘축구’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가난한 집안에서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그에게 축구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1960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뜰 때 그의 가방에서 나왔던 미완성 원고를 책으로 펴낸 카뮈의 유작遺作 《최초의 인간》(자크 페랑데즈 지음)에는 가난했던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난 내가 어떻게 그 2프랑을 돌려주지 않고 그 다음날 축구경기를 관람하며 좋아할 수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어.’ 가난한 그 시절 카뮈는 2프랑을 훔쳐 축구경기를 보러 갔던 것입니다. 후일 카뮈 자신이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그것이 바로 ‘축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카뮈는 축구선수로 17세 때까지 공을 찼습니다. 하지만 가난한데다 결핵에 걸리면서 축구의 꿈을 접어야 했지요. 대신 그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위대한 작가가 됐습니다. 이런 카뮈를 잘 아는 그의 친구가 재미삼아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다시 산다면 축구와 문학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의 답은 명확했다고 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당연히 축구지!”

지난 2019년 대구는 축구로 행복했습니다. 대팍(DGB대구은행파크)은 아홉 번이나 매진되며 축구성지로 자리 잡았고,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하늘빛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과 엔젤들이 도시를 누볐습니다. 이를 말해주듯 대구FC도 각종 상을 쓸어 담으며 국내 프로축구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엔젤이 평소 외쳤던 ‘축구는 대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이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것입니다. ‘2020년 한국 축구의 중심은 어디냐고 말입니다. 저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당연히 축구는 대구지!”

대구FC엔젤클럽 회장 이호경



CITY OF ANGEL

대구FC엔젤클럽 매거진 시티오브엔젤
2020 Vol.5



2019년 대구FC엔젤클럽 회원들은 2군 경기까지 쫓아다니며 모든 대구FC 선수들을 사랑했다. 그래도 대표적인 선수라면 이들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엔젤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엔젤을 기억하고 싶지만, 5년 후원금을 납부한 엔젤의 얼굴을 남긴다. 2020년 새해에는 또 다른 5년 엔젤이 줄 이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지사진 | 대구FC, 박현수, 하제연

계간 | 2018년 10월 10일 등록

등록번호 | 수성, 바00011

발행일 | 2020년 1월 10일

발행기관 | (주)엔젤클럽

발행·편집인 | 이호경

편집장 | 김용하

편집위원 | 김중두, 강정영, 손지훈, 박다은, 조은비

제작 | 멀티에드(대표 김정미)

포토그래퍼 | 하제연, 대구FC

디자이너 | 이지은

인쇄 | (주)케이프린텍(대표 한금재)

(주)엔젤클럽

42064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만촌동, 호텔인터불고 대구)

전화 | 053-602-7307

팩스 | 053-602-7306

이메일 | daeguangel@naver.com



'엔젤클럽의 선택 대구FC 하늘빛 전사' 설문조사에서 세징야가 절대적 지지를 얻어 단연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 세징야는 축구 전문 잡지 《Best Eleven》 조사에서도 모든 구단 감독들이 베스트 11으로 뽑아 이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했다.

COLUMN ESSAY

4 2020년 당연히 축구지!

COVER STORY

- 8 대구FC엔젤클럽 엔젤·엔시오 대상 설문조사
2020년 대구FC 3위, 아시아로 갈 것!
- 10 5년 후원 엔젤, 새로운 축구 후원문화 정착!

SPECIAL THEME

- 14 Report
키워드로 보는 대구FC & 엔젤 10대 뉴스
2019 Best of Best



ANGEL WITH US

- 26 다이아몬드 엔젤 列傳
김옥열 (주)화신 회장
- 30 엔젤 기업탐방
강준기 (주)포머스 대표
- 34 엔젤 초대석
김완준 (주)JID 대표
- 38 엔젤 브리핑
행복했던 2019, 기대되는 2020!
- 44 Angel & Life
- 46 엔젤 에피소드

DAEGU FC REPORT

- 54 대구FC 소식
- 58 엔젤 앤 플레이어
김우석(DF) 선수
- 62 Interview
대구FC 클럽하우스 김경미 조리사

HALF TIME TALK

- 68 엔젤과 문화
김영채 안경회계법인 회장
- 72 엔젤 비하인드
어쩌다 패션모델
- 76 특별기고
대구FC 2019년을 돌아보다 : 안상영 엔젤
- 78 Angel Insight
대박 아래 행복한 우리 가족! : 김강수 엔젤
- 80 현장을 가다
축구가 뭐라고

ANGEL DIARY

- 83 엔젤 다이어리
- 100 엔젤클럽 SNS 접속방법
- 101 엔젤클럽 스폰서
- 102 다이아몬드 엔젤
- 104 엔젤 명단
- 115 엔젤클럽 가입방법

대구FC엔젤클럽 엔젤·엔시오 대상 설문조사 2020년 대구FC 3위, 아시아로 갈 것!

2019년 최고 활약 세징야, 김대원
언성히어로엔 정승원, 김우석 꼽아

조사 결과 세징야가 절대적 지지를 얻어 단연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 세징야는 축구 전문 잡지 《Best Eleven》 조사에서도 모든 구단 감독들이 베스트 11으로 꼽아 이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됐다.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은 지난 12월 엔젤·엔시오 대상으로 '엔젤클럽의 선택 대구FC 하늘빛 전사' 설문조사를 통해 2019년 최고 활약한 대구FC 선수(2명)와 언성히어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엔젤 단독방과 엔시오 밴드 및 전화를 통해 조사했고, 응답자 중 유의미한 100명(엔젤 50명, 엔시오 50명)의 의견을 정리했다. 조사결과 **세징야가 100명 중 98명의 지지를 얻어 단연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 세징야는 축구 전문 잡지 《Best Eleven》 조사에서도 모든 구단 감독들이 베스트 11으로 꼽아 이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됐다. **다음으로 김대원을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명이 선택**, 2019년 활약에 버금가는 찬사를 받았다. 김대원 역시 시즌 막바지 다소 주춤했지만, 시즌 초반 홈 개막전에서 환상적인 슈팅을 보여주는 등 강한 인상을 심었다.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는 26표를 얻어 3위, 정태욱과 에드가가 4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황순민, 정승원, 홍정운이 이름을 올렸다.

대구FC 모든 선수들이 최고의 선수 '한목소리'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팀에 기여가 높았던 '언성히어로'에는 얼굴 천재에서 축구 천재로 진화하고 있는 정승원이 2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수비 부문에서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한 **김우석도 17표를 받아 뒤를 이었다**. 정승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스타로 언성히어로가 맞느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많은 엔젤과 엔시오들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플레이하는 정승원에게 언성히어로의 이름을 붙여줬다. 김우석도 대표적인 언성히어로다. 특히 시즌 초반 홍정운의 부상으로 수비진이 흔들렸을 때 제몫을 다하며 팀의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불안할 때도 있었지만, 한 시즌 동안 많은 성장을 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드필드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영웅'으로 엔젤과 엔시오의 가슴에 남았다. **황순민은 '최고 활약 선수'와 함께 '언성히어로'에도 많은 표를 받았고**, 전역 복귀 후 좋은 활약을 펼쳤던 김선민, 김동진도 박수를 받았다. 수비에서는 김우석과 함께 정태욱, 홍정운과 주장 한희훈이 사랑을 받았고, 류재문, 츠바사, 신창무, 박병현, 김준엽, 강윤구 등 대부분의 선수들이 엔젤과 엔시오의 가슴에 남았다.

재미있는 답변도 많았다. 모든 대구FC 선수들이 최고의 선수요, 언성히어로라는 응답은 엔젤 모두가 하는 공통된 이야기다. 대구FC 프런트에도 많은 점수를 주었으



>> 엔젤·엔시오 대상으로 한 '엔젤클럽의 선택 대구FC 하늘빛 전사' 설문조사

며, 특히 2019년 인기를 끌었던 대구FC 마스코트 '리가'도 많은 표를 받았다. 이외에도 키트매니저 고강훈, 장내 아나운서, 조광래 대표이사 등의 답변도 있었다.

엔젤·엔시오 2020년 대구FC 3위 예상

이번 설문에서는 대망의 2020시즌 대구FC 예상 성적도 물어봤다. **2020시즌 대부분의 엔젤들은 2019년 보다 더 높은 성적을 기대했다. '3위'라고 답한 응답자가 55명으로 절반 이상이 ACL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년 3위에 오르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시즌 막바지까지 3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는 예측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부상으로 시즌 중간에 하차했던 홍정운과 츠바사가 복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음은 4위다. **23명의 엔젤과 엔시오가 4위가 가능하다고 했다**. 2019시즌 대구FC가 꾸준히 4위를 유지한 것을 감안하면 무난한 예측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1위, 즉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응답도 있었으며 99명의 엔젤과 엔시오가 상위스플릿을 점쳤다. 다만, 1명이 7위로 하위스플릿에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세징야, 조현우 등 대구FC의 주축 선수들이 이탈할 경우 자칫 팀 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19년 활약한 대구FC의 하늘빛 전사들이 제 기량을 발휘해 2020년에는 아시아로 가는 국제선 티켓, 나아가 우승컵을 따내도록 기대해본다.⁴⁾



5년 후원 엔젤, 새로운 축구 후원문화 정착!

엔젤클럽 5년 후원 엔젤에 기념현판 전달
2부, 텅빈 경기장 등 척박한 환경 속에도 변함없는 후원

2019년은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에게 의미 있는 해다. 엔젤클럽이 공식 출범하기 전인 2015년, 척박한 스포츠 환경에서 엔젤이라는 ‘씨앗’을 이 땅에 심은 초기 멤버들이 헛수로 5년째를 맞았기 때문이다. 초창기 엔젤클럽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시 대구FC는 2부리그에 있었고, 대구스타디움은 텅텅 비었다. 스포츠마케팅 개념도 뿌리내리지 못했고, 엔젤클럽 회원 역시 ‘엔젤’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새로운 축구 후원문화를 개척한 엔젤클럽 비긴즈 멤버들이 2019년까지 5년째 엔젤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 중에는 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엔젤도 있지만, 뒤에서 묵묵히 후원하는 ‘키다리 아저씨’ 엔젤도 있다. 일부 엔젤은 이름도 낯설 정도지만 ‘축구사랑을 통한 지역사랑’이라는 엔젤문화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5년이라고 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는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은 “한 해 한 해 잊지 않고 대구FC를 위해 후원하는 엔젤의 정성에 다시금 고개가 숙여진다”며 “2019년 들어 5년 후원 엔젤을 확인하면서 낯선 이름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감동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길이 멀어야 말(馬)의 힘을 알고, 세월이 오래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말처럼 5년이란 세월 동안 변함없이 대구FC를 후원한 엔젤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됐다.”며 엔젤클럽의 발전을 확신했다.



>> 5년 후원 기념현판을 받고 있는 정영준, 허정수, 최익진 엔젤, 임태건 엔젤본부 상임부회장(회장단 대표)
이태훈 엔젤은 대구FC엔젤클럽 조찬회의에서 5년 후원 기념현판을 받고 있다.

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엔젤도 있지만, 뒤에서 묵묵히 후원하는 ‘키다리 아저씨’ 엔젤도 있다. 일부 엔젤은 이름도 낯설 정도지만 ‘축구사랑을 통한 지역사랑’이라는 엔젤문화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향후 지속적으로 5년 후원 엔젤 발굴, 기념현판 증정 예정

엔젤클럽에서는 이런 초기 엔젤들의 뜻을 기려 5년 연속 후원금 납부 엔젤을 위한 기념현판을 만들어 증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3일 대구FC와 전북현대모터스와의 홈경기에서 기념현판 증정식을 갖고 정영준((주)다원아이디 대표), 최익진((주)풍국면 대표), 허정수(명진약품 대표) 엔젤에게 전달했다.

기념현판을 받은 정영준 엔젤은 “2015년 엔젤에 대한 취지를 듣고 곧바로 가입한 뒤 벌써 5년이 지났다. 더 많은 엔젤분들이 큰 역할을 해서 오늘의 엔젤클럽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 모든 엔젤이 처음 가입할 때 그 마음으로 계속 대구FC를 후원해서 명문 자립구단이 되는 그날을 기다려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리 소문 없이 후원을 이어왔던 허정수 엔젤도 “오늘 기념현판을 받고 보니 처음 엔젤클럽 가입할 때가 생각난다”며 “감회가 새롭고, 이렇게 기억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최익진 엔젤 역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깊은 대구FC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엔젤비긴즈 멤버다.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5년 후원 엔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엔젤의 역사도 한 해 두 해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엔젤클럽에서는 일일이 엔젤비긴즈 멤버들을 찾아 현판을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로 5년 후원 엔젤들에게도 현판을 제작, 기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료 부족으로 누락된 5년 엔젤을 찾는 한편, 헛수가 5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5년 치 후원금을 미리 납부한 엔젤에게도 ‘5년 후원 엔젤’ 기념현판을 증정하는 등 5년 후원 엔젤을 더욱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5년 후원 기념현판 전달식을 지켜본 박기원 엔젤은 “비록 엔젤비긴즈 멤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엔젤이라는 것에 너무 행복하다”며 “앞으로 10, 20년 후원 엔젤 모습이 기대된다.”고 ‘Forever Angel Club!’을 외쳤다.4*

대구FC엔젤클럽 5년 연속 후원자	
성명	회사명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권일경	(주)위드
김완준	(주)IID
김재홍	대호약품
배장수	진명전력(주)
서기수	바르미 호텔인테리어 대구
임태건	(주)태준메디칼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이태훈	(주)에드스미스
이호경	대영예코건설(주)
정영준	(주)다원아이디
최익진	(주)풍국면
허정수	명진약품
대구FC엔젤클럽 4년 연속 후원자	
성명	회사명
김영규	김영사종합상사
김주성	광개토병원
박성수	신화헬스앤드의료기
서찬교	대원전기
안상영	광진종합건설(주)
윤태경	바로분병원
이도희	대한주택건설협회
이복희	(주)광덕전력
이승현	(주)동서개발
장원용	대구광역시 소통특보
정호균	메디피아
조두석	(주)에드메이저
최태원	대구축구협회

* 본 명단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구FC & 엔젤 2019를 빛내다

SPECIAL THEME



키워드로 보는 대구FC & 엔젤 10대 뉴스 2019 Best of Best



Photo by 대구FC

‘혁신 이룬 스포츠산업’ 대구FC 문체부장관상

대구FC가 지난 12월 18일 제15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우수 프로스포츠단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축구 불모지였던 대구는 새 전용구장에서 2019시즌 최고 히트상품인 ‘쿵쿵 골’ 응원으로 야구팬까지 끌어모았다. 1만 2천 석에 깔린 알루미늄 발판을 굴러 대구라는 자존심을 웅장하게 합창했다.



Photo by 대구FC

‘플러스 스타디움상’ ‘팬 프렌들리 클럽상’ 2관왕

잘 나가는 집 대구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한 2019년 ‘플러스 스타디움(Plus Stadium)상’ ‘팬 프렌들리 클럽(Fan-friendly Club)상’ 등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2019시즌 리그 흥행 일등공신 대구는 평균 관중이 무려 7,216명이 증가, 평균 관중 10,734명을 기록했다. 퇴근길 팬 서비스, 축구장 가는 길 조성 등 축구를 문화콘텐츠로 끌어올렸다.





Photo by 대구FC

2019 대구FC 역대 최고 5위!

대구FC가 역대 최고 성적 5위로 2019시즌을 마무리했다. 대구는 지난 12월 1일 하나원큐 K리그1 2019 38라운드 경기에서 FC서울과 득점 없이 비겼다. 13승 16무 9패로 승점 55점, 최종 순위 5위를 기록한 채 시즌을 마무리한 것. 한준희 해설위원은 “대구는 관중 흥행, 경기력, 팀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019시즌 최고의 롤모델”이라고 평가했다.

2019년 마지막 홈경기도 매진, 시즌 9번째

대구FC가 2019년 마지막 홈경기에서 만원 관중을 예고하며 2019시즌 전체 9번째 매진을 기록했다. FC서울과의 K리그1 파이널A 최종 38라운드(2019. 12. 1.)를 앞두고 입장권 예매를 시작한 지 약 2시간 반 만에 모든 좌석이 매진된 것. DGB대구은행파크는 개장 경기인 3월 9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2라운드를 시작으로 2019시즌 총 9차례 매진 행렬을 이어왔다.



Photo by 대구F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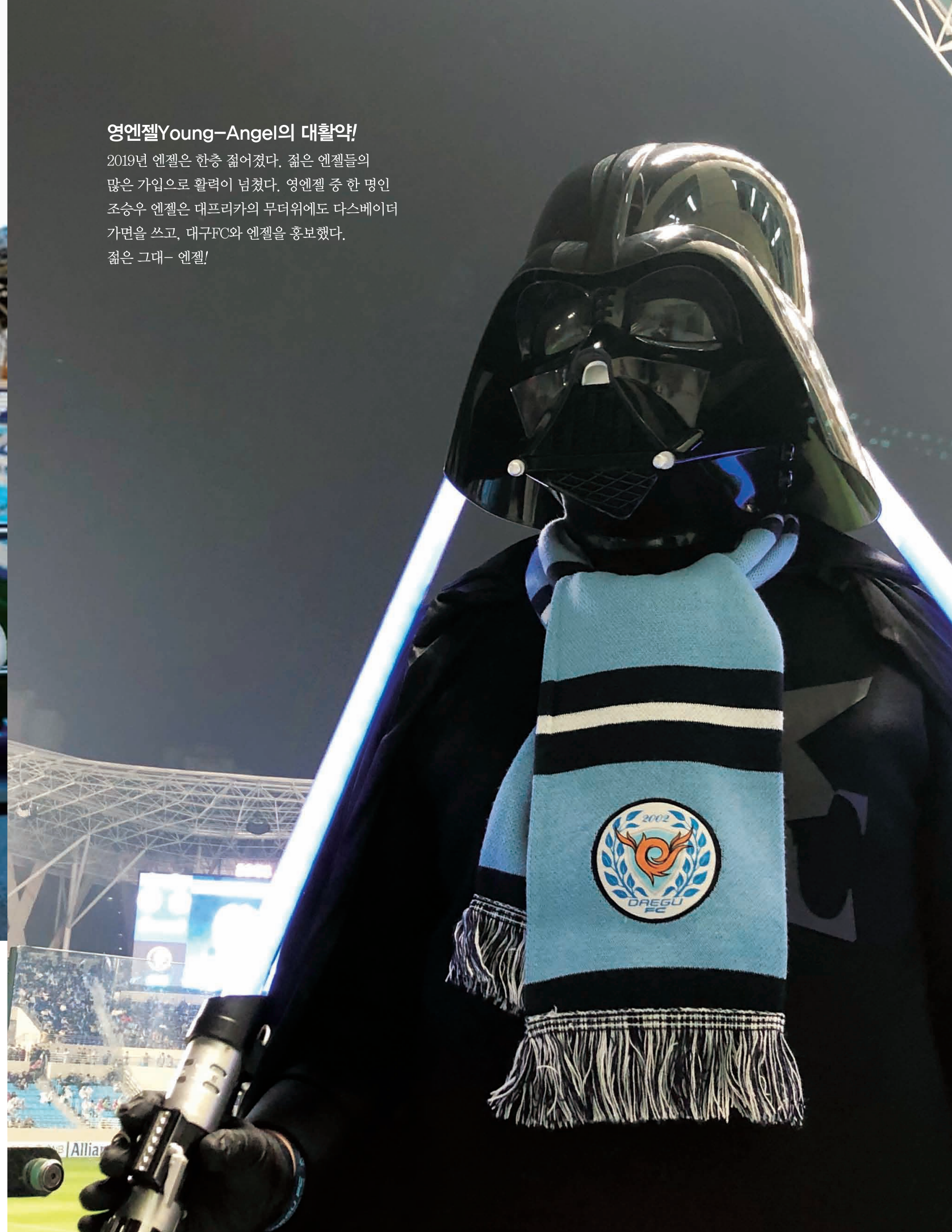
Photo by 대구FC

‘귀여워서 숨 막혀요’ 공슴도치 리카 육아일기

리카의 ‘숨 막히게 귀여운’ 일상이 SNS를 통해 펼쳐졌다. 대구FC 마스코트인 공슴도치 ‘리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rica._official)은 ‘전지적 부모 시점’으로 리카를 소개하는 육아일기 컨셉이다. 지난 5월 9일, 백일잔치를 열었다. 귀여운 외모지만, 화가 나면 털을 가지처럼 세운 후 몸을 축구공 모양으로 만들어 상대편 골대를 향해 돌진하는 습성이 있다. 리카 배지, 무릎담요 등 굿즈를 출시했다.

영엔젤Young-Angel의 대활약!

2019년 엔젤은 한층 젊어졌다. 젊은 엔젤들의 많은 가입으로 활력이 넘쳤다. 영엔젤 중 한 명인 조승우 엔젤은 대프리카의 무더위에도 다스베이더 가면을 쓰고, 대구FC와 엔젤을 홍보했다. 젊은 그대-엔젤!



절대승리를 찾아 떠난 엔젤원정대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20여 명 엔젤들이 전북 원정길에 올랐다. 상대는 우승팀 전북현대! 하지만, 말의 귀를 닮았다 해서 마이산이라 불리는 신비한 산 아래 엔젤들은 절대승리를 확신했다. 2개의 봉우리 앞에 2 대 0을 예언했다. 결과는 대구FC의 2 대 0 승리였다.



파이널A는 처음이라

엔젤들은 대박에서 최고의 해를 맞았다. 대구FC는 2019년 9월 28일 제주전에서 극적인 무승부로 구단 사상 최초로 상위스플릿인 파이널A에 진출했다. 엔젤도 이 역사적인 날 함께했다. 대구FC는 2019년 5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엔젤 깃발 높이 높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저 푸른 그라운드를 향하여 흔드는 / 영원한 시티즌 오블리주의 손수건’

2019년 대박은 엔젤 깃발로 뜨거웠다. 엔젤들은 깃발을 나눠주고 거두며 깃발의 생명을 이어갔다. 아아, 누구던가! 이 가슴 벅찬 마음을 맨 처음 깃발에 담은 이들은! 엔젤



2020 새해 목표는 엔젤 가입

국내 유명 온라인 축구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느 축구팬의 2020 새해 목표다. 엔젤은 축구와 열정을 사랑하는 로맨티스트다.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삶이다. 엔젤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엔젤시티 대구다.

ANGEL WITH US

축구사랑, 대구사랑은 엔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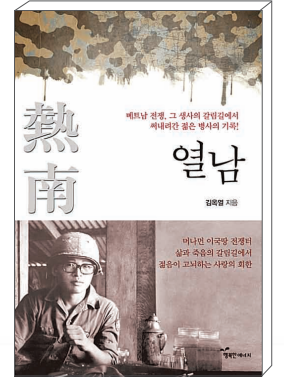
월남 파병 자원, 기능공 출신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키워
 김옥열 다이아몬드 엔젤(주)화신 회장

열혈남아 熱血南兒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1

베트남전쟁,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써내려간 젊은 병사의 기록 《열남熱南》



‘1971년 10월 25일 오후, 우렁찬 뱃고동 소리가 깊고도 무거운 여운을 남기며 부산의 제3부
 두를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인터뷰 전날부터 《열남熱南》(행복에너지 펴냄)이라는 책을 손에 쥐었다. 책 표지에는 군복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 안성기 주연의 〈하얀전쟁〉(1992, 정지영 감독) 포스터가 떠올랐다.
 다이아몬드 엔젤 김옥열 회장(주)화신)의 스물셋, 꽃 같은 ‘청춘’의 비망록이었다. **“파월 교
 육 종료 시점이었어요. 손톱과 머리카락을 잘라 넣고 군번과 이름을 적은 봉투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문득, 월남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 내 머리카
 락, 손톱만이 아니라 나를 대신할 기록도 함께 남겨지기를 바랐어요.”** 그렇게 스물셋 김일병
 의 파월일기는 시작됐고, 《열남熱南》이라는 책이 되어 벌써 3번째 인쇄됐다.

‘남자의 기백’을 갖고 싶어 파월장병 자원

**“전쟁터만큼 짜릿하고 살아있는 교훈을 주는 곳도 없습니다. 총탄이 빗발치고 피가 튀는 곳
 에서 저는 진정한 ‘남자’이고 싶었습니다.”** 경남 합천의 명산 황매산 아래 태어난 김 회장은
 어려서 가난했다. 아버지가 산판山坂을 하다 크게 사기를 당하면서 가세가 기울었다. 7남매
 중 다섯째이고 보니, 삶이 팍팍했다. 매사에 주눅들고 내성적이었다고 한다. 김 회장은 그렇
 게만 살고 싶지는 않았다. 한계에 자신을 밀어 넣고, 다시 태어나고자 했다. 그렇게 택한 것
 이 군 입대와 월남행이었다.

“군대에서 남자다운 기백을 얻고자 했지만, 막상 전방부대에 배속되어도 매일 땅만 파고, 산
 에 오르고 하니 크게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었어요. 그때 파월지원병
 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온 밤을 밝히며 고민하다,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대하면 시간을 허비한다고 말했지만, 김 회장은 군대만큼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곳도 없다
 고 생각했다. 거기에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남역의 전쟁터로 자신을 몰았으니 김 회장의 결
 심은 대단했다.

이 같은 김 회장의 도전정신은 제대 후 사회에서 빛을 발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기술을 좋아
 해서 일찍이 도회의 공장에 취업했다. 돈 한 푼 없고 이렇다 할 학력도 없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했고 손재주 하난 뛰어났다. **“어린 시절 학교 가는 길에 대남철공소가 있었지요. 돌아가
 는 기계에 쇠를 갖다 대니 일정하게 쇠가 깎여 나왔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재미있
 었습니다. 공장 주인이 저리 가라고 내쳐도 매일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문인지 김
 회장은 통일중공업에 입사해 기능공 출신으로 출발했으나, 기술과장, 기술부장을 거쳐 연구
 소 소장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발간포’를 국산화한 일화는 영화 같은 이야기다. 당시 정부에



- 1 기능공에서 글로벌 기업을 키워낸 김옥열 회장이 뜨거웠던 지난날들을 전해주고 있다.
- 2 대구FC엔젤클럽 재킷과 머플러를 두른 김옥열 회장

서는 자주국방을 외쳤고, 그 일환으로 발칸포 국산화에 나섰다. 하지만 원천기술이 없던 터라 바닥부터 시작해야 했다. 마침 통일중공업에서 그 일을 맡았고, 김옥열 회장이 책임자가 됐다. 언제나 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그에게 중책이 맡겨지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

온몸에 기름 뒤집어쓰며 발칸포 국산화 성공

하지만 공학을 체계적으로 익히지 않았던 김 회장은 막막하기만 했다. 우선 관련 도면을 놓고 영한사전을 수천 번 뒤져가며 연구했고, 수많은 날들을 하얗게 지새웠다. 포신을 깎고 기관부를 직접 가공해 조립하면서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쓰기도 했고, 때로는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기도 했다.

“결국 제 손으로 발칸포 2문을 만들었습니다. 다락대 군 사격장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시범 사격을 할 때였어요. 발칸포가 ‘파파팡’ 불을 뿜자,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값진 눈물이었다. 그 공로로 회사는 대통령 특별지시로 창원국가산업단지로 제일 먼저 이전을 했고, 회사 사장은 은탑산업훈장을, 그리고 김 회장은 국방부장관상과 ‘한국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학기술상 대상(1986)을 수상했으며, 그의 이야기는 자주국방의 신화가 됐다. 그룹 기획실장까지 승진하며 승승장구했던 김 회장은 독립해서도 발휘했다. 1991년경 회사 사정으로 잠시 쉬고 있던 김 회장은 뜻밖에 새로운 길로 들어선다. 대구에 있는 기계공장을 임대해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타고난 ‘기술자’인데다 성실함으로 무장한 김 회장은 하루가 다르게 회사를 키워나갔다. 어려움이 닥칠 때는 언제나 월남에서의 경험이 힘이 됐다. 위기가 닥칠수록 그는 오히려 더 나아갔다. 김 회장 스스로는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그의 삶을 들춰 보면 그 ‘운’은 그 스스로가 만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운’은 힘들고, 어려운 한계의 그 너머에 있다. 실제로 김 회장은 언제나 쉬운 길보다는 힘들더라도 올바른 길을 택했다. 통일중공업 근무 시절이었다. 회사가 개발한 신규 공작기계로 울산의 현대자동차 신규 생산라인을 자동화할 때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번에도 김 회장의 몫이었다. 책임자로 직접 울산에 가서 살았다. 문제되는 부분을 피하지 않고 몸으로 부딪쳤다. 그러다 보니 당시 자동차회사 간부들도 그의 기술력과 성실함을 알게 됐다. 그때의 경험은 훗날 김 회장이 자동차 부품 분야에 뛰어들 때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김 회장의 ‘운’은 IMF 때도 찾아왔다. 그는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켰다. IMF 기간 동안 오히려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위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기술개발과 품질에 노력한 덕분이었다. **“사업을 하면서 기적과 같은 ‘운’이 열세 번이나 왔어요. 현재 성서공단의 우리 공장 부지도 삼성상용차 부지 재분양 때 140 대 1을 뚫고 선정됐어요. 범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1



2

긍정적인 마인드는 ‘운運’을 부른다, 범사에 감사할 따름

김 회장의 ‘운’은 결국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언제나 힘들더라도 정도를 걸어온 그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석된다. 월남의 전쟁터에서도, 그리고 치열한 산업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제환경이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주식회사 화신이 빛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김 회장은 회사가 안정되자,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대구아너소사이어터 100호, 대구새마을협회장, 대구시골프협회장, 그리고 (사)유라시아협회장, 모로코명예영사 등으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하나 더해진 것이 ‘대구FC엔젤클럽’ 활동이다. 이전에 조광래 대구FC 대표이사가 공장을 직접 찾아, 사인볼을 전달한 것이 인연이 되어 대구FC를 후원한 적이 있는데, 2019년 들어 문경화 다이아몬드 엔젤의 추천으로 엔젤 식구가 됐다. **“엔젤 여러분 모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박에 모여서 대구를 응원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 어디에서 저런 애정이 나오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심 없이 김밥을 함께 싸고 어묵도 끼우고, 또 원정 갈 때는 너도 나도 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그 정성이 대단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을 보면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런 엔젤정신이 대구를 더 아름답게 할 겁니다.”** 김 회장은 엔젤과 함께했던 2019년이 더없이 행복했다고 한다. 아울러 2020년에도 엔젤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최근 김 회장은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다. 바쁜 대외 활동에도 지난날들의 자료를 모으고, 틈틈이 컴퓨터에 앉아 자판을 두드린다. 스물셋 청춘, 충을 들고 월남에서 뜨거운 삶을 살았듯, 이번에는 글이라는 충을 들고, 정글같이 치열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그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함께 교훈과 지혜가 있을 것이다. “자기 글을 쓴다는 것을 염두에 둔 삶은 한 순간마다 굉장히 무게가 실려요. ‘오늘의 일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엄숙해진답니다.” 조만간 《열남熱南》에 이은 또 다른 김옥열 회장의 인생 비망록을 기대해본다.^{4*}

●
1 《열남熱南》의 배경인 베트남을 다시 찾은 김옥열 회장
2 베트남전쟁, 그 치열한 전쟁터에 선 젊은 청춘 김옥열

평소 이웃사랑 실천, 엔젤의 전당·사무국에도 가구 기증
강준기 엔젤(주)포머스 대표

포기 말고, 머뭇거리지 않고,
스스로 개척한 가구인생



1



2

‘포’기하지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스’스로 하자.
새해 건배사로 이긴 어떨까. 대구·경북 굴지의 사무용 가구 제조업체 (주)포머스의 대표 강준기 엔젤은 인생 철학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자체 브랜드이자 회사 이름인 ‘포·머·스’의 세 글자로 삼행시를 지어 답했다. 험난한 인생 여정에 이보다 더 명확한 가르침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머뭇거리기도 하며, 누군가에게 의지한다. 광고 크리에이티브 박웅현의 책 《책은 도끼다》처럼 그의 말은 도끼가 되어 가슴에 꽃혔다. 새해 덕담 같은 그 삼행시는 한편으로는 강준기 엔젤의 삶이기도 했다.

가구 배달부터 시작해 대구·경북 대표 가구기업 일귀
12월 초, 경산 외촌 갯바위로 향하는 909번 지방도로를 따라 가니, 팔공산 자락 무학산에 겨울 기운이 완연했다. (주)포머스는 신라 김유신 장군이 수련했다는 불굴사佛窟寺 가는 길 초입에 우뚝 솟아 있었다. 뒤로는 무학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었고, 앞쪽은 청통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강준기 엔젤이 걸어온 인생 마냥 당당했다.
(주)포머스는 대구·경북의 대표적인 사무용 가구 제조업체다. 지역 가구업계의 자존심이다. 어떻게 기업을 일구었는지 궁금했다. 강준기 엔젤의 답은 명쾌했다. “먹고 살려고 했지!” 일순간 웃음이 터졌지만, 그 시절 그것만큼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까. 솔직한 강준기 엔젤의 고백에 한편으로 짝하기도 했다. 실제로 군대에서 제대한 강준기 엔젤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제대해서 직장에 들어갔더니 월급이 고만고만했지. 그걸로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촌놈이라도 배포는 켜나봐.(허허) 그래서 시작한 게 야채장수였어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당시에도 야채장수를 하는 게 만만치 않았지...” 강준기 엔젤은 그 시절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오히려 젊은 패기로 찬란했다며 “통배추, 얼갈이배추, 열무, 알타리무, 싱싱한 야채가 있습니다...”라고 읊조리며 그때를 회상했다.

- 1 엔젤 배지를 단 강준기 엔젤이 2019년 엔젤의 한 해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 2 강준기 엔젤은 부인 허연옥 님과 함께 (주)포머스를 공동 운영하며 가구업계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

(주)포머스는 가구업계
중소기업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제품시험실을
보유하고 있는
자기품질인증기업이며 자체
연구소에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480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자본주의 아님니까! 흔히 ‘돈’ 이야기 하면 조심스러워 하는데 세계적인 갑부가 많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돈’ 공부를 합니다. 그래야 돈에 지배받지 않고 돈으로 좋은 일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돈의 ‘참맛’을 알고 싶었습니다. 돈을 버는 맛, 돈을 모으는 맛, 돈을 쓰는 맛 말입니다.” 강준기 엔젤은 장사에 대한 물리를 타고 났다. 막상 야채장수를 따라다니다 보니 장사가 눈에 들어왔다. 홀로서기를 생각한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에게 100만 원을 빌렸다. 그 돈으로 중고 트럭 하나 구입하고 나머지는 장사 밑천을 삼았다. 서울 곳곳, 산동네까지 돌며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다 보니, 잠도 부족하고 시간 대비 수익도 나지 않았다. 마침 가구점 세 곳에 야채를 대기 시작하면서 가구와 인연을 맺었다. 강준기 엔젤에게 ‘그냥’은 없었다. 어떤 일이든 연구하고, 결과를 낸다. 야채 배달은 자연스레 가구 배달로 이어졌다.

“가구점에 일찍 가서 셔터도 올려놓고, 청소도 했어요. 참 부지런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의 성실함은 가구 매장이 즐비했던 서울 사당동과 논현동 일대에 퍼져 나갔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강준기 엔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틈틈이 가구 수리하는 법도 배웠다. 또 가구 배달을 하면서 버려진 소파, 장롱이 눈에 들어왔다. 버려진 가구들은 강준기 엔젤의 손을 거치면서 새로운 가구가 태어났다. 그렇게 2년을 벌여 수천만 원을 모으니 그에게는 또 다른 길이 열렸다. 반지하이기는 했지만, 논현동에 가구점을 차린 것. 자리를 잡았으니 그의 영업력이 더 빛을 발했다. 당시 논현동 가구골목은 비싼 가구가 주류를 이뤘다. 고급가구 골목에 품질 좋고, 가격까지 인근 가구점에 비해 착하니,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시련도 찾아왔다. 가구 배송과 매장 운영으로 차근차근 돈을 모았던 강준기 엔젤은 가구공장을 인수하는 등 사업 확장을 했다가 실패하면서 빈털터리가 됐다. 거기서 쓰러질 강준기 엔젤이 아니었다. 오히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소위 ‘잘 나갈 때’ 주위의 어려운 가구공장을 도와준 것이 반대로 그가 빈털터리가 되자 도움으로 돌아왔다.

다시 일어선 곳은 바로 대구다. 1995년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온 그는 좋아하던 술도 몇 년 동안 끊을 만큼 재기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결국 대구 동구 봉무동에서 작은 가구공장으로 다시 시작했고, 오늘의 (주)포머스를 일궈냈다. 아내와 공동 대표로 있는 (주)포머스는 가구업계 중소기업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제품시험실을 보유하고 있는 자기품질인증기업이며 자체 연구소에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480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GD마크 획득, PIN-UP 디자인 수상, 특허실용신안 중소기업성능인증, ISO인증, Q마크, 이노비즈, 벤처기업우수제품 등 디자인과 품질면에서 모두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경산 본사 1공장과 충북 음성 2공장, 서울지사 매장 등에 17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등 가구기업으로서는 규모가 크다.

무한불성無汗不成的 정신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

거친 세상을 ‘포·머·스’의 긍정 마인드로 헤쳐온 강준기 엔젤은 젊은 세대에게도 관심이 많다. “산업요원으로 우리 회사에 입사하는 청년들에게 특별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에 입대했다’ 마음먹고 한 3년 열심히 하면 사회에 진출할 밑천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강준기 엔젤은 그들에게 생활비 외에 나머지는 악착같이 모으라고 조언한다. 본인이 원하면 회사에서 아예 생활비 외에 나머지 돈을 관리해주겠다고 한다. 그렇게 3년을 모으면 퇴직금과 함께 5천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돈을 더 모으고 싶으면 2년 정도 더 근무하는 길도 열어놓았다. 월급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1억 이상 모을 수 있고, 이 돈은 든든한 사회의 밑천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두 기분이 좋다고 하지요. 그런데 기분이 좋은 게 다가 아닙니다.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의 설명을 듣는 순간 마치 살아있는 인생대학에 온 것 같았다. “요즘 모두 ‘어렵다, 어렵다’ 하지요. 하지만 어렵다고만 하면 더 힘들 뿐이에요. 길이 왜 없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이리저리 재면서 머뭇거리고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니 안 될 뿐입니다. 된다는 생각으로 부딪치면 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의 좌우명인 ‘무한불성無汗不成’도 같은 맥락이다. ‘땀을 흘리는 노력 없이 성공도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는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솔선 수범한다.

한편,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낸 만큼 강준기 엔젤은 이웃을 위하여 오랫동안 남몰래 가구를 기증하는 등 사회봉사가 몸에 익었다. 대구FC엔젤클럽 역시 같은 맥락이란다. 장원용 엔젤의 추천으로 엔젤이 된 강준기 엔젤은 대구FC를 위한 후원은 물론이고, 엔젤에 대한 후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바쁜 업무로 인해 자주 경기장을 찾지 못하지만, 엔젤클럽 사무국은 물론 DGB대구은행파크에 들어설 ‘엔젤의 전당’의 사무용 가구 일체를 후원하는 등 엔젤클럽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엔젤클럽이 뭔지 몰랐어요. 좋은 사람이 추천하니까 두말 않고 가입했지. 설마 장 국장(당시 대구MBC 보도국장)이 나쁜 곳에 추천했을까요? 지나고 보니 역시 가입하기를 잘했어요.”

올 한 해 바쁜 일정으로 경기장을 찾지 못했지만, 엔젤 활동을 잘 알고 있다는 강준기 엔젤은 “전국에서 이처럼 자발적으로 일어나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정신이 어디 있겠냐”며 “엔젤의 헌신적인 활동이 오늘의 대구축구를 있게 하는데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엔젤의 힘을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묵묵히 지역과 엔젤을 위해 뒤에서 힘이 되겠다고 했다. 좋은 사람이 추천하는 엔젤클럽,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엔젤클럽, 강준기 엔젤이 오늘도 희망의 에너지를 또 보탠다.41

● 경산 와촌 (주)포머스 본사 전경

모든 분께 감사, 앞으로 다른 역할로 기여할 것
대구FC엔젤클럽 엔시오본부 상임부회장 마친 **김완준 엔젤**((주)JID 대표)

엔젤의 염원, ‘대박 1만 시대’ 기뻐



1

- 1 김완준 엔시오본부 상임부회장은 최근 사무실에서 2020년 사업 구상에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 2 지난 여름,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과 조승우 엔젤 사무국 관계자가 두엔에 모여 엔시오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2

한 해가 저무는 세월에 김완준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 엔시오본부 상임부회장을 만났다. 앞산을 바라보고 현충로를 따라 오르다 보면 화이트 톤의 깔끔한 카페, 두앤(doux&)이 나온다. 프랑스어 'doux(두)'는 달콤함, 온화함을 뜻한다. 여기에 &(And)가 붙었으니 달콤함을 더하는 카페다. 2층에는 김완준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전문회사 (주)제이아이디(JID)가 위치해 있다. 직원들은 힐링이 필요할 때면 두앤으로 와서 에너지를 충전한다. 처음에는 회사 사무실이었으나 직원들을 위하여 카페로 바꾼 것이다. 두앤의 문을 열자, 커피향이 확 올라왔다. 김 부회장은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갓 내린 아메리카노를 내왔다. 크레마가 가득한 신선한 원두여서 커피 아로마가 아득했다. 조만간 두앤을 못 본다니 개인적으로 아쉬웠다.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이곳을 다시 사무실로 복구시킨다고 한다. 아쉬운 것이 또 있다. 김 부회장이 그동안 맡았던 엔시오본부 상임부회장 자리를 내놓는다는 것이다. 그런 섭섭한 맘도 모르는지 그의 표정은 평화롭고 은은했다. 검고 흰 머리, 그리고 수염이 콜라보를 이뤄, 그의 모습은 마치 성직자처럼 깊고 평화로웠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표정이었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다.

청년엔젤, 미래엔젤 제안 계기로 상임부회장 추천받아

“엔젤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섭섭해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히히) 얼마 전에도 ‘무슨 일이 있냐?’며 연락이 왔었어요. 제대로 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아쉬워 해주니 참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잘 있습니다.” 상임부회장직을 내려놓은 김 부회장은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저는 원래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제가 제안한 일이 있어 상임부회장 자리를 맡았을 뿐입니다. 앞으로 다른 역할을 맡아, 엔젤과 엔시오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묵묵히 후원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김 부회장은 2018년 초 엔젤클럽 TF팀에 잠시 합류해 ‘청년엔젤’ 또는 ‘미래엔젤’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층에 대한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가 그 인연으로 상임부회장이 됐다. “1,004명 진성엔젤에, 엔젤 회원 한 명당 10명의 학생엔젤, 청년엔젤, 미래엔젤을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1만

명의 엔젤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호경 회장님이 기존 “엔시오 제도가 있다.”고 하면서, 좋은 의견을 제안했으니 엔시오본부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지요. 이 회장의 ‘축구사랑을 통한 지역사랑’이라는 좋은 뜻에 공감해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책임감이 강했던 그는 엔시오 확대를 위하여 적극 나섰다. 발품을 팔아 대구달서구축구협회와 서구청 등을 다니며 엔시오를 홍보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엔시오를 알렸다. 특히, 대구 축구전용구장(현재 대팍)의 완공을 앞두고 실시한 엔젤클럽의 ‘만 원의 만원滿員’ 캠페인을 위해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았다. ‘만 원의 만원’ 캠페인은 월 1만 원의 후원금으로 축구전용구장을 가득(만원) 채워 보자고 시작한 프로젝트다. 김 부회장은 직접 ‘만 원의 만원’ 전단지지를 디자인하고, 제작해 엔젤들과 함께 관중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었고, 홍보 이미지도 만들어 대구스타디움의 전광판에 방영되도록 구단에 요청했다. 평균 관중 3~4천 명인 대구스타디움 시대에 ‘대팍의 만원’을 예견하고 외친 것은 엔젤클럽이 유일했다. 실제로 대팍은 2019년 개막전의 매진에 이어 모두 9번의 매진을 기록하며 1만 명 관중 시대를 열었다. 엔젤이 그토록 외치던 ‘대팍 만원’이 현실화된 셈이다. 만원 관중이 모두 엔젤과 엔시오의 힘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대구스타디움 시절부터 계속됐던 김 부회장과 엔젤의 외침은 분명 나비효과처럼 시민들에게 퍼져나갔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팍 매진이 엔시오 정책에 변수가 됐다. 경기장이 가득 채워지는 상황에서 월 1만 원의 엔시오 정책은 기존 구단의 시즌권과 다를 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대팍 매진 시대, 엔시오도 자발적 순수 후원정신 살려야

당초 김 부회장도 기본적으로는 엔시오 역시 엔젤클럽의 시민정신을 모토로 하는 만큼 ‘자발적이고 순수한 후원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당시 ‘만 원의 만원’ 캠페인을 실시한 것은 우선적으로 축구전용구장을 가득 채우자는 데 무게가 더 실렸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팍이 매진이 되는 만큼 엔시오 정책 방향도 순수한 후원정신과 엔젤의 시민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엔시오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만큼 김 부회장은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사업에 전념해야 하는 만큼, 중요한 자리를 맡아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 것도 상임부회장직을 내려놓은 이유다. “그동안 사업 내실화를 다지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전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엔시오본부에 집중할 수 없어 회장단과 엔시오본부 임원들에게도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 부회장은 뭔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는다.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사임의 의사와 함께 정소영 엔시오본부 상임이사를 추천했다. 현재 엔시오본부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데 다 평소 축구에 대한 이해가 깊고, 축구 인맥도 넓기 때문이었다. **“예전에 정 이사님과 함께 달서구축구협회 모임에 엔시오 홍보를 갔었지요. 저는 달서구축구협회가 그렇게 큰 조직인지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회장을 역임하며 모범적으로 조직을 이끄는 등 축구 인맥이 풍부한 정 이사가 엔시오에 기여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부회장의 무엇이든 제대로 하자는 생각은 자신이 하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 1 대팍에서 엄태건 엔젤본부 상임부회장, 박기원 엔젤과 함께
- 2 김완준 상임부회장이 대구스타디움 시절 축구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엔시오를 설명하고 있다.
- 3 2018 FA컵 우승을 기념하는 축승회에서 세징야 선수와 함께 기념촬영
- 4 금북문화재단시상식에서 엔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왼쪽부터 김중두 사무총장, 김규정 엔젤, 김완준 상임부회장, 박동규 부회장)

다. 지난 98년 창업, 인테리어 디자인과 프로젝트 컨설팅 부문에서 차별화된 설계와 서비스를 수행해온 그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사람과 건축공학적인 부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디자인을 위해 힘써왔다. 대학에서 응용미술을 전공했지만, 제대로 실내디자인을 해보겠다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면서 건축학과에 편입, ‘건축공학’을 공부했다. 평일 낮에는 근무하고 야간, 퇴근 나 주말까지 학교에 다녀야 하던 터라 늘 파김치가 됐지만 제대로 디자인을 해보겠다는 신념으로 자신을 다그쳤다. 공부를 하다 보니 욕심이 더 생겼다.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에서 실내건축공학전공 박사과정까지 수료했다. 한창 사업이 바쁘던 때라 논문을 발표하지 못했지만, 그의 학구적 경험은 디자인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그의 디자인은 단순한 미의 충족에 그치지 않고 공학적인 면과 사람을 아우르고 있다. 수많은 현상공모에 당선된 것을 비롯해 그가 이뤄놓은 디자인 성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는 요즘 다시 그때를 생각하고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자신의 삶과 사업을 디자인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 관계로 바쁜 중에도 김 부회장은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 엔젤·엔시오에 대해 많은 대화를 가졌다. 엔젤과 엔시오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함께 엔시오를 좀 더 안정화하지 못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하지만 인터뷰를 마치고 난 뒤에도 드는 확신이 있었다. 김완준 부회장은 여전히 엔젤이며, 엔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그동안 부족한 자신을 많이 도와준 엔젤클럽 이호경 회장과 강병규, 엄태건 상임부회장, 그리고 엔시오 이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으로 김 부회장의 또 다른 엔젤·엔시오 사랑이 기대된다.🐾

🐾 우리 가족 오월이, 산이, 그리고 하루와 꼬미 🐾

김완준 상임부회장 가족은 대가족이다. 그중에는 애뜻한 식구도 있다. ‘오월(사모예드)’ ‘(앞)산(진돗개)’ ‘하루(웰시코기)’ ‘꼬미(포메라니안)’ 네 마리의 견공들이다. ‘오월’이는 오월에 입양했다 해서 그렇게 부른다. 오월이는 주인에게 버려진 뒤 대형마트에 난입했다가 신고받고 나온 119에 포획되어 묶여 있었다. 마침 출퇴근하면서 오월이를 본 김 부회장은 명함을 주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데려가겠다고 했다. 하루 만에 전화가 왔다. 주인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밤낮 찾아대서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온 만큼, 하루 빨리 데려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뿌연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어 잡종견인줄 알았는데 깨끗하게 씻기고 보니 사모예드종이었다고 한다. 앞산에서 인연이 된 ‘산’이는 야생에 방치돼 너무 새나워서 식구가 되기에 힘들었다. 수의사 권유에 따라 중성화 수술을 했고, 요즘에는 덩치와 달리 완전 순둥이다. 애견숍에서 팔리지 않아 아워어 가다 김 부회장의 딸의 눈에 들어온 ‘하루’, 처음에 생쥐처럼 작디작아 애뜻했던 ‘꼬미’ 모두 김 부회장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다. “개를 키우면서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는 김 부회장은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더 위안받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가족입니다.”고 말했다. 힘든 시기를 보낸 이 식구들은 이제 김 부회장의 품에서 행복하다.



오월이와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김완준 상임부회장

행복했던 2019, 기대되는 2020!

뜨거웠던 대박시대, 축구로 도시가 바뀐다
새해엔 엔젤·엔시오 진성화 통해 내실 다질 것

2019년을 돌아보고, 2020년을 맞는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 송년 임원 확대회의가 지난 12월 4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렸다. 임원들은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박) 첫해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감동 가득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2020년을 맞아 엔젤클럽 본부별 분과를 통합하여 본부 기능을 강화하고, 엔젤·엔시오 진성화를 통해 내실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엔젤앰배서더(Angel-ambassador)를 선정, 축구문화를 전파하고 엔젤클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엔젤 임원들이 쏟아낸 2019년의 행복한 기억과 2020년에 대한 기대감을 정리해봤다.



2019년은 한 편의 영화! 벌써부터 2020시즌 기대돼



심인철 2019년은 한 편의 멋진 영화였다. 대구가 한국 축구 붐을 이끌었고 엔젤이 그 중심에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해였다. 공장 이전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니 대박의 열기를 경험할 수

없었고, 엔젤 활동도 뜸했던 것이 사실이다. 2020년 새해에는 대구축구와 엔젤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



양중호 2019년 가장 기억나는 것은 대구FC의 ACL 진출과 엔젤의 원정 응원이다. 첫 출전에 3승은 대단했다.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큰 성과를 거뒀다. 일본 원정 가서는 대박 덕분에 자부심을 느꼈다.

축구장 하나만큼은 대박이 최고라고 느꼈다. 히로시마 시장까지 와서 함께 응원한 것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ACL 진출권이 있는 마지막 경기에서 아쉽지만, 여전히 기회가 많다. 2020년도에는 더 열심히 응원해서 국제선 타고 싶다.



최중태 FA컵이 아니라 정규 리그를 통해 ACL에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바람들이 대구FC를 전진하게 할 것이다.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개개인의 마음이 모이면 선수들에게도 전달될 것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대박에서 흥분과 감동을 느꼈지만, 앞으로 이런 열기는 일상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엔젤클럽과 대구FC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연구해보겠다.



백무연 1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지난 3월 대영예코건설 대회의실에 모여 호주 ACL 경기를 응원할 때도 떠오른다. 이번에는 ACL을 못 간다 생각하니 사실 속도 상한다. 물 들어올 때 저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쉽다. 이번 겨울에 스토브리그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물론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2020년에도 엔젤의 날개를 펴서 비상했으면 한다. 아울러 경남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너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보다 스텝 바이 스텝이 중요하다.

ACL 진출 실패 아쉽지만 과거 생각하면 격세지감



강정영 최근 대구FC 선수 3명이 라디오 캠페인을 했다. 그들은 '연패하던 대구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축구도시가 됐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라'고 한다. 들을 때마다 설렁한 대구스타디움이 연상

되더라. 엔젤클럽은 어려운 시기에 태동했기 때문에 내공이 쌓였다고 생각한다. 승격을 바라보며 출범했고, 강등을 걱정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순위가 다소 떨어지는 게 아쉽지만, 아무 것도 아니다. 가장 힘들 때도 대구를 지켜왔던 엔젤이다. 초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활약했던 좋은 선수들이 떠나면 또 좋은 선수들이 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어제처럼, 오늘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



김태호 아침 일찍 참여해서 열정을 보이는 엔젤이 대단하다. 12월 연말을 맞아 이처럼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하는 단체가 또 있겠는가. 엔젤의 일원으로 기쁘고 자랑스럽다. 올 한 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엔젤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돌아보니 올해는 즐거운 일이 많아 내내 행복했다. 내년에는 더 즐거운 일들이 많은 해가 되었으면 한다.



안흥운 올해 ACL 진출 티켓을 따내지는 못했지만, 모든 것이 훌륭했다. 대구FC는 새로운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시민과 엔젤에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엔젤들도 마음을 다하여 구단을 돕고 선수들을 응원했다. 특히, 엔젤본부 소속 임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좋은 물론 원정 응원, 깃발 정비 등 수고가 많았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올해처럼 모두 행복했으면 한다.



김미숙 해마다 그랬지만 이번에도 엔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운동장에서 정성을 다했다. 경기장 사정이 여의치 않아, 괜한 눈치를 보기도 했지만(웃음) 모두들 어묵 국물까지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함께 봉사해주신 엔젤님, 맛있게 드시고 감사하다고 격려해주시는 엔젤님들 모두가 고맙다. 언제나 처음의 마음으로 엔젤 활동을 하겠다.

우린 대박으로 이사 간다 이젠 걸어서 경기장 간다



이원재 대박 개막이라는 뜻깊은 날 프로포즈하면서 시즌을 시작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엔시오인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 감사하며 산다. 이번에 이사 가게 됐는데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이 '집에서 대박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였다. 사실 엔젤에게 대박은 집이나 마찬가지로. 대박 근처에 집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 대구FC와 엔젤클럽의 발전에 자양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강수 개인적으로 엔젤 가입 후 좋은 일이 많았다. 일적으로는 매주 3건씩 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 그 일로 더 좋은 일도 많이 생겼다. 올해 영남일보 마라톤에서는 10km에 처음 도전해 딸아이 남자친구와 같이 뛰었다. 내가 2분 일찍 들어왔다. 내년에도 참석할 것이다.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서 내 인생에서 엔젤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느꼈다. 앞으로 많은 엔젤과 함께 축구경기는 물론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



성순화 미안하고 부끄럽다. 마지막 경기가 올해 첫 번째 경기였다. 막상 경기장과 엔젤 행사에 나와 보니 많은 것을 느꼈다. 평소 스포츠 분야에 어두웠는데, 팀을 떠나는 선수들을 받아들이는 엔젤의 마음을 보고 많이 배웠다. '보낼 선수는 보내야 되는구나. 그래야 새 사람이 오는구나' 하는 이런 낯선 경험을 통해, 내가 모르는 새로운 인생을 공부한다는 느낌도 든다. 내년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최태원 어떻게 하다 보니 올해 히로시마 엔젤원정대의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하면서 기뻐했다. 이번이 히로시마 원정 2번째였다. 10년 전에 대구FC 유소년 팀을 데리고 히로시마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감회가 새로웠다. 당시 히로시마 홈 경기장이 멋있게 보였는데, 지금은 초라하기만 했다. 이제는 대구에도 더 좋은 멋진 경기장이 생겼다는 것이 뿌듯했다. ACL에 계속 진출하기 위해서

는 대구도 유소년들을 잘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라운드인 대구와 서울과의 경기에 대구 출신 선수들이 양 팀에 걸쳐 무려 6명이나 됐다. 앞으로 대구가 장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구에서 배출된 훌륭한 선수들을 붙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엔젤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축구는 새로운 경험, 기회 되면 해외 축구여행



이윤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축구를 잘 몰랐다. 안상영 엔젤이 쓴 칼럼을 읽는데 처음에 17R을 '십칠알'이라고 읽다 핀잔을 들었다. 축구경기도 TV로만 봤다. 그런데 엔젤 덕분에 직관할 수 있었다. 솔직히 대구스타디움은 너무 커서 재미없었다. 하지만 올해 대박에서 축구의 재미를 알게 되어, 히로시마에 따라가게 됐고 그 후로 더 관심을 갖게 됐다. 히로시마 원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유럽에 한번 가볼까 계획하고 있다. 나 역시 2020년에 대박 근처로 이사 간다. 걸어서 경기장 가고 편하게 즐기고 싶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박기원 R리그 경기장에 자주 갔는데, 어떤 분들이 "저분은 직업이 없냐." 할 정도였다. 나보고 "축구 응원에 미쳤다."고 한다.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저 엔젤들과 함께 경기를 보고 2군 선수들을 응원하러 가는 시간이 즐거울 뿐이다. 특히, 모든 스케줄은 R리그와 K리그 일정에 맞춰서 짜다. 경기가 있으면 그날은 아예 약속을 잡지 않는다. K리그와 엔젤에 몰두하고 있다. 앞으로 대구FC의 미래가 될 R리그 선수들에게도 더 힘을 보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



조승우 올해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복장을 한 것은 단순히 튀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구FC가 좀 더 매스컴에 탔으면 하는 바람과 보는 사람도 즐거움이 배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했다. 다스베이더 마스크는 4번 했다. 자주 하기 어렵다. 이유는 숨을 못 쉰다. 눈부위에 습기가 차서 정작 경기는 못본다. 여름에 도전했다가 '이러다가 사람 죽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마지막 서울전

에서 하고 싶었지만 지인 결혼식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 마스크 쓰면 꼬마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준다. 대구FC 마스코트 리카와 빅토, 정정용 감독 등 많은 분들과 함께 사진 찍기도 했다. 내년에는 코스프레를 여러 명과 하면서 다 같이 맘에 쏙eer 보겠다.(웃음과 박수)

'대구라는 자부심' 심쿵 엔젤 릴레이 최신 다할 것



이승민 엔젤 가입 후 가장 심장이 두근거렸던 것은 '대구라는 자부심'이라는 문구를 볼 때다. 대구에서 나서 학교 다니고 대구에 시집갔고 친정도 대구지만, '대구라는 자부심'을 쓴 적이 없다. 그런데 막상 그 문구를 보니 심장이 뛰었다.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패션 모델을 하면서 엔젤에 대한 사랑을 다시 느꼈다. 참가 엔젤 모두가 전문 모델 앞에서 '엔젤의 이름을 걸고 민폐가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했다. 개별적으로 배운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만큼 대구FC와 엔젤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지금의 대구FC를 만들었을 것이다. 2019년에 표 구해달라는 사람이 많았다. 앞으로는 그들을 적극 엔젤로 가입시켜볼 계획이다.



송원배 대구스타디움에선 늘 몇 명이나 왔을까 노심초사했다. 6만 7천 석에서 1천 명도 안 올 때도 있었다. 엔젤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쳤다. 바닥까지 가본 것이다. 그렇게 흔들리면서 지켜왔다. 도종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엔젤클럽도 그랬다. 지나와 보니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때는 모두 흔들렸다. 어제도 흔들렸고 오늘도 흔들리고 내일도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삶이고 인생이다. 엔젤클럽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대구사랑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서 명문구단 대구FC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다.



강병규 그동안 '왜 엔젤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요즘처럼 축구가 시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보니, 엔젤의 존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지난번 강원 원정 때 아내 이름을 동의도 받지 않고 명단에 올렸는데 아무 말 없이 따라와주었다. 또 마지막 경기는 아들 생일이었는데 서울 갔다가 바로 내려왔다.

ACL 진출하면 느끼게 될 축제의 도가니를 놓칠 수 없었다. 축구가 주는 역동성과 감동은 그만큼 대단하다. 이를 입증하는 논문도 있는 것으로 안다. 많은 관중 속에 있으면 금액으로 환산할 때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유럽이 좋은 예다. 축구 하나가 사회와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2019년 대구FC로 입증됐다. 이제는 자립이 중요하다. 더 많은 시민들이 축구에 관심을 갖고 재미를 느끼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 효과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앞으로 엔젤클럽이 이런 분야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다. 엔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이제 대구는 축구도시! 엔젤, 엔시오 모두 감사



정영준 많은 사람들이 엔젤클럽, 엔젤클럽 하는데,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완전 '엔젤교'다. 사실 그 전까지 대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되는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수구, 경제적으로 꼴찌 등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대박으로 옮겨 온 지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다. 요즘 대구 관련 뉴스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각종 포털 K리그 뉴스에는 우선적으로 대박 사진이 배경으로 뜬다. 타 도시에서 요즘 '대구'라고 하면 파란 하늘의 젊은 이미지를 그린다. 꼭 찬 대박을 부러워하고 가고 싶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가 몇 년 간다면 대구가 축구를 통해 신선한 도시가 될 것이다. 깃발은 내년에도 계속해야 한다. 전 관중석에서 깃발 흔들며 선수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한다.



이호경 감개무량하다. 처음에 우리가 대구FC 존재도 모른 채, 가보지 않은 길을 막연하게 나섰던 기억이 었고제 같다. 요즘 언론이 앞다투어 대박의 성공과 대구축구의 드라마를 다루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엔젤 여러분이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ACL 가지 못 한 것은 안타깝지만, 강등 걱정하던 옛날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멀리 내다봐야 한다. 오늘 좋다고 늘 좋을 수 없다. 때론 위기가 닥칠 때도 있을 것이다. 모든 엔젤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다. 함께 해줄 것이라 믿는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한 해를 보냈던 모든 엔젤, 엔시오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4

엔시오 여성축구팀 다이나믹엔젤스 첫 전국대회 참가

원주치악배전국풋살대회 출전 대구FC와 엔젤클럽 홍보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 회원과 엔시오 20명으로 구성된 여성축구단 다이나믹엔젤스(단장 최태원 엔젤, 엔젤클럽 이사)가 지난 10월 원주에서 열린 제12회 원주치악배전국풋살대회에 참가해 대구FC와 엔젤클럽을 널리 알렸다. 2018년 결성된 이후 공식대회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엔젤은 “엔젤클럽 유니폼을 입고 참가한 첫 대회였지만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대구FC의 인기를 반영하듯 다른 참가팀들의 주목을 받았다”며 “팀에 선수 출신이 1명뿐이었지만 전원 선출로 구성된 수도권 팀들과 대등한 경기를 펼쳐 다른 참가팀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엔젤클럽의 시민정신을 홍보하고 여성축구 활성화를 위하여 결성된 다이나믹엔젤스는 매월 엔젤클럽 축구단인 엔젤FC(단장 정소영) 등과 친선경기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태원 엔젤은 “앞으로 대회 경험을 쌓고 체계적인 연습을 할 수 있다면 대구FC와 엔젤클럽 홍보뿐 아니라 대구를 대표하는 여성팀으로 도약하여 침체된 지역 여성축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대구FC와 엔젤클럽, 그리고 지역 여성축구 발전을 기대했다.4)

2020년부터 엔젤의 전당Angel Hall 본격 운영

DGB대구은행파크 내 엔젤·엔시오 사랑방 역할



2019. 12. 1. 마지막 휴경기가 끝난 뒤 엔젤들이 오픈 준비가 한창인 엔젤의 전당을 둘러보고 기념촬영을 했다.

엔젤·엔시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엔젤의 전당(Angel Hall, 가칭)’이 2020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엔젤의 전당은 대구FC 유소년센터 앞쪽 DGB대구은행파크 내에 위치해 있으며,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과 엔시오 홍보, 회원의 친목 도모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엔젤클럽에서는 휴경기 시 엔젤과 엔시오의 휴식 공간 및 경기 전 축구와 스포츠 정보를 교류하는 곳으로 활용키로 하고,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부 청소를 끝내는 등 오픈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이윤희 엔젤(한국알카리A수 수상대리점 대표) 등 많은 엔젤들이 청소 봉사에 나섰고, 조용호 엔젤(어펙시스템 대표)은 직접 제공한 키오스크와 대형 텔레비전(정영준 엔젤 기증)을 설치했다. 강준기 엔젤(주)포머스 대표)은 200만 원 상당의 회의용 책상과 의자를 기증했다. 현재 내부 디자인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엔젤클럽에서는 앞으로 공간을 두고 엔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공간을 꾸밀 계획이며 기증품도 받을 예정이다.

엔젤의 전당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도 배치될 예정이다. 엔젤의 정신을 살려 봉사하게 될 운영위원인 만큼 주 2~3차례 오픈할 계획이다. 특히 사전에 엔젤클럽 사무국으로 연락할 경우 소모임 및 간단한 약속 장소로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엔시오 모임 공간으로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엔젤의 전당에서 청소 봉사를 한 이윤희 엔젤은 “대박 내에 엔젤과 엔시오를 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 앞으로 엔젤과 엔시오가 함께 이 공간을 만들어갔으면 한다.”며 공간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4)

Angel & Life

※ <Angel & Life>는 엔젤들의 자료 제공으로 이뤄집니다. 앞으로 많은 엔젤님들의 자료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노기원 다이아몬드 엔젤(주)태왕 E&C 대표)이 지난 10월 30일 대 한주택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제 10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노기원 회장이 연임되면서 대구 지역 대한 주택건설협회는 일관되고 지속적 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기원 회장은 “최근 들어 지역 주택건설 시장에서 회원사 입지가 좁아지는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인 것은 사실”이라며 “협회가 앞 장서서 상호 협력하고 단합하는 것은 물론, 역량 강화로 회원사 권익 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자우 엔젤 자문위원(예술린 대표)이 2019년 대구FC컵 대구 사랑축구리그 50대 결승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11월 3일 열린 50대 부결승전에서 천 자우 엔젤 자문위원과 박성목, 양종호 엔젤이 소속된 범물FC 는 상대 팀 한길FC를 3 대 1로 꺾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특히 천자우 엔젤 자문위원은 결승골 까지 기록하며 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배인규 엔젤(주)한남 라이팅, 사진 왼쪽)이 지난 12월 6일 달성 군청에 소외계층 지원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배인규 엔젤 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작은 정성이지만 힘들

게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한남 라이팅은 지난해 1월에도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지 속적인 나눔 실천을 하고 있다.



정영만 엔젤(제이아그로(주) 대표이사)이 지난 12월 13일 낙동강승전기념관에서 한국자 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 제 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박종 환 총재 주관으로 권영진 대구

시장, 김혜정 대구시의회 부의장,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 한국자유 총연맹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영만 엔젤은 현 재 제이아그로(주) 대표이사, 대구대학교 생명환경학부 겸임교수, 스 톨러제이 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며, 대구경찰청 외사 협력위원회 위원장과 대구·경북 의령군 향우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범현 엔젤(주)한라이앤씨 대표)이 지난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한국에너지대 상’ 시상식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문 최고 영예인 철탄산 업훈장을 수상했다. (주)한라 이앤씨는 1994년 창업 이후

2006년 현재 기업명으로 바꾸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하고 있 다. 김 엔젤은 “신재생에너지 업계 1세대로서 훈장을 받아 감회가 남 다르다. 그동안 태양광 분야에 매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 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태일 다이아몬드 엔젤(한국OSG(주) 회장)의 한 국OSG(주)가 지난 11월 13일 ‘2019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OSG(주)는 이번 선 정으로 25회 연속 품질경 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

되는 영예를 안았다. 품질의 세계적 기업을 지향하는 정태일 다이아 몬드 엔젤은 평소 철저한 검증을 통해 품질을 창조한다는 찬사를 받 았다. 품질경쟁력 향상과 함께, 지역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며 기업인 으로 솔선수범하고 있다.



조승우 엔젤(이지컴 퍼니(주), 사진 왼쪽) 이 지난 12월 16일 소 외계층·저소득 여성 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밀알복지재단에 150만 원 상당의 여성 의류를 기부했다. 조 승우 엔젤은 “소외계

층 및 저소득 여성분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하고자 유 용하게 입을 수 있는 겨울의류 등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권석원 대구FC엔젤 클럽 부회장(동진건설(주) 회장, 사진 오 른쪽)이 지난 12월 19 일 달성군을 방문해 대구 사랑의 열매와 달성복지재단이 함께 실시하는 ‘I ANGEL CAMPAIGN’에 참여,

소외계층 지원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권 부회장은 “연말을 맞아 나눔문화 확산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성금 기부, 자원봉사 등 이웃사랑을 실천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차영진 엔젤(제일컴 대표, 사진 가운데)이 지난 11월 19일 대구 동구청을 방문, 컴퓨터 구입이 어려워 정 보화에 소외된 저소득 아 동을 위해 컴퓨터 12대(1 천만 원 상당)를 기탁했 다. 기탁한 컴퓨터는 정보

화 기기가 필요한 동구 저소득 아동 12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차영 진 엔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가의 컴퓨터 마련이 어려운 아동들 이 이번 기회로 정보화의 폭을 넓혀 장래의 꿈을 키워가는 데 유용하 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대영에코건설(주) 대 표, 사진 오른쪽)의 경산 ‘샤갈의 마을’이 지난 11 월 26일 ‘2020 미래건축 문화대상’ 타운하우스 부 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 상했다. 경산 ‘샤갈의 마

을’은 이번 수상으로 지역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타운하우스 전문 브랜드로 또 한 번 인정받게 됐다. 이호경 회장은 “친환경적이고 스마 트한 건축 공간을 제공하는 데 기여한 기업에게 주는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임익기 엔젤(주)브라이트 대표) 이 지난 12월 19일 포항필로스 호텔에서 열린 경북SW융합진흥 센터 성과보고회에서 지역 ICT/ SW산업 발전 및 생태계 조성 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9 ICT/SW 경상북도 선도기업’으로 선정(Solution Provider)됐으며, 이와 함께 (재)경북IT융합산업기 술원장상도 수상했다. 앞서 지난

12월 11일에는 ‘2019 대구·경북 사회적경제대회’에서 스타사회적기 업상을 수상했다.



박춘영 엔젤(주)동아 대표, 인터볼고CC 회장)이 지난 12 월 11일 한국무역협회가 주 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 원하는 ‘제56회 무역의 날 기 념 행사’에서 1천만 불 수출 탑을 수상했다. (주)동아는 2018년 5월 국내 최초 ‘구조 용 T/S고장력 볼트 세트’로 1 년간 1,341만 달러를 수출하 는 등 세계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아듀! 엔젤 어묵봉사!

엔젤클럽 마지막 홈경기 어묵봉사! 잊지 못할 추억으로

함민복의 유명한 수필 《눈물은 왜 짠가》를 읽으면 누구든 가슴 찡한 울림이 있습니다. 가난한 어머니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설렁탕 투가리에 넘쳐 흐릅니다. 가슴 먹먹한 감동은 엔젤도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2019년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대박과 엔젤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엔젤의 마지막 홈경기 연례행사인 '어묵봉사'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마지막 홈경기에 어묵봉사가 등장했지요. 당시만 하더라도 대구FC 홈경기장이 대구스타디움이어서 어묵봉사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공간도 넓었고, 주변에 먹거리도 없었지요. 넓은 엔젤룸에 간이용 가스버너를 설치하고 대용량 국통을 올린 뒤 남녀 엔젤들이 직접 어묵을 접어 꼬치에 끼우면서 정을 쌓아갔습니다. 어묵을 끼우면서 웃고, 정을 나누는 풍경이 마치 시골 잔치집 같았습니다. 엔젤뿐만 아니라 구단주 권영진 대구시장과 본부석의 내빈들도 옮겨와 '후후' 불어가며 어묵을 먹는 장면은 한 시즌을 마감하는 엔젤의 연례행사였습니다. 하지만, DGB대구은행파크로 홈을 옮기면서

'어묵봉사'가 설자리를 잃었습니다. 경기장이 작고 공간이 협소해 발화기구는 일체 반입이 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우리 '어묵천사'들은 씩씩하게 어묵봉사를 준비했습니다. 1년 내내 엔젤들을 거뒀던 김미숙 엔젤이 주동자가 되고, 늦바람이 무서운 문현훈, 백경애 엔젤이 합류했지요. 문·백 부부엔젤은 2천 개나 되는 어묵을 후원했고, 김미숙 엔젤은 족발과 김밥을 사비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 당일 가스버너가 반입이 되지 않자, 엔젤 사무실에서 어묵을 끼우고, 경기장 밖 엔젤부스에서 어묵을 삶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엔젤룸에서는 문경화, 이윤희, 강정영, 김미숙 엔젤 등이 김밥을 싸고, 한편에서는 박규화, 성순화, 박춘선 엔젤 등이 어묵을 끼웠습니다. 조송우, 손현구 엔젤이 어묵 냄비를 들고 엔젤룸과 부스를 왔다 갔다 하느라, ACL 진출 티켓이 걸린 중요한 마지막 경기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부스에서 문·백 부부엔젤은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2천 개나 되는 어묵을 삶아냈습니다.

발화기구 반입금지, 주변 상권 활성화 위해 2019년으로 끝! 이젠 맛볼 수 없는 어묵 신기한 것은 그렇게 야단법석이어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웃는 얼굴로 어묵천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전반전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엔젤부스는 완전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엔젤은 물론 일반 관중, 그리고 상대팀 서포터즈들까지 몰려, 어묵 한 꼬치씩 쥐고 먹는 품이 가히 풍성한 잔치집 같았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눈치는 눈치대로 받은 어묵천사들! 하지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엔젤과 시민들에게 따뜻한 어묵과 국물을 맛보이려는 마음은 '눈물은 왜 짠가'처럼 '어묵국물은 왜 따뜻한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지난 12월 1일 먹었던 어묵과 국물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맛이 될 것입니다. 아쉽게도 2020년부터는 장소 관계 또,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엔젤의 어묵봉사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불가능을 뚫고 따뜻한 국물 같은 마음을 전한 2019 어묵천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4]

한국 농구 전성기 주역 최인선 감독

엔젤클럽 대단한 스포츠 후원 운동
농구에도 시민구단, 엔젤클럽 있었으면...

국내 농구 전성기를 이끌었던 최인선 전 기아 감독이 지난 11월 12일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 사무국을 방문했습니다. 최 감독은 엔젤클럽의 시민정신에 놀라워하며, 농구 분야에도 시민구단과 엔젤 같은 후원문화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김종두 사무총장과 의 인연으로 사무국을 방문한 최인선(1950년생) 감독은 농구 선수를 거쳐 기아·기아 엔터프라이즈와 청주 SK 나이츠 등 실업과 프로팀을 이끌면서 국내 최고의 농구 전성기를 이끈 명장입니다. 최 감독은 1986년 창단된 기아에서 방열 감독을 보좌하다 기아 엔터프라이즈 감독이 되었고, 이름만으로도 농구팬들을 행복하게 했던 '허동택 트리오' '허동만 트리오'를 주축으로 농구를 국내 최고의 겨울 스포츠로 만들었습니다. KBL(한국 프로농구 리그) 창단 이후에도 기아 엔터프라이즈 감독으로 첫 시즌인 1997시즌 챔피언을 차지하는 등 지도력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청주 SK 나이츠 감독으로 SK 나이츠의 리그 시절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사실상 은퇴, 이후 해설가로 활동했습니다. 해설가로서는 전설적인 측면에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준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지요. 아울러 꾸준한 건강 관리로 현재까지 대장암을 이겨내, TV조선 등 각종 건강 프로그램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게 좋아했던 농구를 떠나야만 했던 최인선 감독은 큰 일을 겪은 후 무엇이 행복인지 느끼며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최 감독의 행복 중 하나입니다. 일흔 가까운 나이에도 캐주얼한 차림에 환한 미소로 김종두 총장과 재회한 최 감독은 이렇게 건강하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니 너무 좋라며 기뻐했습니다. 실제로 김종두 총장과 의 만남도 40년 만이니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겠지요. 최 감독은 엔젤클럽 사무국을 방문, 직접 엔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거진을 꼼꼼히 펼쳐보더니 “김종두 총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정말 훌륭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프로구단은 바로 시민과 팬들의

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농구에도 시민구단이나 엔젤클럽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인으로서 엔젤클럽이 더 확대되어 대구FC가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멋진 스포츠 구단이 되기를 응원했습니다.^[4]



최인선 전 기아 감독이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을 방문해 김종두 총장과 반가워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대구FC엔젤클럽 유니폼 찾기!

성점화 다이아몬드 엔젤, 제주 택시기사에게 유니폼 선물
엔젤, 제주에도 우정과 진정한 축구사랑 전파



제주도에 가면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 유니폼을 찾아보세요. 조강하는 사람 중에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분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택시를 타거든 기사분을 잘 살펴보세요. 기사복 안에 엔젤클럽이라고 쓰인 유니폼을 입고 있는 기사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난 6월 29일이었습니다. 제주에서 대구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K리그1 18라운드가 열리는 토요일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비가 내리는 토요일, 많은 엔젤들이 빗속을 뚫고 제주로 향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빗방울이 더 굵어졌습니다. 공항에서 제주월드컵경기장까지 가는 길에 안개가 자욱해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삼삼오오 출발했던 엔젤들은 제주월드컵경기장에 모였습니다. 엄태건 엔젤본부 상임부회장과 박기원 엔젤은 운전 중 5·16도로에서 제주의 짙은 안개를 만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안개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그 너머에서 뛰다고 생각하며 운전대를 꼬옥 잡고 길을 서둘렀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선 조병래, 박성호 엔젤과 허만수 엔시오도 안개를 뚫고 제주월드컵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일정으로 급하게 출발한 성점화, 문경화 다이아몬드 엔젤, 김규정, 김미숙 엔젤은 렌트할 시간이 없어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잡아 탄 택시 기사분이 고등학교까지 축구선수를 하다가 부상으로 그만둔 축구팬이었습니다. 기사분은 일흔이 넘는 나이에도 축구 이야기가 나오자 신이 났습니다. 특히, 손자가 조현우 선수의 팬이라고 이야기하며 택시 속에서 축구 이야기를 꽃피웠습니다. 안개 따위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감동한 성점화 다이아몬드 엔젤이 자신의 하나뿐인 엔젤 유니폼을 선물했습니다. 그 유니폼에는 조광래 대표이사의 친필사인인 쓰여 있었지요. 기사분은 그후 김미숙 엔젤과 자주 통화했는데, 운동할 때 선물받은 유니폼을 입고 다니며 대구FC와 엔젤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주 어디에선가 하늘색 유니폼이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운이 좋으면 제주에서 엔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미숙 엔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사분이 손자를 위해 부탁한 조현우 선수의 사인을 직접 받아 제주행 비행기에 실어 보냈다고 합니다. 제주도 기사분은 그후로도 대구FC 소식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상위스플릿 진출을 축하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FC서울과 비기며 ACL 진출 티켓을 놓친 것을 애석해 했습니다. 전화를 통해 “제주유나이티드FC가 강등해 엔젤클럽 분들이 제주로 원정 오는 일이 없어 아쉽다”며 “하지만 그때의 추억이 남다른 만큼 개인적으로 제주에 와서 연락하면 너무 반가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에는 엔젤클럽이 더 뒷바라지 잘 해서 대구FC가 꼭 ACL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대구FC와 엔젤의 건승을 기원했습니다. 엔젤클럽은 어느 곳에 가든 감동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축구, 단순한 클럽을 넘어 우정과 사랑을 전파합니다.

Angel Club! More than a Club! 🍌



원초적인 언어 묘사에 뛰어난 작가 고종석은 ‘어루만짐’을 치유요, 보살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발목을 다쳤을 때 우리는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고, 마음이 다쳤을 때 따뜻한 언어로 어루만집니다. 2019년 대구·경북을 누비며 바쁜 나날을 보낸 ‘엔젤카’도 먼지가 쌓이고, 생채기가 나면서 어루만짐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안타까워 한 엔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8월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에 가입한 손현구 스파이앤룩카케어 대구지역 본부장.



자동차, 건물 등 케어 부문 전문가인 손현구 엔젤은 DGB대구은행파크에서 경기를 관람하면서 먼지를 뒤집어쓴 엔젤카가 늘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홍경기 날 하프타임에 짬을 내어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 늘 주차된 엔젤카가 눈에 들어와요. 반가워서 다가가보면 먼지를 뒤집어쓴 채 광택은 죽어있었어요,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마도 직업병이겠지요? 꼭 한번 케어해주겠다고 마음먹었지요.(웃음)” 손현구 엔젤은 생각에 그치지 않고, 직접 사무총장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먼지를 씻어내고 기본적인 광택을 냈습니다. 실내도 구석구석 디테일하게 케어하니, 엔젤카가 금방 때깔이 달라졌습니다. “엔젤카가 워낙 바쁘다 보니 시간이 많지 않아,

엔젤카를 어루만지다
엔젤카 손수 케어한 손현구 엔젤 (스파이앤룩카케어 대구지역 본부장)

그러니까 어루만짐은 일종의 치유이고 보살핌이다.
— 고종석 《어루만지다》 중에서



기본적인 케어만 했습니다. 날잡아 제대로 케어 한번 할 생각입니다. 물론 엔젤카가 시간을 충분히 내주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엔젤카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먼지를 안팎으로 씻어내고, 광택까지 내니 엔젤들을 찾아가는 발걸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김종두 사무총장은 “바쁘기로 치면 손현구 엔젤이 더 바쁠 텐데 어려운 시간을 내어 이렇게 케어해주니 너무 감사합니다”며 “기본만 했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엔젤카가 한층 멋쟁이가 됐습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손현구 엔젤은 “세수를 하고 로션을 안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와 집도 잘 케어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며 케어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손현구 엔젤은 프리미엄 세차, 자동차 광택, 유리막 코팅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차 도장면을 보호하고 색감을 최대한 올리는 작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분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 케어 부분 창업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차나 건물의 케어가 아니라 우리 인생도 케어가 중요합니다”라는 손현구 엔젤은 “엔젤도 케어가 잘 되어 오래오래 좋은 모임으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현구 엔젤은 직업병이 아니라 엔젤에 대한 상사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대박 관중 소리의 비밀?

엔시오 이인혁 씨의 2019년 엔젤부스 체험기
글. 이인혁



저는 K리그팬으로서 대구FC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대구는 연고도 아니고, 유명한 선수도 크게 없는 그런 팀, 세 자리 수 관중으로 뉴스에 오르는 팀, 항상 성적이 하위권인 팀, 2018러시아월드컵 이후에는 조현우 팀, 저에게 대구FC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대학 입학과 함께 대구에 살면서도 대구FC는 그다지 외닿지 않았습니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대구FC의 모든 경기를 챙겨보고 응원하며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 '엔시오'가 되었으니,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2018년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엔젤클럽 관계자와 대구FC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FC서울과의 경기였는데 세징야의 멋진 프리킥을 보고 대구FC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FA컵 결승 2차전을 보게 되면서 완전 대구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대구FC와 인연을 맺어준 엔젤클럽 엔시오가 되어 지난 2019년 제 생애 경험하지 못할 멋진 추억들을 쌓았습니다. 특히, 대구FC가 DGB대구은행파크로 홈을 옮기면서 저는 마치 대구FC의 새 역사와 함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박의

믹스존에 엔시오로서 제 사진이 들어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홈경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엔젤분들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 전국적으로 번져갔던 엔젤 깃발 응원을 보고, 엔젤부스에서 엔젤과 엔시오 한 분 한 분에게 티켓을 발급하면서 또 다른 축구문화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K리그는 흥행에 성공하며 온갖 이야기들을 만들었는데, 저에게도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당초 10번 게이트를 사용하던 엔젤클럽이 관중석과 좀 더 가까운 9번 게이트로 옮기게 됐습니다. 엔젤부스에서 일하면서도 경기장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나름의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관중들의 함성소리를 듣고 경기 상황을 추측해 보는 일입니다. 보통 저는 대박에 도착해 짐을 옮기는 것을 돕고, 사무실 내 사무총장님의 일을 보조하며 깃발을 세팅합니다. 경기 시작 20분 전쯤 부스에 내려가 티켓 배부를 돕게 되지요. 늦게 오시는 엔젤 및 엔시오 분들이 계시다 보니 자연스레 전반 30분 정도까지 부스에 있게 되는데, 경기 시작 뒤로는 경기장 안에서 끊임없이 함성 소리가 들려오곤 합니다. 9번 게이트가 가깝다 보니 원정팀 서포터즈들의 응원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제 상상이 실제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저 스스로도 놀라곤 합니다.

경기장 함성 소리로 경기장 내 경기실황 추측 가능

대구팬들의 잠깐의 환호성 후 아쉬움에 이어 장내 아나운서의 '쿵쿵 골'이 들리면 주로 우리 팀 코너킥 찬스가 왔다고 보면 됩니다. 원정팬의 야유와 화가 섞인 목소리 후 '쿵쿵 골'이 나오면 대구가 프리킥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와-'하는 함성소리와 함께 분위기가 고조된 후, 원정석이 조용해지고



전체적으로 관중들의 환호가 터지면, 얼마 되지 않아 '골송'이 나오곤 합니다. 반대로 우리 관중이 모두 조용해지고 뒤편 원정팬의 환호가 나오면 우리가 골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상상하는 것도 '직관'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재밌었고 새로운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젤부스가 원정석과도 맞닿아 있다 보니 원정팬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어느 팀 구분할 것 없이 먼 길 직접 와서 응원하는 모습은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K리그팬으로서, 그리고 이제 대구FC의 팬, 아니 엔시오로서 지난 2019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가끔 대박의 함성 소리가 이명처럼 들리기도 해 혼자 웃기도 한답니다. 엔젤부스에서 한정된 엔젤존 좌석으로 인해 티켓을 못 드린 분, 예약을 못하고 오셔서 안타까워 하셨던 분 등 엔젤과 엔시오 분들의 얼굴이 대박의 함성 소리와 함께 떠오릅니다. 홈 개막전 때 일반 관중을 위해 엔젤 좌석을 양보하신 분, 수고한다며 음료수와 간식을 주신 엔젤분, 아울러 간간한 티켓 배부 원칙을 두 말 없이 따라 주셨던 모든 엔젤·엔시오님께 감사드립니다. 4

공 차는 아재들

천자우, 안상영 엔젤, 공 앞에선 소년으로



늦은 시간 장년의 아재들이 음식점 주차장을 그라운드 삼아 공놀이를 합니다. '공으로 싸우고 공으로 노는 모든 경기들 중에서 축구의 공은 가장 인간의 몸에 가깝다'는 김훈 작가의 말처럼 이들은 공 앞에서 자유롭고 인간적입니다. 오로지 '공'과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한 분은 기술사 출신의 건설회사 대표(안상영 엔젤)이고, 한 분은 경영학 박사

학위를 가진 제조업체 대표(천자우 엔젤 자원위원)지요. 이 순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축구를 사랑하는 엔젤 아재입니다. 지위나 나이 모두 잊고 '공 차는 아이'로 돌아간 두 엔젤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한 분이 트렁크에서 아예 축구공을 꺼내왔고, 한 분은 마르세이유턴*을 해보입니다. 공 앞에 가볍고 날렵니다. 소년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도 엔젤의 축구사랑은 계속됩니다. 4

*마르세이유턴은 360도 회전하며 드리블링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처음 선보인 선수는 호주의 Tony Marjanovic이라고 하는데요, '마라도나 스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프랑스 '지단'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지단은 이 기술을 프랑스 마르세이유 클럽에서 자주 선보이곤 했는데, 소속 팀 이름을 따서 마르세이유턴이라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엔젤 깃발을 다리며

엔젤이 시작한 깃발 응원, 다음 위해 정성으로 깃발 정리



요즘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박)은 물론 전국 타 팀 경기장에도 작은 깃발 응원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엔젤의 바람대로 곳곳에 '깃발 응원' 열풍이 불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대박, 그리고 원정에서 수고한 엔젤 깃발들, 그동안 찢든 때가 묻고, 일부 깃발에는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훼손된 깃발이 가슴 아팠던 엔젤본부 엔젤들이 이 깃발들을 시즌 중에 품에 안았습니다.

모 엔젤이 집으로 가져가 곰팡이가 제거, 세탁, 다림질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엔젤 깃발의 소중함과 엔젤정신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엔젤 깃발을 소중히 다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일부 엔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이 엔젤 깃발을 바닥에 놓아 물건을 올리고, 의자를 닦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솔직히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시즌이 끝나고 대박에 엔젤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엔젤 깃발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화 속 구두집의 천사들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엔젤클럽 사무실에 도란도란 모여서 부러진 깃발을 정리하고, 때 묻은 깃발을 분류했습니다. 이 깃발들은 엔젤의 정성으로 다시 세탁, 다림질을 거쳐 2020년 대박에 새롭게 휘날릴 것입니다. 엔젤의 깃발은 엔젤의 정신입니다. 4



당신은 나의 기쁨

DAEGU FC REPORT

대구FC 공격수 데얀 영입

대구FC, 베테랑 공격수 데얀 영입

인천, 서울, 수원 거치며 K리그 통산 357경기 189득점 45도움



대구FC가 베테랑 공격수 데얀(Dejan Damjanovic)을 영입했다. 대구는 데얀과 세부 절차를 밟은 뒤 1월 2일 대구FC 공식 지정병원인 대구 으뜸병원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했다.

데얀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공격수다. 2007년 K리그에 입성해 11년간 K리그 무대를 누비면서 통산 357경기 189득점 45도움을 기록했다. 3년 연속 득점왕과 4년 연속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등 K리그에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데얀이 기록한 189득점은 이동국의 224득점에 이어 K리그 역대 두 번째 많은 기록이며,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이다. 가장 큰 강점은 골 결정력이다. 탁월한 슈팅 능력과 함께 정확한 위치 선정 능력, 문전 앞에서의 침착한 판단력 등을 바탕으로 많은 득점을 기록했다. 그 외 볼 킥링, 연계 플레이, 어시스트 능력 등 공격수가 갖춰야 할 강점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데얀이 합류할 경우 2019시즌 대구FC에 부족했던 득점력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 데얀은 “대구FC는 K리그 최고의 팀으로 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 최고의 팬들이 있는 팀이다”며 “나를 신뢰하고 선택해준 것에 대해 증명하고 싶고, 다가오는 2020시즌이 대구FC에게 최고의 시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4

데얀(Dejan Damjanovic) FW

생년월일 1981. 7. 27.
신체 187cm / 81kg
포지션 공격수(FW)
주요 경력
2007 인천유나이티드FC
2008~2017 FC서울
2010~2016 몬테네그로 국가대표팀
2018~2019 수원삼성블루윙즈
수상 경력
2010, 2012, 2016 K리그 우승(FC서울)
2010~2013 등 K리그 베스트 11
2011~2013 K리그 득점왕
2013 ACL 준우승(FC서울)
2019 FA컵 우승(수원삼성블루윙즈)
기록
K리그 통산 357경기 189득점 45도움
ACL 68경기 37득점
A매치 30경기 8득점

대구FC 수비수 김재우 영입

U-23 대표팀 수비수 김재우 영입

큰 키, 빠른 발, 뛰어난 위치선정 등 강점
SV호른, 부천FC, U-23 대표팀 등에서 활약



대구FC가 미래가 기대되는 U-23 대표팀 수비수 김재우를 영입했다. 김재우는 뛰어난 신체조건과 빠른 발을 갖춘 수비수다. 큰 키를 활용한 제공권 장악에 능하며, 큰 키에도 불구하고 100m 11초대의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 뛰어난 위치선정, 안정적인 수비력, 기동력 등도 김재우의 강점이다.

2016년 영등포공고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SV호른에 입단하면서 프로무대에 데뷔했고, 지난 2018년 부천FC로 이적해 2년간 26경기 1득점 3도움을 기록했다. 소속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U-23 대표팀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유망주다.

대구 유니폼을 입게 된 김재우는 “꿈에 그리던 K리그1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한다. 대구FC는 최근 가장 핫하고 트렌디한 축구를 하는 팀이다. 잘 적응해서 대구 팬들에게 하루 빨리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재우는 지난 12월 28일 김대원, 정승원, 정태욱과 함께 U-23 대표팀에 선발되어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2020 AFC U-23 챔피언십을 준비하고 있다. 4

김재우 DF

생년월일 1998. 2. 6.
신체 187cm / 84kg
포지션 수비수(DF)
주요 경력
2016~2017 SV호른(오스트리아)
2018~2019 부천FC 26경기 1득점 3도움
2019 U-23 대표팀

U-20 대표팀 주장 황태현 영입

많은 활동량, 강한 수비력, 정확한 크로스 등 강점
U-20 대표팀 주장으로 지난해 월드컵 준우승 일군 주역



자료제공. 대구FC

대구FC가 1월 6일 안산그리너스FC로부터 U-20 대표팀 주장 황태현을 영입했다. 대신 공격수 김경준을 내어주는 조건의 맞트레이드다.

황태현은 한국축구를 이끌어갈 차세대 수비수로 각광받고 있다.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강한 수비력과 활발한 공격 가담, 정확한 크로스 등 측면 수비가 가져야 할 장점을 두루 갖췄다. 지난 시즌 안산그리너스FC에서 프로에 데뷔해 K리그에서 20경기 3도움을 기록했으며, U-17 대표팀을 시작으로 꾸준히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면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의 주장으로 FIFA U-20 월드컵에 나서 준우승 신화를 일구는데 크게 일조했다.

대구 유니폼을 입게 된 황태현은 “대구팬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다. 대구에서 제 이름을 알리고 싶고, 대구라는 자부심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황태현은 대구FC 공식 지정병원인 대구 으뜸병원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1월 7일 중국 쿤밍 전지훈련에 합류해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4

황태현 DF

생년월일 1999. 1. 29.
신체 180cm / 74kg
포지션 수비수(DF)
주요 경력
2014~2016 대한민국 U-17 대표팀
2017~ 대한민국 U-20 대표팀
2018~2019 안산그리너스FC 20경기 3도움
2019 FIFA U-20 월드컵 준우승

유스 출신 이진용 등 신인 5명 영입

우선지명 U-18팀 현풍고 출신 이진용
자유계약 안창민, 신중, 이근섭, 이찬웅



자료제공. 대구FC

이진용 DF

생년월일 2001. 5. 1.
신체 180cm / 73kg
경력 울원중, 현풍고

안창민 FW

생년월일 2001. 6. 28.
신체 189cm / 81kg
경력 부평동중, 부평고

신중 FW

생년월일 2001. 11. 13.
신체 175cm / 71kg
경력 청구고, John Paul College

이근섭 FW

생년월일 2000. 3. 27.
신체 193cm / 80kg
경력 고양FC U18

이찬웅 DF

생년월일 2000. 8. 9.
신체 188cm / 83kg
경력 매탄고, 신태웅축구학교

대구FC가 2020시즌을 함께할 총 5인의 신인선수들을 새롭게 맞이했다. 우선지명으로 구단 산하 유스팀(신흥초, 울원중, 현풍고)을 거친 이진용(현풍고 프로직행, 수비수)을, 자유계약 선발로 안창민(부평고, 공격수), 신중(청구고, 공격수), 이근섭(고양FC U18, 공격수), 이찬웅(매탄고)을 영입했다.

가장 먼저 입단을 확정 지은 선수는 대구FC 산하 신흥초-울원중-현풍고 출신의 수비수 이진용이다. 대구 유스팀을 모두 거쳐 프로무대를 밟은 선수는 이진용이 최초다. 이진용은 2019년 우선지명으로 대구의 선택을 받고 곧바로 프로무대에 첫 선을 보인다. U-15, U-17 대표 등 각급 연령별 대표 팀에서 활약했으며, 드리블 능력과 킥력, 스피드가 좋은 편이고 투지 있는 플레이스타일이 장점이다.

부평고 출신 안창민은 189cm의 키로 뛰어난 헤딩과 제공권 장악 능력을 갖춘 공격수다. 활동 반경이 넓고 득점력과 패스 능력이 뛰어난 기대주다. 청구고 출신 공격수 신중은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고, 뛰어난 스피드와 민첩성, 킥력을 가지고 있다. 이근섭은 193cm / 80kg의 다부진 체격에 100m를 11초대에 주파하는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로, 드리블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가 장점이다. 매탄고 출신 이찬웅은 190cm 키에서 뿔어져 나오는 제공권 장악력과 안정적인 빌드업 능력을 가지고 있어 수비수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구 유니폼을 입게 된 이진용은 “꿈에 그리던 프로무대에 입성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선배들과의 경쟁 속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구는 지난 1월 2일 2020년 새해 첫 훈련에 돌입하고 1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중국 쿤밍과 상해(1군), 경남 남해(2군) 등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며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4



Unsung Hero 김우석(DF) 선수

2020년엔 대구FC의 대들보로



왼쪽부터 박찬원 엔젤, 김우석 선수, 조병래 엔젤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의 대구FC 선수들에 대한 사랑은 깊고 넓다. 매 경기 직관하고 놓친 경기는 인터넷을 찾아 영상을 다시 본다.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하면 같이 기뻐하고 실수하면 가슴 아파한다. 대구FC의 언성히어로(숨은 영웅) 김우석도 엔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선수다. 2019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성장한 대구FC 수비수 김우석 선수를 박찬원 엔젤(문경시축구협회 이사), 조병래 엔젤(디자인해밀 대표)이 만났다.

인터뷰. 김우석 선수, 박찬원 엔젤, 조병래 엔젤 | 정리, 사진, 박다운

조병래 김우석 선수 반갑습니다. 2019시즌 무사히 마무리했어요. 2019년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팍) 분위기, 유럽만큼 뜨거웠습니다. 실제로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김우석 전 경기장과는 180도 다르죠. 함성 소리가 가까우니 더 흥분되는 게 있어요. 저도 모르는 힘이 나오더라고요. 몸이 가만히 있질 못하고, 소름도 막 돋고요.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느꼈을 겁니다. 대팍 덕분에 특히 초반에 좋은 경기력이 나온 것 같아요.

조병래 정말 선수들 몸놀림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느꼈어요. 관중들과 호흡하는 게 바로 이런 건가 싶더군요.

박찬원 대팍의 기세였나요. 지난 5월 서울전에서 넣은 골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김우석 앞으로 자르며 나가기로 약속한 플레이였어요. 헤딩으로 길게 나간 볼이 골대 앞으로 떨어지는 걸 봤어요. 달려가면서 밀어 넣었는데 운 좋게 잘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관중들이 많아서 더 기억에 남아요.

박찬원 정말 짜릿한 골이었습시다. 한편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지난 6월 강원전에서 전반 1분 만에 자책골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때 수비수로서 심정은 어땠어요?

김우석 허무하게 이룬 실점을 해서 멘탈이 많이 흔들렸는데, 팀원들이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해줘서 마음을 다잡고 경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조병래 그날 우박까지 왔잖아요. 날씨도 열악한 상황에서 류재문 선수가 극적인 추가 동점골을 넣어 난리가 났었죠.

김우석 실점을 만회해줘서 고마웠어요. 골 넣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업어줬던 기억이 나요.

조병래 아쉬움도, 기쁨도 많았던 해였어요. 2019년을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를 꼽아 본다면요?

김우석 ACL 첫 홈경기였던 광주우전이에요. 홈에서 3 대 1로 이겨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본인이 골 넣은 경기를 말할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이네요.

김우석 골 넣은 것도 좋지만, 팀이 이긴 경기가 더 기억에 남아요. ACL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얘기가 많았고, 몸값 차이도 어마어마하다 들었기에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많은 홈 관중이 찾아와주신 상황에서 대승하니 소름 돋을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박찬원 그렇다면 2019년 한 해 가장 아쉬웠던 경기는 무엇이었나요?

김우석 FC서울과 했던 모든 경기가 아쉬웠어요. 결과를 못 냈다는 게 속상했습니다.

조병래 서울 원정 응원 때 우리가 정태욱 선수 코빼 부러지는 투혼도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홈경기도 한 맺히는 경기였어요. 옆에서 보는 선수들은 더 안타깝지 않았을까요.



DF 3 김우석

생년월일 1996. 8. 4.
신체 187cm / 74kg
학력 신갈고 / 장안중
K리그 통산기록 56경기 2득점 0도움



Photo by 박현수

김우석 선수는 황순민(MF, 오른쪽) 선수를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선수로 꼽았다.

박찬원 다사다난했던 2019시즌, 풀타임으로 뛰다시피 했는데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았나요?

김우석 확실히 경기 수가 많다 보니... 저도 이렇게 경기를 많이 뛰어본 건 처음이에요. 체력관리 안 하면 한 시즌 한 시즌이 힘들겠다고 느낀 한 해였습니다.

조병래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김우석 부모님이 보약을 항상 달여주세요. 형들이 추천해준 보조제 같은 것들도 먹고요. 그런데도 몸이 제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경기 뒀을 때 힘들다 보니 몸이 잘 안 나가지는 경우도 있죠. 다음 시즌엔 더 열심히 관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조병래 김우석 선수 다치지 말아요. 안 다쳐야 자주 볼 수 있으니까요.(하하)

박찬원 부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난해 홍정운 선수 부상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금방 잘 자리 잡은 건 김우석 선수의 역할이 컸을 것 같은데요.

김우석 정운 형 있을 땐 양쪽을 잘 잡아주면서 컨트롤했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가 안정적이었어요. 제 역할이라기 보단 뒤에 있던 선수들이 준비를 잘 하고 있었고, 충분한 기량을 보여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훈련하면서 잘 맞춰갔던 것 같아요.

조병래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김우석 순민 형과 왼쪽 라인에서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나가지 않아도 순민 형이 타이밍 맞춰 나가고, 또 형이 나가면 그 뒷공간을 제가 메꾸기도 하면서요.

조병래 2020시즌 수비수들의 호흡과 츠바사, 홍정운 선수의 복귀로 더 눈부신 성장이 기대됩니다. 리그 우승을 예감해도 되겠습니까.

김우석 목표는 클수록 좋으니까요. 팀이 성장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만큼 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수들 각자의 길이 있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프로팀이지만, 지금 선수들이 함께 간다면 기세를 몰아 더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박찬원 대구FC는 선수들이 꼭 같이 왔기 때문에 더 잘되지 않았나 싶어요.

김우석 맞아요. 오래 함께 훈련하다 보니 서로 신뢰도 잘 맞고요. 그래서 2019년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찬원 오늘 김우석 선수를 보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우리 아들이 같은 중앙 수비수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대학 무대를 밟을 예정인데, 선배로서 조언이 있나요?

김우석 저는 중학교 올라갈 무렵 축구를 시작해서 늦은 케이스예요. 어릴 땐 공부도 곧잘 했는데, 공을 차는 게 아무래도 너무 좋았어요. 부모님께 울고 불며 어떻게든 시켜달라고 떼졌던 것 같아요. 어렵게 시작한 만큼 동기부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피지컬적인 부분은 빨리 다져놓는 것이 좋아요. 대학 가면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유혹들도 많을 테니 프로의식을 가지고 매진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박찬원 김우석 선수와 만난다고 아들한테 카톡을 보내니 궁금한 걸 물어왔어요. 영상으로 좀 찍어가도 될까요?

김우석 물론입니다.

박찬원 자, 카메라 보시고 첫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경기에 들어갈 때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나요?



박찬원 엔젤과 아들 조선대학교 박관우 선수

김우석 경기에서 어떤 걸 보여주겠다는 생각보단, 마음을 가볍게 먹으려 합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박찬원 마인드 컨트롤은 어떻게 하는지, 김우석 선수만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김우석 실수하거나 잘못더라도 다음 경기를 위해 잊으려고 해요. 팀전이니깐 일단 자기만의 플레이를 밀고 나가세요. 그 다음에 찬찬히 생각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좋은 경험을 쌓으며 더 큰 무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박관우 선수 파이팅!

박찬원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석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국가대표처럼 빛나는 이름을 다는 것도 목표지만, 제가 어떤 사람의 꿈이 될 수 있다는 게 더욱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조병래 마지막으로 선수들을 응원하는 대구FC엔젤클럽과 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우석 언제나 저희를 든든하게 후원해주시는 엔젤클럽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잘 되든 안 되든 힘을 많이 실어주셔서 경기 끝나고도 가슴이 뜨거울 때가 많아요. 팬분들이 응원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여러분의 자량이 될 수 있게 성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4*



김우석 선수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들의 대구FC가 세계적인 팀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엔젤클럽이 하염없이 응원하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늘 하는 말을 김우석 선수에게도 전하고 싶네요. 언제나 부상 없이 좋은 소식 들려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우석 선수 파이팅!



엔젤, 중국 전지훈련에서 맛본 김치찌개 잊을 수 없어
대구FC 선수 위해 사랑으로 밥 짓는 클럽하우스 김경미 조리사

열 마디 말보다 따뜻한 밥 한 술



대구FC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지난 11월 박기동, 박병현, 정선호 선수와 함께(이번에도 몇몇 선수들은 팀을 떠났다. 하지만 밥심의 인연은 여전히 끈끈하다.)



2019년 한국 축구 붐을 이끌었던 대구FC에 빼놓을 수 없는 숨은 일꾼이 있다. 15년 가까이 대구FC 선수들의 ‘밥심’이 되어준 김경미 조리사다. 지난 2005년 대구FC와 인연을 맺을 때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다. 처음에는 선수들이 ‘누나’라고 불렀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요즘에는 대부분 이모라고 부른다.(옛정을 못 잊은 노병준 선수는 지금도 연락이 와서 ‘누나’라 부른다.) 솔직한 느낌은 엄마 같다. 실제로 김경미 조리사는 선수들을 ‘아들’이라 생각하고 음식을 준비한다. ‘열 마디 말보다 한 술 밥이 오히려 시詩적이다’(박재은 《밥시》 중에서)라는 말처럼 ‘이모의 밥’은 ‘사랑’과 ‘정성’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함께했던 선수들도 많다. 그중에는 선수 생활을 그만 둔 선수도 있고, 다른 팀으로 이적한 선수들도 있다. 대부분 아직까지 연락을 주고받는다. ‘태양의 아들’이라 불리며 대구에서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았던 이근호(울산현대축구단) 선수는 얼마 전 대구에서 재활을 할 때 연락이 왔고, 2부 시절 함께했던 이종성(수원삼성 블루윙즈) 선수도 최근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다. FA컵에서 수원삼성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고승범 선수도 우승 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중성이는 우리 팀하고 경기할 때 플레이가 거칠어 혼났어요.(호호) 고승범 선수는 이번 FA컵 결승전에 까치머리에 수영을 하고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했더니, ‘강인해 보이지 않냐’며 동조를 구하지 뭐예요. 오래 있었던 선수는 물론 잠시 있었던 선수 모두 그 인연이 소중한 것 같아요.”

15년 대구FC를 거쳐간 선수들 모두 눈에 아슴아슴

김 조리사는 대구FC의 산증인이다. 선수단에서 창단 멤버 노현욱 트레이너를 제외하면 제일 고참이다. 숙소 식당만 해도 네 번 옮겼다. 처음 경산 새한연수원에서부터, 백천 부영아파트 상가, 그리고 대구육상진흥센터로 옮겼고, 마지막으로 대구FC 클럽하우스 스카이포레스트로 이사 왔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대구FC가 창단하면서 임시로 빌려 쓴 새한연수원은 원래 식당 자리가 없어 사무실 옆에 주방을 만들어 쓰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새한연수원이 매각되자, 인근에 있던 백천 부영아파트의 상가를 임차해 선수단 식당을 만들었다. 대구FC 선수들이 원룸에서 생활하던 때라 마음이 찼했다. 그래서 밥만큼은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이 맛있게 해주자며 다짐했단다. 대구FC 조광래 대표이사 부임 후 대구육상진흥센터로 옮겼다가, 이제 대구FC 클럽하우스가 완공되면서 정착하게 됐다.

인터뷰 도중 점심시간이 되자 선수들이 식사를 하러 왔다. 분위기는 마치 집에서 밥 먹는 분위기다. 2019년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에서 제대해 복귀한 김동진 선수는 “군에서 내내 이모 밥이 그리웠다”며 “요즘 이모 밥에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여름에 대구로 팀

을 옮긴 박기동 선수는 “지금까지 먹어 본 것 중에 이모 밥이 최고!”라고 손가락을 치켜세웠고, 짬밥(?)이 오래된 황순민 선수는 이모 밥 특징이 뭐냐고 물으니 “맛있어요, 무조건 맛있어요.”를 반복했다. 상주상무에서 돌아온 신창무 선수 역시 요즘 이모가 해주는 샐러드에 푸욱 빠졌다. 외국인 선수도 ‘이모’라는 한국정서를 이해한다. 츠바사 선수는 특별히 매운 음식이 아니면 잘 먹고, 고기와 밥만 먹던 세징야 선수도 이모의 마음을 알았는지 요즘은 야채를 먹기 시작했다. 에드가 선수는 특히 한국음식을 좋아한다고 귀띔한다.



경기장에 나가 선수 응원도 하고, 컨디션도 챙겨

선수들에 따르면 ‘김경미 표 이모 밥’은 온갖 전설이 되어 K리그를 떠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김 조리사는 과장됐으며 손사래를 치지만, 대구FC의 힘은 밥심에서 나온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그동안 이모 밥을 먹은 선수들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으니, 이모 밥심이 전국으로 소문난 것은 사실이다.

‘밥심’의 핵심은 ‘가족 같은 분위기’다. 식당은 언제나 열려 있고, 선수들도 편하게 드나든다. 때로는 투정을 부리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준다. 김 조리사는 선수단 식당이 단순히 밥만 먹는 곳이 아니라, 선수들이 긴장을 풀고 위안을 받는 가장 편한 공간이기를 희망한다. **“일부 신인 선수나 이적 선수들이 처음에 대구로 오면, 팀 적응에 힘든 부분이 있어요. 식당에 들어올 때 ‘척’ 보던 느낌이 와요. 그럴 땐 먼저 다가가서 말을 붙이고, 편하게 해줘요. 밥 먹을 때조차 긴장하면 되겠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 항상 편안한 식당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마침 인터뷰 하던 날, 2군 마지막 경기가 있었다. 김경미 조리사는 서둘러 뒷정리를 마치고, 경기가 열리는 대구스타디움 보조구장으로 향했다. 추운 초겨울 날씨였지만, 2군 선수들의 경기를 보러 나선 것이다. 그녀는 K리그는 물론이고, 2군들이 뛰는 R(리저브)리그 경기도 찾아 나선다. **“2019년 한 번도 2군 경기에 가지 못했어요. 보통 대구스타디움 보조구장에서 하는데 그때는 강변구장에서 하다 보니 거리가 멀어**

저녁 하러 들어오기가 빠듯했지요. 그런데 저녁에 선수들이 밥 먹으러 와서 ‘오늘 왜 안 나왔어요?’라며 은근슬쩍 묻더군요.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김 조리사가 운동장에 나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애정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선수들에게 좀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다. 음식 맛이란 재료도 재로지만 하는 사람의 정성이 진할수록 깊어진다. 어쩌면 최고의 레시피는 사랑과 정성이 아닐까! 그녀는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듯, 선수들의 뛰는 모습을 본 뒤에 음식을 하면 집중도 더 잘된다고 한다. 더욱이 선수단 식사 시간에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엄마와 아들이 밥상머리에서나 하는 말들이 오간다. “더 안 먹을래, 야채도 좀 먹어야 돼, 멸치하고 콩도 다시 가져와야지...” 주방에서 홀hall로 나온 그녀는 선수들이 제대로 먹을 때까지 알뜰히 챙긴다. 특히, 선수들이 꺼리지만 꼭 먹어야 하는 멸치와 콩은 일부러 다시 떠오라고 잔소리까지 한다. 선수들도 가끔 투덜대기도 하지만, 마치 엄마의 따뜻한 잔소리를 듣는 것 같아 기분 나쁘지 않다.



김경미 조리사가 엔젤들과 함께 대구FC 2군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김 조리사는 최근에는 선수들의 동계 전지훈련지에도 합류한다. 해외에서 고생하는 선수들에게 집밥만큼 좋은 회복제는 없기 때문이다. 2013년 터키 안탈리아에서는 여행을 왔다가 선수들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5일이나 전지훈련지에 머무르며 직접 요리를 해줬다고 한다.

대구FC엔젤클럽 전지훈련 방문단과 가까워진 것은 지난 2018년 초 중국 쿤밍에서다. 1부 승격의 꿈을 일군 중국 쿤밍에서 더 나은 성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엔젤클럽 회원들이 전지훈련 방문단을 처음으로 꾸렸고, 선수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김경미 조리사의 음식 맛을 보게 된 것이다. 바쁜 일정으로 중국에 갔던 엔젤들은 김경미 조리사의 음식에 여독을 풀었다고 한다. 김경미 조리사는 이날 2군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많은 엔젤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엔젤 역시 부모의 마음으로 선수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통했다. 매서운 날씨에도 외투와 머플러를 퐁퐁 둘러매고 함께 선수들을 응원하고, 기념촬영도 남겼다. 선수들도 기분 좋게 전북현대모터스를 5 대 0으로 대파하며 R리그를 마무리 했다. 아마도 이날 저녁 선수단 식당에서는 즐거운 저녁식사로 한 때를 보냈을 것이다. 2018년 중국 쿤밍으로 대구FC 선수들을 격려하러 갔던 임태건 상임부회장은 “그때 중국에서 먹었던 김치찌개를 아직 잊을 수 없다”며 “당시 현지 호텔 음식을 먹던 부산아이파크 선수들에게도 대구 구단의 배려로 김치찌개를 요리해 전달하는 등 ‘김경미 표’ 김치찌개가 화제가 됐다.”며 반가워 했다.

선수들이 음식을 남길 때 가장 안타깝다는 김 조리사는 “앞으로 선수들이 남기는 음식 없이 좀 더 잘 먹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메뉴 개발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아울러 “음식뿐만 아니라 좀 더 편하고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⁴⁾

HALF TIME TALK

‘축하합니다’

우리가 ‘축’구로 ‘하’나가 되었음을.
2019. 11. 16. 안드레 감독 생일날 팬들과 함께



Photo by 김기나

책 천사의 독서인생
김영채 엔젤 자문위원(안경회계법인 회장)

다시 부활하는 책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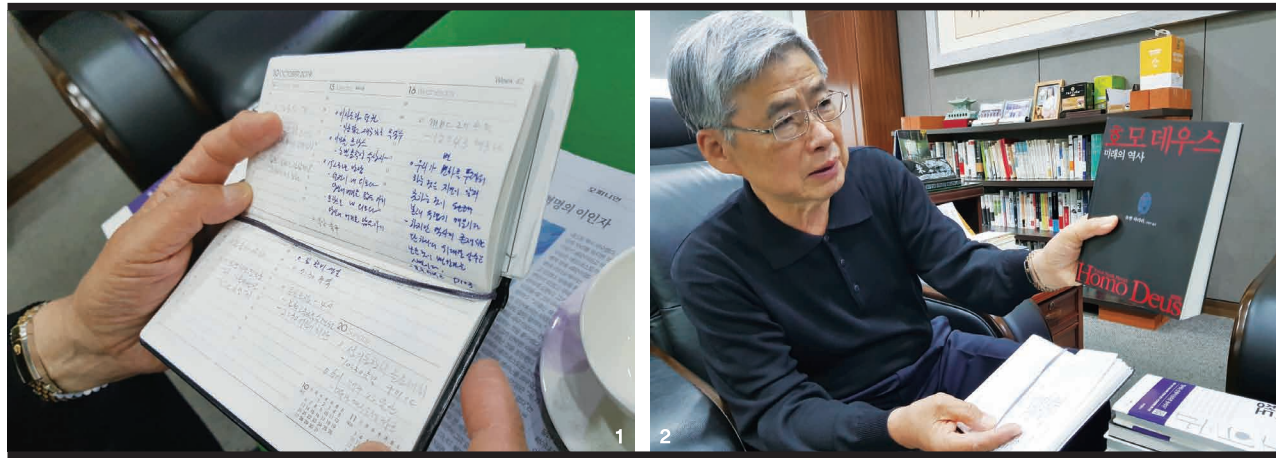
최근 들어 국내에 ‘독서바람’이 불고 있다. 유명 호텔이나 대형 카페에 서재가 들어서고 각종 방송에서는 다양한 책 읽기 프로그램이 쏟아지면서 다시 ‘독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30대 중심으로 독서모임, 독서클럽, 독서동아리, 북클럽 등 책 읽기 모임이 생겨나고 있다. 디지털문화에 지친 현대인들이 이제 자신의 성찰과 성장을 위해 ‘책’이라는 아날로그 세계의 문을 노크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에서도 책 읽기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책 천사’들이 있다. 대표적인 독서광이 엔젤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채 안경회계법인 회장이다. 2019년 3월 심장판막 수술 후에도 그는 책을 놓지 않았다. 《논어》를 책상머리에 두고 매일 2페이지씩 읽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아들 가족을 보러 가는 길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를 들고 가서 완독했다. 김 회장의 아들 김동신 샌드버드(Sendbird) 대표 역시 유명한 독서광이다. 김동신 대표는 서울대 재학 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책 안 읽는 사회’ 편에 독서 천재로 출연할 정도였다. 그는 “매달 30~40만 원 책을 구입해 읽는다”며 “책을 통해 많은 통찰을 얻었고 실무에도 도움이 된다.”고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업 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를 창업, 5년 만에 1억 2천만 달러를 유치해 화제가 된 젊고 유망한 한인 기업가로 주목받고 있다. 언제나 책을 가까이 하는 아버지 김영채 회장은 김 대표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을 것이다.

인문에서부터 과학까지 폭넓은 독서로 풍요로운 하루하루

다시 ‘책의 시대’가 열리는 이때에 엔젤클럽의 독서왕 김영채 회장을 찾아, 책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가봤다.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동일빌딩 5층에 위치한 김 회장의 사무실은 도심 속에 있었지만, 조용하고 정갈했다. 벽 한쪽에는 ‘포덕취의락유여飽德醉義樂有餘’라고 쓰인 액자가 걸려있었다. 김 회장의 후배인 서예가 울산栗山 이홍재 선생이 써준 글이라고 한다. ‘덕으로 배부르고, 의에 취하면 즐거움과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뜻이란다. 덕으로 배부르고 의에 취한 삶, 그것이 바로 독서하는 삶이 아닐까?

- 1 사무실에는 ‘포덕취의락유여’ 액자가 걸려 있다. 덕으로 배부르고 의에 취한 삶이 바로 독서인생이다.
- 2 김영채 엔젤 자문위원의 아들 김동신 샌드버드 대표와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 3 김동신 샌드버드 대표는 어린 시절 독서광으로 유명했다.(미국 카멜 밸리 랜치에서 아들 김동신 대표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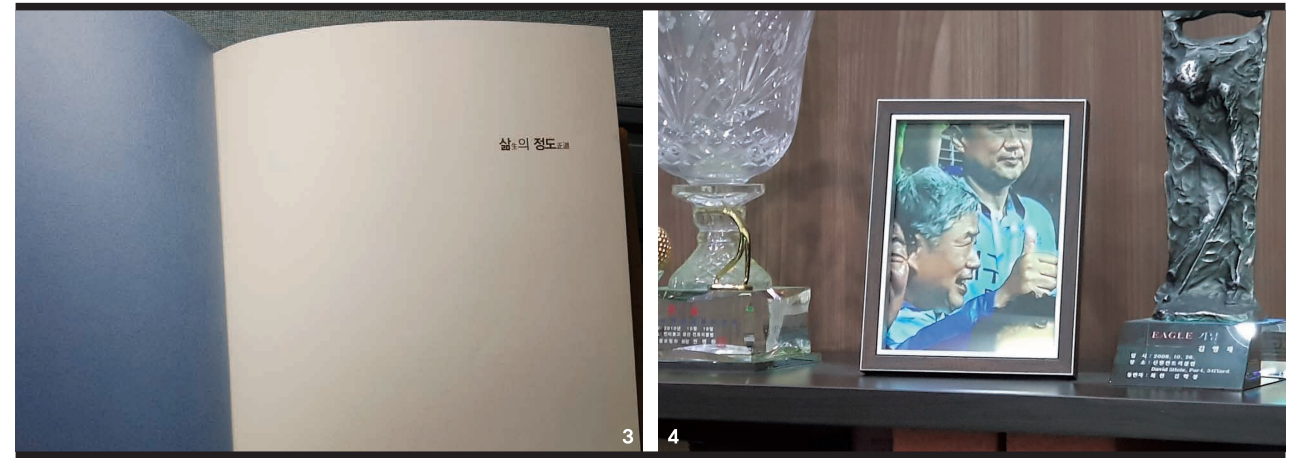
서재에는 동양 지혜의 보고 《논어》를 비롯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김형석 교수의 《영원과 사랑의 대화》와 《고독이라는 병》, 그리고 이어령 교수와 헤르만 헤세의 책 등 인문 분야 고전이 가득하다. 한쪽에는 《코스모스》(칼 세이건 지음) 등 자연과학 분야의 고전도 함께 갖춰져 있다. 그뿐만아. 교양인의 필독서로 거론되고 있는 《대변동》(재레드 다이아몬드 지음), 《사피엔스》(호모데우스)(유발 하라리 지음), 《축적의 길》(이정동 지음) 등 최근에 출간된 인문사회 서적까지 갖추고 있다. 이처럼 김 회장의 독서 스펙트럼은 넓다. 일흔이 넘은 나이지만 고전은 물론 새로운 문화와 관련된 책도 구입해서 읽으므로 최신 트렌드도 놓치지 않는다. 특히, 좋은 내용이 있으면 작은 수첩에 꼼꼼히 적어놓고 수시로 꺼내 보며 그 의미를 되새긴다. 해마다 이런 수첩들이 쌓여 지식의 보고가 된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유발 하라리의 화제작 《호모데우스》다. 마침 김 회장은 수첩을 꺼내 펴서 최근에 메모한 내용을 보여줬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본래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위대한 상수는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수첩에 적힌 《호모데우스》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세상이 변한다’는 상수를 받아들이고 있다.

“20세기 인류의 최대 적은 기아와 역병, 전쟁이었어. 지금은 이 세 가지가 거의 극복되었다고 볼 수 있지. 이제 사람들은 불멸을 찾고 있어. 사람들은 이제 인간을 넘어 ‘신神’이 되고자 해.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로 이동해간다는 것이지. 인간이 신의 경지를 넘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변화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인류의 미래를 다룬 것이 바로 이 책이야.” 김 회장은 《호모데우스》에 앞서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대변동》도 독파했다. 젊은 세대 못지않게, 엄청난 독서를 통해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김 회장의 멋진 백발이 지혜의 상징으로 유난히 빛났다.

목적합수와 수단매체의 인생 성공 2진법 《삶의 정도》 추천

그의 서재에는 진 웹스터의 명작 《키다리 아저씨》도 꽂혀 있다. 어린 시절 읽지 못한 것을 내내 아쉬워하다가 최근에야 구입해 읽을 예정이라고 한다. 맛있는 것을 앞에 두고 기다리는 소년처럼 김 회장의 얼굴은 즐거운 설렘으로 가득하다. 김 회장은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빨강 머리 앤》도 여러 번 읽었다. 아내가 영문판까지 사주면서 추천했던 《빨강 머리 앤》은 김 회장에게는 아련한 청춘의 두근땀과 같다. 그래서 김 회장은 책 안



에서 젊어지고, 자유롭게 풍요롭다. 그런 풍요로움을 엔젤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 책 한 권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서재에서 이것저것 살폈다.

“이정동 교수가 쓴 《축적의 길》도 참 좋은 책이야. 실패가 쌓여야 성공의 기반이 된다는 이야기지.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좋았어... 그래도 나는 이 책을 권하고 싶어.” 김 회장이 집어든 책은 한국경영학의 원로 윤석철 서울대 명예교수가 쓴 《삶의 정도》다. **“책의 주제는 간단해. 요즘 세상이 복잡하잖아. 간결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지. 윤 교수는 경영학은 물론 인문사회, 자연과학을 두루 섭렵했어.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인생의 올바른 길로 가는 방법이 뭔지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용적이면서도 올림이 있어.”**

《삶의 정도》는 다양한 학문적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삶의 올바른 길, 즉 ‘정도正道’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책이다. 대표적인 것이 ‘복잡함을 떠나 간결함’을 추구하라고 한다. 숫자의 경우 10개의 숫자를 사용하는 10진법 대신 2개의 숫자만을 사용하는 2진법의 간결성 덕분에 오늘날의 디지털 컴퓨터가 탄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2진법은 뭘까. 바로 이 책에 나오는 ‘목적합수’와 ‘수단매체’다. ‘목적합수’는 인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방향이며, ‘수단매체’는 목적합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적 도구다. 아무리 수단매체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윤 교수는 목적합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엔젤클럽의 ‘지역사랑’이 목적합수, ‘축구사랑’은 수단매체

“엔젤클럽도 마찬가지야. 엔젤이 강조하는 ‘축구사랑을 통한 지역사랑’이라는 슬로건만 해도 그래. 여기에서 ‘지역사랑’을 ‘목적합수’라고 보면, ‘축구사랑’은 수단매체라고 할 수 있어. 지역사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축구사랑이라는 수단을 활용한 것이지. 목적합수가 분명한 데다 수단매체가 제대로 뒤를 받쳐주니 성공할 수밖에.” 즐거운 책 이야기를 끝낸 뒤 김 회장은 점심을 먹고 가라고 했다. 추천 메뉴는 사무실 뒤 골목에 있는 소박한 가정식 백반이다. 김 회장과 허허허위 걸으면서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즐겼다. 달구벌대로로 돈키호테, 빨강 머리 앤과 키다리 아저씨, 그리고 미래의 인류인 호모데우스들이 지나칠 것 같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치 소설 속에 나오는 동네 이웃처럼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반겼다. 집에서 만든 것 같은 속 편하고 깔끔한 반찬에 점심시간이 즐겁다. 따뜻한 정에 배부르고, 책에 취한 풍요로운 하루였다. **4**

- 1 독서수첩을 보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김영채 엔젤 자문위원
- 2 김영채 엔젤 자문위원은 최근 화제인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를 들어 보이며, 신이 되려 하는 인간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다.
- 3 김영채 엔젤 자문위원이 추천한 윤석철 서울대 명예교수의 《삶의 정도》
- 4 책장 한면에 보이는 김영채 엔젤 자문위원의 축구사랑



어쩌다 패션모델

엔젤 8인방,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에 모델로 참가
모델은 자아 찾게 해주고 건강에 좋아

“걸을 때는 상체가 먼저 나가면 안됩니다. 뒤통치부터 딛고, 허리를 펴고, 배꼽과 등에 힘을 줘서...” ‘어쩌다 패션모델’로 런웨이에 섰던 8인방 축구천사가 패션모델 전도사가 됐다. 김재우, 문현훈, 백경애, 손현구, 윤창섭, 이승민, 이화선, 조승우 엔젤이 그 주인공. 여덟 명의 엔젤은 지난 10월 5일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에 일반인 모델로 참석,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을 홍보하다가 어느새 패션모델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이들은 처음에는 ‘내가 자격이 될까?’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황을 즐겼다. 그만큼 기억할 것도, 얻은 것도 많다. 급기야 농담 삼아 결성한 가칭 ‘비풍초동팔삼 패션모델단(초대 단장 윤창섭)’을 출범시키고 엔젤클럽에 패션모델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DGB대구은행파크 인근의 스테이크 앤 비어 하우스인 선서인더가든(회장 신승호 엔젤)에서 열린 ‘엔젤모델단’의 발대식을 찾아 어쩌다 모델이 된 엔젤들의 좌충우돌 워킹 이야기를 들어봤다.

❶ ‘비풍초동팔삼’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윤창섭 원래 엔젤 오십 명이 같이 참가해 단독 무대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막상 가보니 저를 포함해 여덟 명의 엔젤만 있었어요. 실제 모델과 함께 무대에 서게 됐지요. 문득 우리가 화투판에서 버릴 패인 ‘비풍초동팔삼’처럼 느껴졌어요.(웃음)

조승우 맞습니다. “아! 우리 여덟 명이 잘못하단 민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던 순간, 윤창섭 엔젤이 웃으면서 “우린 비풍초동팔삼이야! 버릴 패지만,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지.”라고 말했지요. 그때부터 우리끼리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웃음이 나오지만, 당시에는 절박했답니다.

❷ 찐하네요. 하지만, 한편으로 울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창섭 처음에는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왕 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끝까지 가보자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비풍초동팔삼’의 이름에는 ‘우리처럼 전문 모델이 아닌 사람들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우스개처럼 출발한 비풍초동팔삼 패션모델단이었지만, 막상 행사를 마치고는 큰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조승우 연습 첫 날, 강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본업을 뒤로 하고 연습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안하겠다고 말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엔젤클럽의 얼굴이야!’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기로 의기투합했어요. 패션쇼 당일 마지막 워킹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결국 해냈다!”며 모두 감격했습니다.

❸ 처음으로 런웨이에서 워킹을 해보셨는데요, 감회가 남달랐을 듯합니다.

김재우 무엇보다 엔젤클럽을 더 소중히 여기는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패션쇼에 참여한 엔젤님들과 돈독한 신뢰와 유대관계 형성이 되었죠. 패션쇼를 해본 사람만이 아는 동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웃음)

손현구 신입 엔젤이 된 후 추억거리를 만들었던 기회라 너무 뜻깊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갔다가 막상 부딪치니 ‘내가 이런 것을 해도 될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쇼를 마치고 나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패션쇼 멤버들과 친해진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화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패션쇼를 진행한 경험도 있는 만큼, 다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특히 엔젤의 일원으로 참석해 더 의미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백경애 엔젤클럽 덕분에 참가하게 되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부부엔젤 11호(문현훈 엔젤)로 같이 모델로 참석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아직까지도 주위 사람들과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 함께 웃음꽃을 피웁니다.

이승민 저도 개인적으로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무대에 엔젤클럽 회원이라는 이유로 동참하게 돼 설레고 감동받았습니다. 제 삶에 활력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엔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창섭



❹ 패션쇼 참석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화선 패션쇼를 통해 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패션쇼 이후 걷는 것은 물론, 앉고 서는 자세부터 바르게 하는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생활이 달라졌어요.

손현구 엔젤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엔젤로 솔직히 경기장에 가도 머쓱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패션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과 친분을 쌓게 되어 좀 더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행사가 끝날 때까지 서로 챙겨주면서 엔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엔젤클럽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김재우 예전에도 나름 패셔니스타처럼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언행, 태도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니어모델로 도전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패션 관련 분야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승우 확실히 자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구부정하게 걸으며 살아 온 것 같더라고요. 첫 연습 때 하루 종일 어깨 펴고, 등 펴고, 자세교정만 했습니다. 고통이 이만 저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도 모르게



조승우



문현훈

바르게 걷고, 앉게 된답니다. 혹시나 흐트러지면, 금방 다시 바른 자세로 되돌아 오니 신기할 뿐입니다. 웃맵시도 달라졌고, 자신감도 더 생겼습니다. 오창욱부도 바른 자세가 되었는지 소화도 잘 됩니다.

㉠ 사전에 연습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윤창섭 패션에 대해 문외한이다 보니, 연습할 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사전 교육을 맡은 정소미 감독님은 오랫동안 패션쇼 연출을 맡아 왔던 분이었어요. 일반인들을 무대에 세워야 하는 만큼 혹독한 연습을 시켰습니다. 사전에 '좀 심하게 하더라도 이해하라'고 양해를 구할 정도였어요.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말도 있었지만, 감수하고 웃으면서 받아들이며 어려운 연습과정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비풍초풍팔삼'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자는 의미일 수 있어요. **조승우** 모델과 패션쇼에 대해 1도 몰랐던 우리들이라, 자세교정과 스파르타 연습으로 온몸이 쑤서왔습니다. 등이 굽었다고 등짝도 맞고, 가슴 펴야 된다고 가슴도 맞고, 배 넣으라고 배도 맞았어요. 또, 동선이 틀렸다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패션쇼 당일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현훈** 저는 키가 작고 자세가 좋지 않아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끄러움을 잘 타서 걱정이 많았어요.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지만 엔젤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해서 끝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승민 저희도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패션쇼 뒤편 스태프의 고충을 알게 됐어요. 성공적인 패션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걸음걸이도 달라졌죠.

㉡ 힘들었던 만큼 기억에 남는 것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승민 동병상련이라고 했나요. 어려움을 함께 한 만큼 엔젤분들과의 한 순간 한 순간 모두가 소중한 것 같습니다. 서로 초보이다 보니 함께 욕도 먹고, 위로하며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얻을 수 있는 추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풍초풍팔삼'이라는 이름 자체가 많은 것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윤창섭 처음에 시작할 때 벽에 붙어 30분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독바로 팔을 흔들고 걷는 것만 20분 이상 연습하니, 군에 다시 입소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모두가 모델 지망생이 된 듯 열심히 했어요. 덕분에 정말 기초적인 것은 어드바이스해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람들만 보면 걸음걸이와 자세가 눈에 들어옵니다.

손현구 혼난 것으로 치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서른아홉의 나이에 가장 심각한 똥배(?)와 팔자걸음이 문제였지요. 최근 10년 중에서 가장 많이 혼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백경애



김재우



손현구

이승민

이화선

문현훈 평소 부끄럼이 많은 저는 무대에 어떻게 설까 고민했습니다. 나름대로 비법을 마련해갔지요. 어허!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 부끄러움이 없어져서, 혼자 관객들 앞에서 춤추고 윙크하고 쇼를 하고 있지 뭐니까! 사회자는 제가 개그맨인 줄 알았다 합니다. 행사 총감독님으로부터 '제일 잘했다'고 칭찬까지 받았어요. 엔젤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듯 합니다.

㉢ 다른 엔젤에게 추천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백경애 부부로서도 좋은 경험이었던 같아요. 2020년에도 기회가 되면 함께 참가하고 싶어요. 다만 우리 신랑(문현훈 엔젤)은 좀 더 개인적 비법을 연마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울러 더 많은 엔젤 분들이 참석한다면 대구FC엔젤클럽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인을 위해서나 엔젤 전체를 위해서도 적극 추천합니다.

이화선 무조건 참석이지요. 그리고 주위분들에게 적극 참여를 권할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주저하겠지만, 한번 런웨이에 서보면 그 경험이 값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20년에는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손현구 2019년 신입 엔젤로 많은 경험을 했던 만큼 신입 엔젤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선배 엔젤들이 정말 잘 챙겨주시고, 덕분에 빨리 친해질 수 있습니다. 신입 엔젤을

제가 눈여겨 볼 겁니다.(웃음) **이승민** 모든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저 역시 참석은 물론 다른 엔젤분들에게도 강력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다간 선발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조승우** 당연합니다. 자세교정만으로도 완전 큰 이득입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 언제 또 서볼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구FC와 엔젤클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홍보이사로서, 연습하는 날마다 쉬는 시간 중간중간 엔젤 매거진을 나눠주며 대구FC와 엔젤클럽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전문모델들이 "FC가 뭐야? 엔젤클럽? 저 사람들 뭐하는 분이지?"라고 웅성웅성 했어요. 하지만 함께 연습하고, 인사하면서 잘 지내게 되자 모두들 저희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 패션쇼 당일에는 그분들이 먼저 격려해주셨습니다. 함께 런웨이를 올랐던 많은 모델과 스태프분들이 "대구FC와 엔젤클럽을 기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모델분들과 SNS 친구도 맺어, 대구FC와 엔젤클럽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계획은?

윤창섭 패션에 앞서 우리는 엔젤이고, 엔젤의 이름으로 참가한 만큼 기회가 되면 엔젤클럽 홍보를 위해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김재우 엔젤은 그 이후 실제로

시니어모델에 도전해 런웨이에 서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창원의 집 한복패션쇼에 참가했으며, 12월 18일에는 세계 3대 대회 중 하나인 '더 룩 오브 더 이어 클래식(2019 The Look of The Year Classic)' 시니어모델 본선에 올라 '리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2월 23일에는 '2020 앙드레김 움프 런칭쇼' 무대에 서는 등 기회가 되는 대로 모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우 엔젤은 "조금 더 준비하고 노력하면 서울 무대에서도 통할 것 같다는 지인의 권유로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며 "본업인 제조업을 충실히 하면서 공익광고 등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할 생각"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0년에는 보다 많은 엔젤이 참여하기를 희망해요. 적어도 오십 명 참석해서 단독 무대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FC 머플러, 유니폼을 소품으로 활용해 더 독특한 무대를 만들 수 있고 그만큼 홍보 효과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심사는 비풍초풍팔삼 패션모델단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웃음) 2019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



대구FC 2019년을 돌아보다



글, 안상영 엔젤
(광진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시즌 초의 돌진, 그리고 아픈 패배

2018시즌 FA컵 우승의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새 시즌을 맞이했다. 정규 시즌과 처녀 출전하는 ACL(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대한 기대는 대구 축구팬들을 흥분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맞이하는 새 전용구장 또한 전국 축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구FC는 시즌 초 완성된 전력으로 믿음에 부응했다. FA컵 우승 전력을 고스란히 유지하며 당당히 순위표 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ACL을 병행하는 강행군이었지만 개막전 전복을 시작으로 울산과도 무승부를 기록하며 쉽게 지지 않는 팀으로 변모했다. 4라운드 경남전 패배는 벚꽃 속의 가시였지만 보약이라 생각했다. 호주 원정에서 멜버른을 이기고 홈에서 광주우를 물리칠 때까지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호사다마였다. 준비된 팀 히로시마에게는 역부족이었다. 원정과 홈에서 모두 지며 ACL 첫 도전을 멈추었다.

한 차례 순회 경기의 마지막 11라운드 서울전 패배 또한 뼈아웠다. 체력적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심판의 석연치 않은 판정까지 겹치며 정규 리그 두 번째 패배를 당했다. 전국 축구팬들의 동정을 받았지만 잃어버린 승점은 찾아올 수 없었다.

거둬들인 강행군과 부상 투혼

정규 리그, ACL, FA컵까지 3개 대회를 치르는 강행군을 거듭하며 힘겨운 사투를 벌이던 4월 말 김진혁을 군에 보냈다. 그는



Photo by 대구FC

2018년에 이어 또 한 번의 보직 변경을 통해 골게터로 거듭났다. 에드가의 빈자리를 메우며 팀 내 최다 골을 기록했다. 그의 입대는 살림 밑천이던 만파를 시집보내는 심정이었다. 시즌 중반 주전들의 체력 저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시초는 13라운드 츠바사의 부상이었다. 전 경기 출장을 이어오던 피로가 빌미가 되었다. 그가 빠지자 중원이 흔들렸다. 설상가상 중앙 수비수 홍정운 마저 17라운드에서 쓰러졌다. 중원과 수비의 핵심 자원인 두 선수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시즌 후 지표로 증명되었다. 두 선수가 같이 뛴 전반기 13경기에서 6승을 했지만 동시에 결장한 후반기 20경기에서 6승에 거뒀다. 홍정운의 빈자리는 제주에서 이적해 온 정태욱이 메웠다. 츠바사의 공백은 류재문과 박한빈이 교대로 출장했다. 동계 훈련에서 손발을 맞춘 핵심 전력이 빠지자 안드레 감독의 고심은 깊어졌다. 승률 20%대에 머물며 홈에서 패배와 무승부가 반복되었다. 다급한 안드레 감독은 공격수 박기동을 경남에서 임대했다.

다시 회복기 맞은 대구FC 팀 최고 성적까지

반등은 8월 초 26라운드가 되어서야 가능했다. 에드가가 부상에서 회복되고 경찰청에서 전역한 김선민과 김동진이 합류하면서 전력이 안정되었다. 그들의 복귀 후 연승을 포함한 8경기 무패로 성적이 상승했다. 6위까지 떨어졌던 성적을 4위까지 올리며 안정적으로 파이널A에 안착했다. 창단 후 팀 최고 성적이었다. 마지막 경기까지 ACL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둔 계기가 되었다.

2018시즌 3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는 황순민, 홍정운, 정우재, 정승원 등 4명에 불과했다. 2019시즌은 조현우, 황순민, 김대원, 세징야, 김우석, 정승원, 박병현 등 7명이 30경기 이상을 뛰면서 팀을 이끌었다. 안정된 스쿼드는 성적으로 나타났다. 2019시즌 울산, 서울, 수원에게 이기지 못했다. 2018시즌 우리에게 FA컵에서 아픔이 있었던 울산에게 이기지 못한 것은 이해가 된다. 그들은 우승을 목표로 스쿼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수원에게 이기지 못한 것은 내년도 숙제로 남겼다. 선망의 대상인 수도권 팀에 대한 심리적 위축을 극복해야 된다. 용병농사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세징야와 에드가 콤비는 상대팀을 위협하는 K리그 최고의 듀오가 되었다. 하지만 던질 때마다 모가 나오지는 않았다. 시즌 초에 합류한 다리오와 중반에 보강된 히우두는 팀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2020년은 우승 준비의 원년으로

2020년도에는 신인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고재현과 임재혁, 오후성, 김태한, 고태규의 모습을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보고 싶다. 김대원, 정승원 이후 영건들의 출장이 쉽지 않았다. 이제는 중견 선수 반열에 든 장성원, 정치인과 박한빈의 웃은 얼굴도 보고 싶다. 베테랑 정선호와 강윤구 활용법도 연구되어야 한다. 공격을 전개할 중원은 보강이 필요하다. 2020시즌도 주전들의 부상을 안심할 수 없다. 중원 싸움에서 밀리니 공격이 단조로웠

다. 체계적인 빌드업보다 속공 의존도가 높았다. 공격 패턴이 간파당하니 골 사냥은 쉽지 않았고 체력 소모는 많았다. 조현우, 세징야 이후 세대의 준비도 불가피하다. 언제까지 우리 선수로 붙들어 둘 수는 없다. 그들의 큰 꿈을 위해 아름다운 이별도 준비해야 한다.

대구는 다크호스에서 대항마로 성장했다. 우승 예상마의 반열은 시기상조이지만 내년은 우승 준비의 원년이 될 것이다. 준비할 것이 많다. 기존 선수 단속이 시급하다. 팬텀을 형성한 일부 선수들은 다른 팀의 프리포즈를 받을 것이다. 대구만의 방식으로 잔류시켜야 한다. 체계적인 공격을 주도할 공격형 미드필드 보강은 물론이고 지고 있는 경기에서 반전시켜줄 특급 조커도 필요하다. 교체 멤버로 반전시킨 경우는 드물었다. 체력 저하에 의한 교체보다 경기 중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스피드와 기량을 갖춘 베테랑이 필요하다.

구단도 2019시즌의 실적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어떤 사업이던 개업 효과는 있다. 구단의 노력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전용구장 개장에 따른 흥행도 부인할 수 없다. 2020년은 전 경기 매진에 도전해야 된다. 아니 빅게임은 월드컵 구장 사용도 검토할 만큼 관중몰이를 해야 한다. 팬들은 냉정하다. 지난해의 성과에 안주한다면 이내 등을 돌릴 것이다. 팬이는 들고 있을 때 채찍을 가해야 한다. 중심을 잃은 팬이를 다시 세우려면 몇 배의 수고가 필요하다. 대구FC는 축구판에서 우량주의 반열에 올랐다. 올해는 명실상부 대구의 대표 특산품이 되길 기대한다.⁴¹

대박 아래 행복한 우리 가족!



글, 김강수 엔젤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Executive Life Planner)

‘하늘 아래 / 행복한 곳은
나의 사랑 나의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 옹혜원 <가족> 중에서

온 가족이 열혈 축구팬 되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한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가족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하늘 아래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가슴으로 느낄 것입니다. 2019년 저는 ‘대박’이라는 하늘 아래에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축구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축구 중계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경기장에서 직접 응원하는 것을 그다지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제 아내에게도 직관(직접 관람)에 빠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8년 12월 5일이었지요. 대구FC가 구단 사상 처음으로 우승에 도전한 뜻 깊은 날, FA컵 결승전 1차전이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설득해 원정길에 올랐고, 아내는 그때 직관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했던 당시의 기쁨과 감동은 2019년 내내 저를 DGB대구은행파크, 즉 ‘대박’으로 가도록 하였습니다.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또 다른 가족인 아들은 아예 열혈 축구팬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말 오후에는 반야월초등학교에서 함께 축구를 해왔던 터라 고3이라 직관은 못하더라도 늘 하이лай트 영상으로 애청하는 대구FC의 팬입니다. 이렇게 하여 축구팬이 된 우리 가족은 2019년 12월 대박 아래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아내가 직관족이 된 지 꼭 1년 만이지요.

기쁨을 주는 대박, 우리는 행복한 엔젤

2019년 12월 1일! 벌써부터 대박은 매진됐고, 주위의 수많은 티켓 부탁에도 불구하고 엔젤이 가진 3장의 티켓을 우리 가족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K리그 마지막 경기여서, 수능시험을 마친 아들과 결혼 25주년을 맞는 아내와 경기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랑비가 내리는 쌀쌀한 겨울 날씨 속에서도 축구로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여서 좋았습니다. 25년을 저와 함께 걸어온 동반자가 더욱 애뜻했고, 별 탈 없이 잘 자라 어느새 청년의 모습이 된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대박 아래 코와 눈매가 닮은 식구들이 함께 앉아 축구를 응원하는 모습은 또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우리는 빗속에도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탄성을 지르는 홈팬들과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준비가 부족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들의 모습과도 같이 가슴이 정했습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엔젤룸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김미숙 엔젤님이 준비한 마약 김밥, 문현훈 엔젤님의 후원과 여성 엔젤님들의 자원봉사로 맛본 어묵 맛은 아내와 아들에게 더없는 기쁨과 추억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경기 결과는 무승부로 끝나 아시아로 가는 국제선을 탈 수 없게 됐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반감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체력이 방전되다시피 전력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2020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가족도 축구팬으로서 업그레이드됩니다. 경기장을 자주 찾는 것은 물론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도 사 입고, 각자 좋아하는 선수의 팬카페도 가입하면서 진성 엔젤이 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2년 반 엔젤 활동 돌아보며

돌아보면 지난 2년 반의 엔젤 활동 동안 축구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도 최선을 다했고, 그만큼 제 사업도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꽃피웠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10여 명의 지인들을 엔젤, 엔시오로 가입하도록 권유했고, 많은 분들을 축구장으로 모였습니다. 새해에도 엔젤의 작은 밑알이 되어 엔젤클럽 발전과 우리 사회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대구사랑을 떠나 곳곳에서 많은 선행을 보이는 엔젤님들처럼 저 스스로도 조금은 양보하고, 조금 더 품위 있는 엔젤이 될 것을 약속하며 2020년 새해를 맞습니다. 엔젤의 정신처럼, 정정당당 대구FC가 나아가길 미래는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아들의 미래처럼 창창하게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엔젤 가족으로 이끌어준 강정영 엔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4*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여서 좋았습니다. 25년을 저와 함께 걸어온 동반자가 더욱 애뜻했고, 별 탈 없이 잘 자라 어느새 청년의 모습이 된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대박 아래 코와 눈매가 닮은 식구들이 함께 앉아 축구를 응원하는 모습은 또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축구가 뭐라고

글. 손지훈(대구FC엔젤클럽 주임)

2019년 11월 축구계에 비보가 전해졌다. 2002한일월드컵 4강의 주역이자, 인천유나이티드FC 유상철 감독이 최장암 4기라는 소식이었다. 당시 강등권에 머무르고 있는 인천에게는 설상가상이었다. 치료하기도 바쁘고 벽철 텐데, 매 경기 운동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유상철 감독의 모습에 축구팬의 입장으로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걱정되었다.

하지만, 의외로 유상철 감독은 담담한 모습을 보이며 선수들과 팬을 안심시키는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경남FC와의 강등 경쟁, 축구가 뭐라고... 병원이 아니라 그라운드에서 투혼을 불태우는 유상철 감독의 열정이 나를 창원축구센터로 발걸음하게 만들었다.



사진 출처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의 감동을 찾아 창원축구센터로 향하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근처 식당가와 길거리로 멀리서 온 인천팬들의 모습이 속속 보이기 시작했다. 16대의 버스를 타고 900여 명의 인천팬들이 원정왔다고 한다. 주차되어 있는 버스를 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경기장 입장 후 나는 인천 서포터즈의 열기를 느끼고 싶어 원정석에 앉았다. 저 멀리 반대편 경남 응원석에서 유상철 감독 건강 쾌유를 바라는 걸개가 보였다. 팬스레 마음이 따뜻했다. 인천 서포터즈들은 원정석에 입장하는 관중에게 깃발을 나눠주며 응원을 유도했다. 대박에서 깃발 응원을 하는 엔젤 회원들이 생각났다. 깃발 응원은 팬들이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입장하고 유상철 감독도 모습을 드러냈다. 청겨온 망원경으로 유상철 감독을 보며, 2019시즌 유종의 미를 거두길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유상철 감독은 지난 상주상무와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에게 '나를 위해 뛰지 말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위해 뛰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개인의 스토리가 아닌 '축구'를 위해 뛰어 달라는 프로다운 말이었다. 감독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아니라, 12번째 선수인 팬들과 하나 되는 진정한 원팀으로 마지막 홈경기를 의미 있게 치르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팀을 떠나 축구정신으로 한마음

경기가 시작되고 인천팬들의 열띤 응원전이 시작되었다. 원정석에는 나를 비롯한 타 팀 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응원가는 모르지만, 유상철 감독을 응원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대박에서처럼 깃발을 경기 내내 흔들었다. 한 번도 인천이란 팀을 응원한 적이 없었는데 이날은 정말 신기하게 내가 인천팬이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지나고 보니, 단지 인천뿐만 아니라 '축구'와 유 감독이 보여준 '축구정신'을 위해 깃발을 흔들었던 것 같다. 전반전 경기는 약간 지루하고 답답하게 흘러갔다. 두 팀 모두 결정력이 없고, 뺏고 뺏기는 양상으로 마무리됐다. 빠르고 역동감 넘치는 플레이는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이다. 하지만, 이날은 강등이 걸린 경기인 만큼 양 팀 모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문득, 다음날 열리는 대구FC와 FC서울 경기는 어떻게 치러질지 기대되었다. 후반전, 양 팀의 플레이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경남의 쿠니모토는 위협적이었고, 인천의 부노자는 멋진 수비력을 보이며 공격을 차단했다. 하지만, 양 팀의 슈팅은 골대 밖으로 계속 벗어났다. 인천은 상주전에서 멋진 골을 넣은 케힌테를 투입했다. 피지컬 좋은 케힌테가 공을 잡고 상대편 진영으로 나아가자 인천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케힌테의 분전에도 골은 터지지 않았고, 경남의 매서운 공격도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무승부만 거두어도 잔류하는 상황, 인천팬들은 가슴 졸이며 애꿎은 시계만 계속 쳐다봤다. 결과는 무승부였다. 인천의 K리그 잔류가 결정되는 순간 모두가 펄쩍펄쩍 뛰었고, 눈물을 흘리는 팬들도 있었다. 또 다른 눈물도 있었다. 홈에서 강등이 확정되자 몇몇 경남FC 팬들이 눈물을 흘렸다. 실망감에 일찍이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팬들도 많았다. 잔류와 강등의 세계는 너무도 잔인했다. 축구는 때때로 큰 감동을 주지만, 승자와 패자의 엇갈림에서는 냉정했다.

유상철 감독! 남은 또 하나 약속도 꼭 지켜주길

잔류의 기쁨에 취한 인천 선수들과 스태프들은 인천팬들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나 역시 그 모습을 보니 흐뭇하고 가슴 뭉클했다. 인터뷰를 마친 유상철 감독이 원정석 쪽으로 오자 모두 그의 이름을 연호했고, 기쁨의 행가래와 감사 인사로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했다. 2019년 한 해는 희로애락 축구 이야기가 많았던 해였다. 수많은 팬들이 그라운드에서 웃고 울었다. 밤차를 타고 원정을 떠났고, 쏟아지는 빗속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팀을 외쳤다. 어떤 팀은 기적 같은 우승을 하고, 또 다른 팀은 한국축구 흥행을 견인하며 한 편의 동화를 쓰기도 했다. 그리고 팀을 떠나 모든 축구팬들이 한 감독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이 경기장에서 펼쳐졌다. 나 역시 나의 팀이 아닌 어느 한 팀의 감독의 쾌유를 위하여 인천팬의 걸개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원한다. '남은 또 하나의 약속도 꼭 지켜줘!' 축구가 뭐라고 말이다.⁴⁾



ANGEL DIARY

한 편의 시詩같은 엔젤의 일상 속으로



엔젤 다이어리!

엔젤의 하루하루 감동이 소복소복

엔젤의 일상이, '대구사랑'의 일상입니다. 엔젤카가 다녀온 길, 그리고 엔젤 여러분이 다가온 길! 그 길에는 시詩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쌓여있습니다. 지난 호에 다 실지 못한 엔젤카의 방문 이야기, 그리고 2019년 가을부터 시작된 엔젤 여러분의 뒷 이야기를 여기에 실습니다.

※ 2019년 12월 초까지의 엔젤 다이어리입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12월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19. 8. 23.

김현철 엔젤

가을이 오면

처서處暑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 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간 가을 초입, 엔젤의 가을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입추 지나고 엔젤이 된 '가을의 엔젤', 김현철 엔젤(에인에이(주) 대표)님께서 잊지 않고, 처서를 맞아 엔젤 후원금을 납부했습니다. 김현철 엔젤님과 함께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의 풍성함을 예고해주신 김현철 엔젤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 8. 23.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사랑과 섬김

빵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빵에 담긴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

— 마더 테레사

엔젤 후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의미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엔젤 후원금에 담긴 사랑이 대구와 대구FC를 살립니다. 사랑과 섬김의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원장 이경수)이 엔젤 후원금을 납부하며 대구와 대구FC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엔젤의 후원금은 우리가 숨 쉬고 사는 대구, 그리고 우리가 응원하는 대구FC 선수에 대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최근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많은 엔젤분들께서 후원금을 납부하며 대구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그리고 엔젤님을 감사합니다.



서대구청년회의소 특우회

내 옆에서 걸으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 뒤에서 걷지 말라. 나는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앞에서 걷지 말라. 나는 추종자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내 옆에서 걸으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 유트족 격언

서대구청년회의소 특우회가 엔젤클럽과 함께 가지고 합니다. 뒤에서 걷지 말고, 앞에서 걷지 말고, 함께 걸어가자고 합니다. 특히, 8월 24일 특우회 회원들은 DGB대구은행파크를 찾아, 엔젤과 함께 대구FC를 응원하고 단체 엔젤로 가입했습니다. 이날 엔젤클럽에서 준비한 영상을 시청하며, 대구축구와 엔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마침 이날 경기에서 대구FC가 강원FC를 3 대 1로 완파하며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엔젤과 함께 가는 길! 승리의 길입니다.



문길남 엔젤

늘 그리운 사람

누군가에게 / 그리운 사람이 된다는 건 / 축복입니다.

— 최길남 <늘 그리운 사람> 중에서

잘 계시지요. 문길남 엔젤(주)신세계건설 부사장)님! 이렇게 인사드리니 좀 송구합니다. 서울도 안녕하신가요? 대구는 대구FC와 엔젤 덕분에 잘 있습니다. 아! 서울 계셔도 요즘은 대구FC 덕분에 힘이 나실 테지요. 어제 아쉬운 경기를 했지만, 문길남 엔젤님의 사랑에 선수들이 더 힘을 낼겁니다. 추석이 지척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운 때이지요. 이렇게 서로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축복(축구행복 : 축구로 행복) 맞습니다. 기회 되면 대팻에서 한번 봐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2019. 8. 27.

최성주 엔젤

축구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 온 우주가 그 사랑을 위해 공모하는 것 같다. 오늘 그 일이 내게 일어났다.

— 파울로 코엘료 <11분> 중에서

시민구단 대구FC를 만나 사랑에 빠진 엔젤이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위하여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온 우주도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최성주 엔젤(주)동진금속 대표)님입니다. 그동안 사업으로 바빠 자주 찾지 못했지만, 얼마 전 대팻에 처음 와서 대구FC와 엔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사랑이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 자주 축구사랑에 빠지기로 하셨습니다. 축구사랑, 대구사랑에 빠진 엔젤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19. 8. 29.

박종철 엔젤

절절 끓는 엔젤 열정

목련꽃 환한 / 남은 기와집 (중략)

가까이 다가서니 / 언제부터 펴터었나

빛바랜 달력 한 장 / 빈방 잇슴 / 보이라 절절 꼬름

— 이정록 <목련나무엔 빈방이 많다> 중에서

축구사랑 꽃피는 엔젤집에도 빈방 많습니다. 엔젤님들의 '열정'으로 '절절' 끓습니다. 오늘 방 보러 박종철 엔젤(주)우일건설 대표)님께서 왔습니다. 커피 가득 손에 들고, 엔젤집에 처음 들렸습니다. 186cm 훗칠한 키에 선한 얼굴로 와서는, '절절' 끓는 축구 이야기에 어김없이 엔젤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 대팻나들이는 시간이 걸린다."셨지만, 엔젤 사무국에 들러 마음으로 절절 끓는 열정 보탠다 했습니다. 엔젤집에 방 있습니다. 대구사랑, 축구사랑의 보이라 절절 끓습니다.



2019. 9. 5.

도재영 엔젤 자문위원

엔젤의 연륜, 자랑스런 대구시민!

연륜年輪은 사물의 핵심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길의 이름이다.

— 광재구 <광재구의 포구기행> 중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연륜이 쌓인 도재영 엔젤 자문위원(주)웅진기업 회장)과 같은 분이 '엔젤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입니다. 삶의 핵심으로 가는 길을, 대구사랑의 지름길을 아시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지요. 올해도 변함없이 후원하며 대구FC의 선전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소외된 이웃을 지속적으로 돕는 것은 물론, 빈곤국가의 소아마비균 박멸 활동, 우물 파주기 활동, 구급차 기증 등 국내·외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며 통일운동, 시민안전봉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기여 등 다방면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제43회 자랑스런 시민상' 봉사 부문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9. 9. 5.

우경호 엔젤

어서오세요! 우경호 엔젤님

전쟁 같은 세상에서 / 매일 나가서 싸우듯 일하는 남자가 왔다.

그 남자가 버티는 힘은 바로 / 그대의 꽃 같은 한마디

"오늘도 수고한 당신, 어서오세요."

— 이수동 <토닥토닥 그림편지> 중에서

엔젤카를 타고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요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엔젤 여러분 모두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버티는 힘 중 하나는 바로 대구FC의 존재와 엔젤의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안홍윤 엔젤님이 추천하신 우경호 엔젤(제일약품(주))님 역시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짬을 내 엔젤 사무국에 들렸습니다. 대구FC와 엔젤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감동받았다고 하며 엔젤 의무를 마쳤습니다. 추천해주신 안홍윤 엔젤님, 어려운 시간 내서 찾아주신 우경호 엔젤님! 그리고 모든 엔젤님들! "오늘도 수고한 당신, 감사합니다!"



2019. 9. 9.

반정욱 엔젤

9월입니다

옥수수를 거두어들이는 달

- 테와 푸에블로 족

어김없이 9월이 왔습니다. 세상이 어지럽다 해도 들녘의 옥수수가 익어가듯, 9월이 그렇게 왔습니다. 자연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은 9월을 '옥수수를 거두어들이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마침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아래 여러 가지 바쁜 중에서도 반정욱 엔젤(미르건축 소장)님께서 후원금을 납부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아는 여행자처럼, 9월의 옥수수가 가을빛에 익어가듯 엔젤사랑을 실천했습니다.



2019. 9. 9.

최성중 엔젤

우주은행 엔젤지점

방금 최성중 엔젤(통문어家 대표)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구FC 계좌번호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엔젤의 의무를 다하고 출발하겠다는 직접 은행에 가신 모양입니다. 《우주은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돈을 넣는 은행이 아니라 '덕'을 예금하는 은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후원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건 아니지만, 저절로 우주은행에 '덕'이 예금되고, 언젠가 행운과 기쁨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이었습니. 마침 최성중 엔젤님이 은행에서 계좌번호를 물으니 문득 또 다른 은행, 즉 우주은행의 계좌번호를 떠올렸습니다. 엔젤이 운영하는 '우주은행' 말입니다. 넉넉한 추석이고, 우주은행에도 예금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우주은행의 예금은 행운과 기쁨으로 반드시 다시 엔젤님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우주은행 엔젤지점이었습니다.



2019. 9. 9.

차인석 엔젤

우주은행, 음덕은 복리!

호텔인터불고 대구에 있는 엔젤 사무실은 음덕陰德(남에게 알려지지 않게 행하는 덕행)을 예금하는 우주은행 엔젤지점입니다. 이곳에는 언제나 엔젤님들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지요. 사무국 래핑부터, 책장, 쇼파, 사무집기, 그리고 전자제품 등, 그리고 출출한 오후에 한 번씩 사용하는 전자오븐레인지도 한뼉한답니다. 이 오븐레인지는 차인석 엔젤(주)대성엔팩스 대표)님께서 후원해주신 것이지요. 당시를 떠올리니 직접 전화가 와서 배달까지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덕분에 엔젤 사무국은 좋은 기운이 가득하답니다. 거기다 매년 교박교박 후원금까지 보내주고 계시지요. 이런 음덕을 대구FC에 전할 수 있는 엔젤 사무국은 그야말로 '덕행은행'이기도 합니다. 후원금이야 대구FC로 들어가겠지만, 덕행은 엔젤 사무국으로 교박교박 입금됩니다. 대구사랑의 덕을 쌓으시는 차인석 엔젤님께 감사드리며, 이자는 복리입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10.

노승희 엔젤

하늘보다 고운 달

너도 나도 /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중략)
하늘보다 내 마음에 /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
한가위 달을 마음으로 걸어두고 /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

- 이해인 <달빛기도> 중에서

하루하루 달빛이 한가위를 향합니다. 마침 이번 추석에는 날씨가 맑아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넉넉한 보름달이 노승희 엔젤(SGI 구미지점 미주대리점 대표)님의 마음에 먼저 떴습니다. 대목 아래 바쁘실 텐데, 특별히 시간을 내서 대구FC에 대한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2017년 대구스타디움에서 가입식을 했는데, 구미에 계셔서 경기장에 자주 오기는 힘들지만 늘 대구FC를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보다 아름다운 엔젤 달이 떴습니다. 추석이 지척입니다. 엔젤님들 모두 넉넉한 달을 마음에 걸고 모두 행복하세요. 둥글게! 둥글게! 달빛 아래 기도합니다.

전해영 엔젤

진짜 엔젤

우리가 모르는 어느 멋진 날이 달려 어딘가에 끼워져 있는 것이다.

- 랄프 왈도 에머슨 <스스로 행복한 사람> 중에서

아마도 오늘인 것 같습니다. '어느 멋진 날' 말입니다. 오늘은 전해영 엔젤(주)화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님이 '진짜' 엔젤이 된 날입니다. 전해영 엔젤님은 지난 2017년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의 추천으로 가입, 후원금도 내셨지만, 처음에는 정확히 엔젤이 무엇인지 자세히 몰랐다고 합니다. 단지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엔젤카로부터 엔젤정신과 활동을 상세히 듣고,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을 정도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앞으로 경기장을 찾아 대구FC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직접 찾아주고, 엔젤정신도 설명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서 오히려 송구했습니다. 진짜 엔젤이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한 후원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멋진 날입니다.



2019. 9. 18.

여상훈 엔젤

멀리서 빈다

어딘지 모르는 곳에 /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 되고 (중략)
가을이다 / 부디 아프지 마라

- 나태주 <멀리서 빈다> 중에서

가을입니다. 먼 곳에 있는 분들이 그리울 때입니다. '어디가 아프진 않은지' '잘 지내는지' 마음이 쓰일 때지요. 고등법원장 역임 후 지금은 서울에서 로펌을 개원한 여상훈 법무법인(유한)클래스 대표 변호사님도 멀리서나마 늘 대구를 생각하는 분입니다. 출항 인사로서 훌륭한 법관 출신이시지요. '엔젤의 키다리 아저씨' 김재홍 엔젤님의 사촌 매형이기도 합니다. 마침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강병규 엔젤님과 김재홍 엔젤님을 만나 엔젤 소식을 듣고 "너무 좋은 일이다. 미려하나마 지역 발전에 참여하고 싶다."며 바로 대구FC 후원천사, 엔젤에 가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귀경해서도 엔젤의 한 사람으로서 대구FC 승리를 위하여 마음으로도 열심히 응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멀리에서도 대구사랑을 실천하며 꽃처럼 웃고 계신 여상훈 엔젤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이 하루가 눈부신 것 같습니다.



2019. 9. 20.



2019. 9. 20.

한동엽 엔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 / 그곳으로 가네 / 그대의 머릿결 같은 / 나무 아래로
-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중에서
가을 바람이 부는 곳 '방천시장'에 가면 김광석의 노래만큼이나 유명한 곳이 있지요. 맛집으로 소문난 방천 가족죽발입니다. 한동엽 엔젤님이 운영하고 있지요. 평일, 주말 관계없이 매일 직접 가게에서 손님을 맞다 보니 지난해 엔젤 가입식 이후 경기장 한 번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침 엔젤카가 방문하여 어렵게 한동엽 엔젤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일에 집중하다 보니 깜빡 잊고 있었다"며 "회원 역할을 제대로 못해 죄송하다."고 겸연쩍어했습니다. 엔젤카를 반가워하며, 지역과 대구축구를 위해 자그마한 힘이지만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경기장 가기는 힘들지만 뒤에서나마 늘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2019. 9. 20.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지상에 감동

지상에 / 이토록 아름다움을 / 세울 줄 아는 그는 / 얼마나 감동적인가!
- 시를 짓는 건축가 유응교
휴머니즘의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는 '위대한 건축가란 생명이 없는 돌덩이에 영혼을 불어넣어 빛 속에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시킨다'고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의 영감은 '시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에 많은 건축사들이 영혼을 불어넣어 이 세상에 아름다움을 짓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건축사분들이 개인적으로 엔젤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대구광역시건축사회(회장 공정섭)도 단체로 엔젤에 가입, 대구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축구의 도시' '엔젤의 도시'(City of Angel)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아름다움을 세우는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원님들, 그리고 나아가 개별적으로도 엔젤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엔젤 건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 9. 23

이은준 엔젤

추분秋分

님께서 오지 않으셨던들 가을이 올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 하중오 <추분> 중에서
낮과 밤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 이제부터 가을이 깊어질 것입니다. 엔젤 초기 멤버인 이은준 엔젤(SJ홀딩스 대표)님께서 추분을 맞아 후원금을 납부하며, 깊어가는 엔젤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은준 엔젤님 같은 초기 엔젤 멤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대구FC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주말마다 일이 생겨 경기장에 자주 찾지는 못하지만, 늘 축구 소식과 엔젤 소식은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장단을 비롯한 엔젤 회원님들의 열정에 늘 감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축구에 관심이 별로였지만, 엔젤로 인해 이제는 축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혹시 경기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뒤에서 묵묵히 후원 대열에 합류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2019. 9. 25.

최미경 엔젤

즐거운 편지

안녕하십니까! 다른 바쁜 사무가 많으실 텐데, 송구스럽습니다. 참여를 잘 못하고 있지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엔젤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최미경 드림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보다 감동적인 한 편의 편지입니다. 최미경 엔젤(법무사최미경사무소)님은 그동안 엔젤클럽의 법무 관련하여 무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라 늘 감사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쁜 업무로 엔젤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 사무총장 앞으로 메시지까지 보내서 또 한 번 감동을 주셨습니다. 축구를 잘 몰랐지만, 엔젤로 인하여 많은 기쁨과 감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2019. 9. 25.

이광해 엔젤

이때야말로 엔젤

바람이 불면서 은사시나무가 / 일제히 잎사귀를 뒤집어 팔랑이는데
이제야말로 은사시나무가 은사시나무일 때다
- 신현정 <은사시나무> 중에서
이름도 예쁜 은사시나무는 바람 불어 잎 뒤쪽이 팔랑거리면 은빛이 보이면서 제 이름값을 합니다. 모든 것, 모든 이름에는 바로 '때'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해 엔젤(아사다라 대표)님도 평소에는 깜빡깜빡하다가도 한 번씩 엔젤이 떠오르고는 하신답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엔젤이 엔젤일 때'입니다. 오늘도 깜빡하다가 엔젤의 의무를 기억하고는 바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은사시나무 이름처럼 멋진 이광해 엔젤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축구 수도'라 부르는 전주성을 넘기 위해 떠난 엔젤원정대 역시 '이때야말로 엔젤일 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엔젤 응원에 힘입어 '오늘이야말로 대구FC가 대구FC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엔젤원정대, 대구FC! 파이팅!



2019. 9. 26.

백서재 다이아몬드 엔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 먼 길 / 너와 함께라면 /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 아름다운 길
- 나태주 <먼 길> 중에서
전주까지는 제법 먼 길입니다. 하지만 엔젤원정대는 함께했기에 '가까운 길'이었고, 우리 선수들을 보러 가는 길이었기에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선수들도 난공불락의 전주성에서 승리하며 화답했습니다. 백서재 다이아몬드 엔젤(대영전자(주) 대표)님은 그 길에 함께 못하셨지만, 바쁜 중에도 틈틈이 중계를 통해 응원하면서 마음으로 '동행'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여전한 오늘, 잊지 않고, '명문구단 대구FC' 가는 길에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함께 가는 길, 엔젤이 가는 길, 아름다운 길입니다.



2019. 9. 27.

서기수 부부엔젤

화목한 마을 부부엔젤 1호

‘모두의 마음과 뜻을 함께 하는 화목한 마을’, 스페인으로 ‘인터불고’의 의미라고 합니다. 실제로 엔젤 사무국은 호텔인터불고 대구에 동지를 둔 이후로 따뜻하고 화목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서기수 엔젤(호텔 인터불고 회장)님의 남다른 배려 덕분입니다. 사무국 공간은 물론 관리비, 그리고 사무국 식구들의 식사까지 가족같이 챙겨주십니다. 특히, 서기수 엔젤님은 사모님과 함께 1호 부부엔젤로서 변함없는 대구FC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함께 엔젤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한 번씩 엔젤 사무국을 찾아 “불편한 게 없나요? 있으면 어려워 말고 꼭 이야기하세요.”라고 따뜻하게 말씀하고는 “요즘 대구가 잘하지요. 허허.”라며 저희와 함께 가족처럼 웃고는 합니다. 덕분에 엔젤 사무국은 다가올 겨울도 따뜻하고 화목하게 이 마을(인터불고)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2019. 9. 30.

강태중 엔젤

경이로운 나날

경이로울 것이라곤 없는 시대에 / 나는 요즈음 아침마다

경이와 마주치고 있다

- 김종길 <경이로운 나날> 중에서

아침에 엔젤카가 염치불고하고 불쑥 찾아왔지만, 강태중 엔젤(주)한도엔지니어링 대표)님은 급한 서류를 옆으로 미루시고는 참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마치 ‘경이로운 것’을 보신 것처럼 환영해주시니, 저희들도 ‘경이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축구와 강태중 엔젤님의 근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참 말씀을 듣고 보니 강태중 엔젤님은 우리가 사는 지역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경이로운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울러 대구FC와 엔젤클럽이 견고 있는 이 경이로운 나날들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2019. 10. 7.

이명현 엔젤

축포를 쏜다!

언어가 아닌 것을 / 주고받으면서 / 이토록 치열할 수 있을까 (중략)
운동장에 가득히 쓴 눈부신 시 한 편 / 90분 동안 / 이 지상에는 오직 발이라는 / 이상한 동물들이 살고 있음을 보았다

- 문정희 <축구> 중에서

요즘처럼 축구를 보면서 이렇게 감동받을 때가 있을까요? 지난해 FA컵 우승에 이어 올해에도 대구FC의 파이널A(스플릿A)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4위에 오른 것은 그야말로 한 편의 눈부신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맞춰 이명현 엔젤(주)동광명품도어 대표)님께서도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이명현 엔젤님은 평소 점잖은 성품대로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축구에 대한 사랑만큼은 깊습니다. 파이널A 진출을 기반으로 내년에도 ACL 진출을 기원했습니다. 이 지상에 오직 ‘엔젤’이라는 ‘축구천사’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 10. 10.

서정욱 엔젤

생각의 힘

생각에도 층이 있다.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깊이 변화하고, 얇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티끌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 김상운 <왓칭> 중에서

회사 슬로건으로 ‘나는 생각을 만든다’를 내건 서정욱 엔젤(주)MSC 대표)님은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하며, ‘엔젤’이라는 ‘생각’이 결국 오늘의 대구FC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이야 대구FC라고 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지만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민 후원천사 엔젤클럽’을 생각한 것이 결국 큰 변화로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천한 것도 엔젤의 큰 힘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느라 바쁜신 와중에도 후원금을 납부하며, 엔젤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엔젤의 ‘장기적인 생각’은 ‘명문 자립 시민구단’이며, ‘올해 생각’은 ‘ACL 진출’입니다. 엔젤 여러분 모두 깊은 마음으로 생각을 만들어주십시오.



2019. 10. 2.

박성호 엔젤

가슴 축축한

가을비는 / 외투보다 가슴을 먼저 적신다 (중략)

발길보다 마음이 먼저 젖는다

- 김시탁 <가을비> 중에서

가을비 속에 엔젤카는 오늘 마음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박성호 엔젤(금강운수(주) 대표)님이 그랬습니다. 박성호 엔젤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별도로 시간을 내어 엔젤카를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아이 셋, 거기다 세 살배기 아이로 인해 경기장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대구FC 순위, 스코어 등 모두 잘 알고 계셨습니다. 대구FC의 파이널라운드 선전을 응원하며 또 한 번 마음을 적셔 주셨습니다.



2019. 10. 11.

김세중 엔젤

시월

친구 만나고 / 올 밖에 나오니 / 가을이 맑다 / 코스모스

- 피천득 <시월> 중에서

가을입니다. 반가운 사람 만나고 오는 길은 맑습니다. 매일매일 엔젤카를 타고 반가운 분을 만나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돌아오는 길도 맑습니다. 코스모스 핀 가을길을 걷는 것처럼, 행복합니다. 이 가을에 다시 오신 김세중 엔젤(비즈니스 컨설턴트)님 반갑습니다. 예전에 엔젤카에 초미세먼지 배기가스와 관련된 공기청정기를 기증해주기도 하셨지요. 늘 감사드립니다. 엔젤님들께서 대구FC에 보내주시는 사랑과 후원은 대구축구뿐만 아니라 대구를 바꾸는 힘입니다. 가을처럼 넉넉합니다. 엔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분 많이 만나고, 맑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9. 10. 14.

성달표 엔젤

오래된 인연

현명한 사람은 / 옷자락만 스쳐도 / 인연을 살릴 줄 안다.

— 피천득 〈인연〉 중에서

우리는 '축구'를 통해 인연을 맺었습니다. '대구'를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엔젤'로 감동을 만들어갑니다. 경기가 열리지 않아도 엔젤은 매일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성달표 엔젤(주)현대통상 회장님께서도 엔젤의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달표 엔젤님은 지난 2013년에도 대구FC에 자동차 경품을 후원하는 등 대구FC와 오래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재하 다이아몬드 엔젤(대구상공회의소 회장)님의 추천으로 엔젤에 가입, 엔젤이라는 또 다른 인연으로 대구F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달표 엔젤님은 평소에도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사명감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및 이웃돕기 성금, 체육진흥기금 등으로 매년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해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고 합니다. 현명하신 엔젤 여러분! 좋은 인연에 감사합니다.



2019. 10. 18.

이경호 엔젤

'엔젤'이라는 호칭

자주 불러 세우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거나 사라지는 / 호칭 오늘은 오랜만에 내가 나를 부르며 / 얼굴 한 번 보아야 되겠다

— 이권 〈호칭〉 중에서

우리는 많은 '호칭'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어머니에서부터 회사와 각종 단체에서 불리는 호칭들. 수많은 호칭은 삶의 스펙트럼과도 같습니다.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고 헛갈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마음 달는 호칭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친환경 소재를 생산하는 이경호 엔젤(주)한길산업 대표)님은 이미 오래전에 박기자 엔젤로부터 추천받았으나, 이래저래 여의치 않아 '엔젤'이라는 호칭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무국 연락을 받고 곧바로 가입하고 후원금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가을축구 축제가 시작됩니다. 엔젤이라는 호칭이 제격입니다. 풍요로운 엔젤의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가장 어울리는 호칭은 '엔젤'입니다. 이경호 '엔젤'님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추천해주신 박기자 엔젤님! 고맙습니다.



2019. 10. 15.

이명욱 엔젤

대박에 가고 싶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 정현종 〈섬〉 중에서

정현종 시인은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운 섬입니다. 엔젤 사이에도 섬이 있습니다. 대박이라는 섬입니다. '대구 동화'가 있는 감동의 섬입니다. 엔젤이 함께 모여 깃발 흔들고 기쁨을 함께 하는 낭만 가득한 곳입니다. 스킨스쿠버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이명욱 엔젤(주)이원 대표)님은 필리핀 등 해외로 자주 나가 이국적인 섬들의 바다를 찾아다니지요. 이명욱 엔젤님에게는 또 다른 섬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FC의 감동 스토리가 있는 동화 같은 섬입니다. 이명욱 엔젤님은 해외 출장이 많아 바쁘지만, 시간만 나면 낭만의 섬 대박을 찾습니다. 엔젤들 사이에는 '섬'이 있습니다. 대구 동화, 엔젤 동화가 있는 감동의 섬입니다.



2019. 10. 17.

김대현 엔젤

오래 속삭여도 좋은 사람

오래 속삭여도 좋은 이야기

— 이은규 시인의 시집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김대현 엔젤(롯데 갤러리움 웨딩홀&뷔페 대표)님! 주말이면 늘 부산에 계시지요. 마침 주중에 대구에 올라왔다가 선배 김중두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남자들이 뭐 특별히 할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도 김중두 사무총장은 오랫동안 속삭입니다. 엔젤 이야기에 그침이 없습니다. 그래도 좋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듣다 보니 김대현 대표님도 엔젤이 된 듯했습니다. 두말 않고 그 자리에서 엔젤 가입하고, 후원금까지 입금해버리십니다. 부산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올해 방천아트페스티벌 축제 준비위원장까지 맡아 대구를 위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오래 속삭여도 좋은 이야기, 오래 들어도 좋은 이야기, 엔젤 이야기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2019. 10. 21.

박순하, 이병훈, 김영식 엔젤

엔젤의 박수

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사람보다 넘어졌다 일어나 다시 달리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 벤저민 디즈레일리

경기력은 좋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제 경기가 그랬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럴 때일수록 엔젤들의 진심 어린 박수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쉬운 경기 결과에도 오늘 오전에 여러 명의 엔젤께서 소리 소문 없이 후원금을 납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바쁜 일로 경기장을 자주 찾지 못함을 미안해하면서 멀리서나마 응원하는 엔젤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박수 소리'는 더욱 감동이 있습니다. 늘 대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박순하 엔젤(코너스톤자산운용(주) 대표)님, 2016년 엔젤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가입하며 애정을 보여주신 이병훈 엔젤(자문위원(주)대구스텐레스 대표)님, 요즘 일로 인해 타 지역에 많이 다니는 탓에 대박을 찾지 못한다는 김영식 엔젤(영진전공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들이 선수들이 잘 싸워줬다며, 후원금 납부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엔젤의 박수 소리에 선수들이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달릴 것입니다. 엔젤의 진심이 느껴지는 월요일입니다.



2019. 10. 22.

허진구 엔젤

자랑스런 아버지

태양빛을 경험한 사람은 작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 작가 김병완

시원시원한 외모의 허진구 엔젤(주)일성건설 대표)님은 막상 엔젤카가 방문하자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으로부터 추천받았지만, 미처 엔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양빛처럼 뜻깊은 엔젤의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이라며 즉석에서 엔젤 가입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사무실에 방문한 거래처 대표님을 불러 엔젤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가입을 추천하기까지 했습니다. 직접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는 데다 아들도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며 다음 홈경기에 꼭 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엔젤이 된 것을 아들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간이 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2019. 10. 22.

배장수 1호 엔젤

엔젤에 ‘인’이 박인 사람들

그 맛들은 내 정서의 밑바닥에 인 박여 있다.

— 김훈 《라면을 끓이며》 중에서

점심시간이 끝난 뒤, 갑자기 엔젤 사무국 문이 ‘휙’ 열리면서 내 집처럼 반가운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1호 엔젤 배장수(진명전력(주) 대표)님입니다. “파이널라운드에는 강팀과 맞붙는 만큼 엔젤이 더욱 힘을 넣어줘야 됩니다.”며 오신 김에 후원금까지 납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엔젤에 ‘인’이 박인 분이시요, 점점 엔젤에 인이 박인 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못하는 입맛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자연스레 자리하고 있지요.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인’입니다. 그리하여 그 바쁘신 분들이 2군 경기까지 찾아다니며 미래 대구FC 선수들을 응원하는 무서운(?) 인이기도 합니다.



2019. 10. 23.

신승호 엔젤

엔젤의 선서

“우리가 엔젤임을, 우리의 자유의사로, 우리의 명예를 걸고 선서합니다.” DGB대구은행파크 인근 폐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 선서인더가든 신승호 회장(그린그래스(주)선서오메가3, 사진 오른쪽 두 번째)님이 엔젤에 가입, ‘축구사랑을 통한 대구사랑’을 선서하셨습니다. 미국적인 분위기의 스테이크&비어 하우스인 선서인더가든은 선서라는 이름부터가 색다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신뢰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실제로 신승호 회장은 정직함을 바탕으로 친환경, 건강한 일류식품을 모토로 걸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이 대세임을 알고, 이번에 대구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했습니다. 특히, 엔젤클럽의 취지에 공감하고 곧바로 가입, 지난 10월 20일 홈경기 관람하고, 엔젤과 함께 선서인더가든에서 뒷풀이를 했습니다. 맥주는 ‘엔젤비어’의 주인공 문준기 엔젤님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9. 10. 23.

하승우 엔젤

행복의 또 다른 이름

행복은 품과 같습니다. 품은 사방천지에 다 있어요. 행복도 그렇고요.

— 박웅현 《여덟 단어》 중에서

얼마 전 방천시장 앞을 지나다 ‘하승우내과’라는 간판을 보고 하승우 엔젤님을 찾았습니다. 오후 막바지 진료 중인데도 하승우 엔젤님은 어려운 시간을 내어 맞아주었습니다. 피곤할 만도 한데 사진의 표정처럼 정말 밝고, 맑아 보였습니다. 비결이 뭘까 하다 뒤쪽의 액자를 보았습니다. ‘환자의 행복이 나의 행복’. 행복한 곳, 행복한 시간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곳이 행복이었습니다. 엔젤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었기에 사무실로 복귀하는 내내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후원금이 아니라, 그날의 행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행복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승우 엔젤님! 오늘도 행복의 의미를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엔젤이 행복하면, 대구도 행복합니다.



2019. 10. 29.

이복희 엔젤

시월의 엔젤

아무 것도 없이 그냥 /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아름다운

단풍잎 같은 사람 하나 만나고 싶어질 때

— 나희덕 《가을에 아름다운 사람》 중에서

요즘 시간 나면 지난 엔젤 매거진 넘겨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보였던 분, 또 사무국으로 오신 분, 경기장에서, 행사장에서, 거리에서 만난 엔젤님들이 환한 얼굴로 책 속에 자리하고 있어 따뜻해집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 속 찾아보였던 이복희 엔젤님의 사진도 매거진에 실려 그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가을잎을 책갈피처럼 끼워보니 추억의 사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복희 엔젤님도 10월이면 언제나 엔젤을 기억하지요, 바쁜 일정으로 경기장에 나오지 못했지만, 올해로 네 번째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지요, 시월의 끝자락, 가을이 깊어갑니다. 엔젤의 사랑도 깊어집니다.



2019. 10. 30.

서정원 엔젤클럽 부회장

있있이 대구사랑

나무는 할 말이 많은 것이다 / 그래서 있있이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다
- 이상국 <단풍> 중에서

엔젤 사무국이 있는 호텔인터불고 대구 인근의 나무 있있이 가을이 깊어집니다. 단풍나무도 할 말이 많은 듯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늘 그 단풍나무 사이를 지나 서정원 엔젤클럽 부회장(주)대선 대표님이 찾아왔습니다. 해외 출장 가기 전 잠시 둘러서, 마음속에 담아 둔 대구FC에 대한 사랑의 말들을 한참이나 풀어 놓고 갔습니다. 서정원 부회장은 오래전부터 광고매체를 통해 대구FC를 후원하고 있지요. 더군다나 오늘 해외로 나갔다가 급하게 경기 당일인 11월 3일 귀국해 대박으로 곧장 온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대구FC 사랑꾼입니다. 그래서 단풍 있있이 가을이 깊어지나 봅니다.



2019. 10. 31.

김범헌 엔젤

시월의 마지막 날

시월의 마지막 날 선한 웃음 가득한, 내 사랑의...

- 성두현 <시월의 마지막 날> 중에서

시월의 마지막 날,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30'하고 '1'이란 숫자가 그렇고, 해마다 습관처럼 읊조리는 유행가 가사에 나온 선클이 그렇습니다. '잊혀진 계절'이 아니라 '선물 같은 계절'입니다. 덤이 아니라, 가을을 더 아름답게 하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 같은 날에 선한 웃음 가득한 김범헌 엔젤(주)한라이엔씨 대표)님께서 후원의 뜻을 보내주셨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1세대인 김범헌 엔젤님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해 지역 봉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월의 마지막 날! 엔젤 여러분께서도 선한 웃음 가득한 얼굴로 선물 같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9. 10. 31.

조만현 엔젤클럽 부회장

날마다 가슴 뭉클!

'뭉클'. 많은 엔젤님들이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바쁘신 중에서도 잊지 않고 우리 대구FC 선수들에게도 그 뭉클함을 선사하고 계시지요. 조만현 부회장(주)동우씨엠그룹 회장)님도 이번에 2019~2020 국제로타리 3700지구 총재로 정말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를 연결하는 로타리'라는 테마처럼 국내외로 가슴 뭉클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만현 부회장님이 올해도 잊지 않고, 대구FC 선수들에게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시월의 끝자리! '뭉클'함으로 마무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 11. 1.

류상무 엔젤

11월의 첫 엔젤

만물을 거두어들이는 달

- 테와 푸에블로 족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11월을 '만물을 거두어들이는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 엔젤도, 대구FC도 11월 많은 것을 거두어들이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축구팬이었던 류상무 엔젤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류상무 엔젤님은 올해 모든 경기를 놓치지 않고 다 봤다고 합니다. 대박 E석에서 반대편 엔젤석의 엔젤 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침 전용철 엔젤님으로부터 엔젤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 흔쾌히 가입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엔젤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감흥이 남다르신 것 같았습니다. 만물을 거두어들이는 11월에 첫 엔젤이 되신 류상무 엔젤님, 그리고 추천해주신 전용철 엔젤님 감사합니다.



2019. 11. 6.

김동국 엔젤

엔젤과 함께 한 점심식사

더 나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 고수유 <워렌버핏과 함께 한 점심식사> 중에서

깡깡한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모 대학 앞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동국 엔젤(DK글로벌코리아 대표)님과 함께였습니다. 마침 교내에 있는 사무실에 들렀다가, 가을이 뚝뚝 떨어지는 교정을 지나 푸짐한 돈가스 집에서 점심까지 함께 했습니다. '좋은 분'과 함께 하는 행복한 식사만큼 좋은 반찬이 있을까요? 수십 억을 호가하는 워렌버핏의 점심식사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바로 '엔젤과 함께 한 점심식사'입니다. 후원금도 납부하고, 밥도 사주고 환한 웃음도 같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일이 바빠 경기장을 찾지 못했지만, 마지막 홈경기는 꼭 오기로 하셨습니다. 추천할 좋은 분과 함께 오신다고 합니다. 좋은 분과 함께하는 것은 이래저래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대구FC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점심식사와 웃음! 감사합니다.



2019. 11. 6.

배문구 엔젤

엔젤의 수염

역새꽃은 맹세한다

백발의 수염이 되겠다는 것

가을이면 너희들은 쓸쓸하냐

철학자의 자세가 시작이어서 같이 걸어보는 것

그의 수염을 보면 충만함과 여백의 행간을 사랑하게 되지

- 정일남 <철학자의 수염> 중에서

오늘 아침, 멋진 흰 수염을 한 배문구 엔젤(승창침장 대표)님이 조찬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본인은 바빠서 물결이 말이 아니라고 했지만, 모두들 멋진 수염에 놀랐습니다. 손 코넬리의 멋진 수염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철학자의 흰 수염 같은 배문구 엔젤님의 등장은 단연 화제였습니다. 가을 역새꽃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수염에 깊은 눈을 하고서는 "그동안 바빠서 회의에도 못 나왔는데 모두들 대단하시다."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데 <철학자의 수염>이라는 시처럼 가슴이 충만했습니다. 시민구단 대구FC에 대한 사랑도 역새꽃처럼 해마다 피었습니다. 이 가을 역새꽃 같은 흰 수염, 멋졌습니다.



2019. 11. 8.

조장형 엔젤

엔젤의 온도

입동立冬입니다. 그러나 엔젤의 온도는 더욱 열기를 뿜어냅니다. 엔젤의 열기는 '축구사랑, 대구사랑'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열기는 조장형 엔젤(나래피움 대표)이 지퍼주셨습니다. 사무실이 엔젤 사무국과 가까워 지나칠 때마다 들리곤 합니다. 외근 업무가 많아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한 번 보면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맞아주시지요.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경기장에는 자주 못나가지만 대구FC 성적과 일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성적에 만족해 하며 이대로만 가면 명문구단 되는 길도 머지않았다고 했습니다. 2019년 후원금을 납부하면서 2020년에는 꼭 동참해서 대구축구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절은 겨울의 문턱이지만, 엔젤의 겨울은 따뜻하기만 합니다.



2019. 11. 11.

변창훈 엔젤

가을 대추 익어가듯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 장석주 <대추 한 알> 중에서
가을이 깊어지며 들판의 대추알도 여물어 붉어집니다. 그냥 붉어질 리가 있을까요? 올 들어 승승장구하는 대구FC와 엔젤클럽도 그냥 여물지 않았습니다. 패배와 승리, 그리고 좌절과 환희. 그것이 오늘을 있게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엔젤님들의 사랑도 그중 하나입니다. 변창훈 엔젤(대구한의대학교 총장, 사진 왼쪽)님의 사랑도 자연의 위대한 힘처럼, 대구FC를 더욱 여물게 할 것입니다. 시즌 막바지입니다. 수원삼성의 FA컵 우승으로 우리의 바람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ACL 진출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 안에 엔젤의 사랑, 기도, 응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변창훈 엔젤님의 사랑과 성원이 우리의 꿈을 익어가게 할 것입니다.



2019. 11. 29.

이석우 엔젤

그 사람

잠깐 닿았어도 깊게 번져가는 사람 (중략)
나의 긴 여행 끝에 마중 나와 준 사람
그리고 다시 반환점이 되어주는 사람
잊혀지지 않는 사람
— 한가은 <한사람> 중에서
이석우 엔젤(주)삼진씨앤씨 대표)님은 2016년 엔젤에 가입한 소위 '고침' 엔젤이지요. 2016년 당시 엔젤 행사에 참석하여, 엔젤과 인연을 맺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깊게 깊게 번져가는 분입니다. 보이는 모습은 젊지만, 언제나 반환점이 되어주는 사람, 잊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해마다 변함없이, 올해로 4년째 후원금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11월이 저물어 가는 마지막 금요일 대구FC 선수들에 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9. 12. 2.

문순홍 엔젤

12월입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중략)
두툼했던 달력의 / 마지막 한 장이 걸려 있는 / 지금 이 순간을
보석같이 소중히 아끼자
— 정연복 <12월> 중에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아, 더욱 더 보석같이 소중한 12월입니다. 아쉬움도 있겠지만, 엔젤클럽은 보다 먼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의 뒷모습은 끝이 아니라, 새해로 가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어느덧 달력이 한 장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순홍 엔젤(찰스크라운코리아 지사장)님께서 엔젤의 의무를 다하면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남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알차게 새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2019. 12. 3.

김형동 엔젤

당신이 선물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안은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 나태주 <선물> 중에서
대구FC의 오늘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바로 김형동 엔젤님입니다. 지난 대구체육진흥과장 재임 시절 축구전용구장과 대구FC 운영, 그리고 엔젤클럽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겨서도 변함없는 애정을 갖고 계셨고, 엔젤로도 가입해 또 다른 대구FC 사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FC를 위한 엔젤 후원금 외에도 엔젤클럽 운영을 위하여 사비를 털어 지원해주셨습니다. 언제 봐어도 웃는 모습, 긍정적인 말씀으로 희망을 주셨던 김형동 엔젤님이 바로 선물입니다.



2019. 12. 4.

김종철 엔젤

참사람

참나무 / 그리고 참사람 /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가만히 눈을 감고 싶다는 / 시인의 마음을 알 것 같다
— 박노해 <참나무의 숲에서> 중에서
'참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엔젤에 많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 엔젤분들이 숲을 이룹니다. 바로 참나무 숲 같습니다. 사진으로만 봐어도 '참 좋은' 김종철 엔젤(신흥버스(주) 대표, 사진 가운데)님께서 엔젤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FC의 시즌은 끝났지만, 엔젤의 시즌은 끝이 없습니다. 자주 경기장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대구FC를 챙긴다고 합니다. 참사람! 참엔젤!

Angel Club SNS 접속방법



카카오톡 접속방법

QR코드 검색 또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1.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 검색창 터치
2. 검색창에서 **대구FC 엔젤클럽** 입력
3. 친구추가 버튼 [+] 클릭 후 소식 받아보기



인스타그램 접속방법

QR코드 검색 또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1. 인스타그램 상단에 있는 🔍 검색창 터치
2. 검색창에서 **대구FC 엔젤클럽** 입력
3. 팔로우 버튼 **팔로우** 클릭 후 소식 받아보기



페이스북 접속방법

QR코드 검색 또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1. 페이스북 상단에 있는 🔍 검색창 터치
2. 검색창에서 **대구FC 엔젤클럽** 입력
3. 좋아요 버튼 [👍] 클릭 후 소식 받아보기



대구FC엔젤클럽 임원단이 대구FC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대구FC가 걷는 **꽃길**을 위하여!



대영에코건설(주) 이호경 회장



세영회계법인 강병규 운영본부 상임부회장



(주)태준메디칼 엄태건 엔젤본부 상임부회장



(주)JID 김완준 엔시오본부 상임부회장



동명테크원(주) 심인철 상임이사



(주)애드앤피알스미스 이태훈 상임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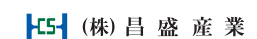
(주)다원아이디 정영준 상임이사



뉴스웨이 대구경북본부 강정영 상임이사



(주)대영씨앤디 송원배 상임이사



(주)창성산업 정소영 상임이사

Diamond Angel

대구FC엔젤클럽, 대구FC와 영원히!



이재하
삼보모터스(주)



진영환
삼익THK(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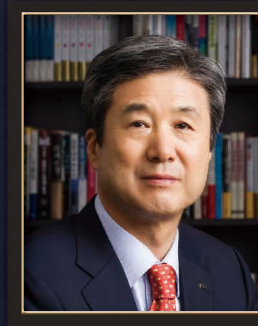
조종수
(주)서한



정태일
한국OSG(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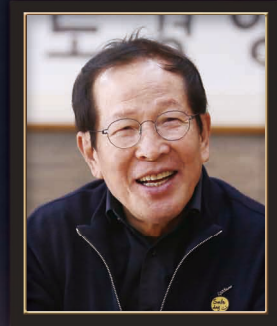
김동구
금복주



이충곤
SL그룹



백서재
(주)대영전자



권원강
교촌그룹



김상태
평화정공(주)



성점화
(주)뉴프라임



문경화
하얀얼굴예뻐몸매(주)로로피아니



박진현
(주)홀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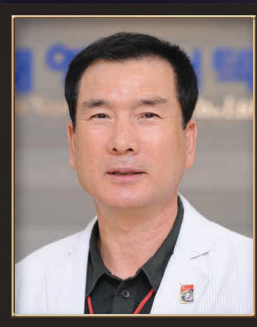
진덕수
대흥코스텍(주)



이익재
(주)세신정밀



노기원
(주)태왕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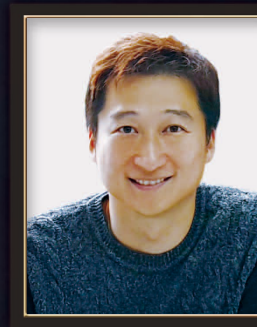
정태호
대영코어텍(주)



김옥열
(주)화신



이기환
거한건설(주)



박종규
(주)구구스 영남

— New Diamond Angel —



엔젤클럽 자문위원

권오섭 청구푸드시스템	김성열 (주)아나	김영채 안경회계법인	김충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도재영 주식회사 웅진기업	박명수 명진금속	박병구 전 대구미술협회장	박순복 대가대 미래포럼 리더스 클럽	반용석 반치과
송준기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지사	엄달현 대창엠코	이병훈 대구 스텐레스	장익현 장익현 변호사 사무실	주대중 함창교육재단
천자우 (주)에슬린	하윤수 한국공조	하춘수 대구가톨릭대학교	허홍만 명성골프	장병배 상인성당

엔젤클럽 상임부회장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김완준 (주)JID	엄태건 (주)태준메디칼
---------------	---------------	-----------------

엔젤클럽 홍보사진자문단

김홍만 엔젤클럽 홍보사진작가	박익진 엔젤클럽 홍보사진작가	유병완 엔젤클럽 홍보사진작가
--------------------	--------------------	--------------------

엔젤클럽 부회장

권석원 동진건설(주)	김재홍 대호약품	김주성 광개토병원	김현만 서원종합건설	박동규 (주)한국디자인모형
박해대 미래테크	배성혁 DIMF 조직위원장	서정원 (주)대선	신용범 한미산업	윤태경 바로본병원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이승현 (주)동서개발	조만현 (주)동우씨엠건설	황종길 성신내장건설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명	회사명
강민정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강병균	에나멜치과 기공소
강병호	(주)신경일염직
강보철	일진수지
강삼동	(주)에이치
강성길	(주)디자인비전
강성민	
강신일	대영리츠건설(주)
강윤석	(주)조안
강은주	한국일보
강의원	(주)일신건설엔지니어링
강일규	대서산업(주)
강일만	(주)세신엔지니어링
강정숙	(주)동재건설
강정영	뉴스웨이 대구경북
강종구	현대코퍼레이션(주)
강준기	(주)포머스
강철원	(주)에일커뮤니케이션즈
강태중	(주)한도엔지니어링
강해구	(주)경민테크
강환수	(주)덕산코트랜
건축사협회	
고경아	
고경집	
고민환	(주)상산건설
고백희	(주)디자인 감
고삼규	보광병원
공영우	동성건재판매(주)
공윤옥	선진회계법인
공인옥	(주)백향에스엔피
공제영	(주)신성건설
곽기철	지우씨앤디
곽덕섭	(주)태명개발
곽동호	곽치과병원
곽신혁	에코팜영농조합법인
곽재훈	(재)운경재단

성명	회사명
곽종준	메리츠화재(KMI에셋)
곽준성	삼성전자
곽진섭	(주)금오조경개발
구건우	PR네트웍스
구명임	(주)크린포시스템
구미숙	
구본탁	스마일약국
권경훈	강북연합정형외과
권 광	행복을 심는 치과
권대열	(주)부원
권병규	(주)화인산업
권병균	행복을 심는 치과
권상현	흥천사
권석원	동진건설(주)
권성숙	바로연 대구지사
권승진	인터불고컨트리클럽
권시원	(주)중산도시개발
권 업	(재)대구테크노파크
권연숙	
권영갑	(주)EMS
권오길	한성건설(주)
권오복	(주)진명엘앤씨
권오상	권오상 법률사무소
권오상	(주)대광솔라
권오순	(주)디에스시스템
권오춘	(주)아름다운건설
권유미	서양화가
권일경	(주)위드
권장대	(주)세화정공
권재원	(주)아우노
권재행	한국다문화재단
권주택	(주)갑산전기
권준호	권준호 법률사무소
권태경	태형기공
권혁기	(주)산동개발
권혁준	요셉성형외과의원
권호겸	(주)풍림

성명	회사명
금윤식	(주)골든브릿지
김갑태	동화주택건설
김강수	푸르덴셜생명
김경록	신도대구사무기
김경미	
김경태	리더스금융판매(주)
김고용	(주)명종스틸
김광덕	명진BS치과
김광배	대영에코건설(주)
김광수	(주)한맥창호
김국경	(주)세영디앤씨
김규일	(주)세원이엔지
김규정	삼성생명
김규혁	(주)포워즈시스템
김기섭	덕수복지재단 미소마을
김기완	
김기철	
김기현	(주)기남금속
김길생	(주)동화주택
김남호	더원창호
김나나	세영회계법인
김대경	
김대엽	(주)대영일루션
김대진	
김대현	롯데 갤러리움 웨딩홀 앤 뷔페
김덕영	성서연합외과의원
김도현	(주)한국신재생에너지
김동국	DK 글로벌 코리아
김동규	(주)범서
김동섭	대구가톨릭대학교
김동연	우성디엔에이
김동용	
김동우	월드퍼스트
김동읍	
김동재	골마켓 대구점
김동조	
김만휘	(주)뉴욕바닷가재



성명	회사명
김말분	
김명수	(주)대남건설
김명용	(주)명성
김명웅	DGB생명 AM사업부
김명일	명일이앤씨
김명준	올플디앤씨
김명진	한신타스가스
김묵진	대전지방검찰청
김미경	
김미숙	주원
김민석	(주)서한
김민선	
김민태	제이와이 건설
김범일	전 대구광역시장
김범헌	(주)한라이앤씨
김병오	필즈학원
김병찬	건축사무소한동
김보성	(주)가온메디칼
김상길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구지사
김상덕	부경TS
김상섭	티브로드 대구방송
김상섭	대구신문
김상수	청운신탁
김상수	히아브하나(주)
김상완	(주)한백종합기술공사
김상우	세무법인 대한
김상원	부호케어원(주)
김상호	(주)내일건설
김상훈	모던테크
김 석	(주)삼덕아스콘
김석호	한도식품(주)
김선일	(주)상일종합관리
김성곤	바르미 호텔인터불고 대구
김성관	(주)이슬나라
김성덕	소프탑코리아
김성렬	(주)대성건설
김성욱	유도리

성명	회사명
김성은	(주)다무산업개발
김성준	(주)지엔비모터스
김성호	(주)오상인터네셔널
김성호	성산종합건설(주)
김세중	천공산업개발
김세중	비즈니스컨설턴트
김송호	티브로드
김수범	(주)성산종합건설
김수현	대성건설
김숙현	(국)세원공인중개사
김순덕	(주)신영도시개발
김순조	삼성생명
김승근	대구일보
김승우	KS상사
김승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김승필	삼성프린팅솔루션
김시보	백두산업
김애경	
김양숙	교보생명
김양우	(주)티앤지코리아
김연창	
김영규	김영사종합상사
김영만	홀인원 로스트볼
김영숙	대구보건대학교
김영식	영진전공
김영식	굿락코리아
김영업	지디종합건설(주)
김영주	(주)경북합판
김영준	
김영택	일월건설
김영화	영화
김영희	구병원
김오동	명신종합건설(주)
김완준	(주)JID
김용규	(주)창녕참우축산
김용범	(주)에스알
김용봉	(주)와이쓰리

성명	회사명
김용식	(주)청맥산업
김용운	(주)태하시스템창호
김용찬	(주)보광건설
김우일	(주)김샘교육
김원수	세무사김원수사무소
김원은	우경정보기술(주)
김윤곤	부성주식회사
김윤찬	CREDIT AGRICOLE Investment Bank
김익수	(주)화산종합건축개발
김인수	대호화학산업
김인식	
김재범	선진회계법인
김재식	(주)디아이컴
김재엽	(주)하우스탑디앤씨
김재우	(주)삼일기업
김재우	대양정밀
김재울	(주)영림INT
김재필	(주)주안디앤씨
김재필	산록도시락
김재혁	잉글리쉬 유나이티드
김재홍	대호약품
김정달	현대동구서비스
김정미	멀티애드
김정수	경북대학교병원
김정수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김정철	경북대학교모발이식연구센터
김정현	백년밥상
김정희	김정희 건강피부관리실
김종구	로즈마리 여성산부인과
김종선	세광종합상사
김종원	금아의수족연구소
김종철	신흥버스(주)
김종호	(주)우인바스텍
김종호	(주)케이원
김종희	김종희플로라
김주성	광개토병원
김주현	(주)신안피피

성명	회사명
김주형	(주)웨딩쿨
김주환	(주)경안플랜트, (주)경안솔라
김준현	지에이코리아
김준현	세무법인 대명
김준현	가람건축사사무소
김종곤	인슈미디어그룹
김종곤	ADT캡스
김지건	
김지관	(주)그린하니컴
김지미	(주)시마
김진기	영문산업건설
김진성	푸르덴셜생명
김진수	엔에이골프(주)
김진수	(주)천우
김진엽	송산엘앤씨
김진일	(주)무창산업
김진태	팔공인터네셔널(주)
김창호	
김창희	
김치호	(주)도영전설
김태건	골프원
김태균	(주)에디커뮤니케이션즈
김태길	피앤에이
김태수	대구자동차정비조합
김태호	공간포유
김태훈	(주)태경건설
김판권	(주)명산
김한수	마이스산업연구원(주)
김해용	인덕염공(주)
김현만	서원종합건설(주)
김현철	에인에이(주)
김형동	대구시설공단
김형식	(주)동인전력
김형찬	울트라메탈
김호용	(주)건강누리
김홍근	건축사사무소 ADF
김홍대	한샘인테리어 전자관점

성명	회사명
김홍석	디지털 신세기
김홍식	TBC
김휘중	
김희곤	연세재활요양병원
김희동	크리에이티브박스디자인
김희찬	PEGDYCCO
나경성	엘리바덴 온천
나경윤	남부스타코
나재승	모나코스토리
남경원	(주)경원덴탈
남규동	디에이치지(주)
남병환	
남재현	(주)러버원
남호영	(주)청운이앤지
노규영	(주)명일품
노병수	영남일보
노승권	형산기업
노승희	SGI구미지점 미주대리점
노영균	조은의원
노현영	코리아와이드경북
노혜영	
농협두류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대구지역총국
농협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대구지역총국
대한전문건설협회	
도문경	
도상현	
도원호	해성정공
도윤수	파사디골프
두준옥	
라병희	
류광열	(주)원재산업
류상무	호웅산업(주)
류시장	
류영애	류영애세무회계사무소
류효충	신라산부인과
류 훈	(주)중앙세라믹스

성명	회사명
모미영	
문길남	(주)신세계건설
문순홍	찰스크라운코리아
문영일	(주)태흥
문재혁	(주)동아티오엘
문종혁	(주)동화건설
문준기	대경맥주(주)
문현훈	덕영치과 기공소
문홍국	뉴부림고속관광(주)
문희갑	전 대구광역시장
민재철	(주)뛰는아이들
민춘홍	(주)한국파이프
박건철	
박경국	(주)성우아이디건설
박경식	이원의료재단
박경우	(주)현창건설
박경진	(주)해나씨앤디
박경환	변호사박경환법률사무소
박관식	명진BS치과
박근백	(주)엠엑스
박금화	서리벌대학교
박기양	
박기원	아트건업
박기자	(주)무영
박길상	남북의료기상사
박대진	(주)리체바이오
박동규	한국디자인모형(주)
박동술	성동제통의원
박두천	경북대학교병원
박두한	경북비닐마트
박래석	(자)삼우전자통신
박명규	(주)우진설비
박민주	
박민천	(주)다운PLUS
박병욱	(주)달인식품
박병준	에이치씨보광
박상열	박상열세무회계사무소



성명	회사명
박성묵	대광문화인쇄
박성수	신화헬스&의료기
박성욱	(주)삼송BNC
박성준	
박성진	(주)꿈그린
박성호	금강운수(주)
박성호	
박성훈	피닉스건설
박성희	(주)AK메디
박소민	디자인그린
박소이	미래테크(주)
박순하	코너스톤자산운용(주)
박승국	이시아요양병원
박승현	
박승환	(주)처갓집 통닭
박언희	박언희종합내과
박영석	대구문화재단
박우용	(주)대산라이팅
박우호	세영회계법인
박원진	가인건설
박윤경	케이케이(주)
박윤희	(주)우경정보기술
박익진	엔젤클럽홍보작가
박인호	(주)삼영이앤티
박재현	(주)신우씨엠디
박정민	(주)칸여행사
박중철	(주)우일건설
박중호	삼정종합폐차장(주)
박중화	(주)세보종합건설
박주현	대구과학대학교
박준곤	(재)송곡문화장학재단
박준규	(주)이노베이션
박준섭	변호사박준섭법률사무소
박중희	TS스틸
박지훈	고령축산물공판장
박진	진보상사
박진숙	동일가구

성명	회사명
박진우	(주)효성종합건설
박진향	(주)어번라이팅
박진환	유에이디
박찬벽	(주)경북프린팅
박찬원	문경시축구협회
박찬직	미성회계법인
박찬학	대구광역시
박창훈	선경산업
박철형	한빛에너지(주)
박춘선	네네치킨 대구경북서부지사
박춘영	인터볼고컨트리클럽
박태민	뮤직라운지 펜트하우스
박태범	삼성생명보험
박태영	(주)케이아이티
박태정	(주)주원조경
박특환	박특환세무회계사무소
박한상	KBI메탈(주)
박한석	팔공 컨트리클럽
박해대	미래테크(주)
박해동	강북요양병원
박현경	
박현욱	대구가톨릭대학교
박현주	장아식품
박혜영	
박혜은	
박홍철	(주)신흥메탈
박홍식	(주)NS디자인
박희진	은성복어
반정욱	미르건축사무소
방용정	(주)로그
방우정	리더스
방천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
배경미	
배극중	씨앤비종합건설
배명수	근영토건
배문구	승창침장
배상원	상원종합식품, 오대양식품

성명	회사명
배성혁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배성훈	(주)성훈건축
배성희	고려피아노악기사
배우균	(주)카이도골프코리아
배인규	(주)한남라이팅
배인호	성호건설(주)
배장수	진명전력(주)
배종길	메디테크뉴스
배종찬	기성광고
배주락	(주)해성오피스탑
배태관	백산자카드(주)
배혜민	
배효삼	(주)달구벌석건
백건호	경동BK
백경애	덕영치과기공소
백덕열	지오종합건설(주)
백무연	(주)뷰티코하트, 비아이티살롱
백복현	
백순정	내추럴프러스
백승한	홍림곱창
백운규	(주)우림종합엔지니어링
백을수	(주)국제경호센터
백해자	동인간호학원
백현석	더블유병원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
변화곤	삼화건설(주)
서기수	즐거운세상 바르미 호텔인터불고 대구
서기승	동대구농협경제
서대구JC특우회	
서동국	(주)서진토목엔지니어링
서명수	가람컬리션(주)
서상인	
서상인	(주)NCT
서상협	
서상화	현대개발
서순옥	
서숙영	

성명	회사명
서영규	이노치과
서영득	색동가방
서용교	
서정우	신성기업
서정욱	(주)MSC
서정원	(주)대선
서정원	효성그라비아
서종환	(주)제일종합배관
서준덕	신세계영상의학과의원
서중호	(주)아진산업
서찬곤	(주)이하인바다
서찬교	(주)대원전기
서철현	대구대학교
서태일	(주)에스티아이
서태현	(주)산동개발
서형석	투샘플레이스
석경환	
석한수	(주)유에이건축사사무소
선명한	(주)션이피에스
성경환	(주)성경종합건설
성달표	(주)현대통상
성병철	디자인JSP
성부영	정일건설(주)
성석훈	(주)대덕건설
성수환	신영남산업(주)
성순화	피플라이프(주)
성정용	(주)신도시건설
손대권	대구은행 시지지점
손동현	동현케이بل
손병갑	성도(로타리3700지구)
손상명	(주)신아개발
손상주	
손성태	(주)성진포머
손수완	(주)수경
손영호	(주)성도팩
손원배	태명약업사, 태명헬스케어
손인락	



성명	회사명
손인택	(주)서한
손주달	(주)유원티씨
손중배	(주)유레카
손지영	(주)두손
손현구	스파이 앤 록 카케어
송국영	(주)태왕
송남희	본죽 시지점
송대선	
송미향	(주)현대미주여행사
송석훈	우리연합의원
송원배	(주)대영씨앤디
송정아	태양인이제마한의원
송준호	한국PIM(주)
송진오	(주)아이에스메이드
송채은	
송춘희	(주)아이투어
송호정	(재)씨젠의료재단
신경우	부창솔라(주)
신규창	신규창내과의원
신기영	ARSTOMA
신동화	(주)차오른
신연화	밸런스워킹
신영필	(주)주노캐피탈
신용범	(주)한미산업
신재열	안다미로
신재천	대구영화인협회
신정원	(주)한국센서 IT여성기업인회
신정필	(주)세양
신정현	TGF골프
신철균	다모건축사사무소
신호철	(주)플러스메드
신희득	(주)용성건설중기
신희영	보람회계법인
심건희	(주)천지재건
심왕국	대윤포장
심인철	동명테크원(주)
안상영	광진종합건설(주)

성명	회사명
안성용	(주)앤디스코나
안용모	경일대학교
안유학	와이디자인랩
안조셉	미래테크(주)
안중수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
안홍윤	YH바이오사이언스
양대석	(주)악령시사람들
양승혁	인문사
양종호	현대자동차
엄경록	(주)대철
엄관식	엄관식수학교습소
엄복태	스타커뮤니케이션즈(주)
엄용선	동네방네소식(주)
엄재국	(주)포맨
엄태건	(주)태준메디칼
여상훈	법무법인(유한)클라스
여준혁	여성메디파크병원
예영숙	삼성생명
예춘호	요셉성형외과
오기우	(주)엘리건스
오무선	오무선뷰티컴퍼니
오순덕	
오재완	(주)한국키네티코엔지니어링
오진섭	세무사 오진섭사무소
오택근	더좋은병원
우경호	제일약품(주)
우덕구	(주)진성물류
이상현	더블유병원
우성진	(주)메가젠임플란트
우승민	스포츠와
우영제	(주)한영
우외태	유화비엔피
우종곤	(주)영인이앤씨
우주택	(주)명산
원동국	디케이아이러브동대문
유명상	대구한국일보
유병완	엔젤클럽 홍보작가



성명	회사명
유효정	
윤경일	(주)글로벌에스피
윤귀자	삼성생명
윤남수	(주)아석전기
윤덕근	침산올바른통증의학과의원
윤민환	씨엠케이푸드
윤영만	명성주택
윤영수	(주)우정건축자재
윤종현	대구광역시 수성문화원
윤주석	주순개발(주)
윤창섭	(주)골든비
윤철식	(주)주성종합건설
윤태경	바로보병원
윤희돈	미래에셋대우(주)
윤희영	디자인디오
은영기	(주)한솔개발
의사회축구단	
이갑열	(주)상일종합관리-SL 산업개발
이강태	(주)한국오아시스
이강하	(주)아스코
이경곤	유성기초
이경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이경숙	(주)미식주
이경애	농협은행 성동지점
이경호	(주)한길산업
이경호	동대구신세계약국
이경훈	웹미리회원권거래소
이관형	대원상사
이광해	아사다라 한우셀프센터
이기식	(주)현대스텐
이기화	행복을심는치과
이다혜	
이대영	
이대우	기운산업
이대형	세계실업(주)
이덕록	(주)서보
이도윤	(주)세광하이테크

성명	회사명
이도희	대한주택건설협회
이돈관	(주)우수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이동관	매일신문
이동명	자비스
이동섭	영남장애인신문사
이동성	(주)홍맥건축디자인
이동열	참좋은요양병원
이동원	변호사이동원법률사무소
이동원	현대자동차 앞산지점
이동현	우행건축축(주)
이동환	(주)폴토래
이두원	(주)DRK
이명옥	(주)이원
이명현	(주)동광명품도어
이무철	금융기계(주)
이문열	(주)대신공영
이민화	백강
이민희	키친씨
이병락	경북대학교병원 시설과
이병우	HOTEL여기어때 대구역점
이병준	(주)남양산업개발
이복환	군민신문
이복희	(주)광덕전력
이상길	대구광역시
이상섭	조아전자(주)
이상열	(주)씨유크퍼니
이상탁	(주)반도옵티칼
이상택	매일신문사
이상혁	(주)비토코리아
이상호	비보건설(주)
이상훈	(주)화성이앤씨
이석우	(주)삼진씨앤씨
이선찬	진성테크
이성구	마리아난임클리닉
이성구	대구의사회
이성도	(주)부광트윈시스템

성명	회사명
이성동	(주)금보종합건설
이성배	(주)예가
이성엽	SL(주)
이성욱	(주)부국철강
이성욱	웃는얼굴아트센터
이성태	(주)풋살스포츠
이성하	BL 성형외과
이소윤	
이수동	(주)에스엠종합주류
이숙형	여행의향기
이승민	리알홀딩스
이승민	밸류마크 한경금융
이승진	나우산업개발
이승현	(주)동서개발
이양구	(주)에코텍
이영순	
이영우	(주)대광엔지니어링
이영웅	(주)디자인로움
이영준	선경건축자재센터
이영호	
이완철	(주)경상관광여행사
이용재	석문전기(주)
이원영	평산개발건설
이원우	(주)한은이앤씨
이원재	(주)핑거스냅
이원찬	아진산업(주)
이윤하	그린사이언스
이윤희	한국알카리수(주) 수성구대리점
이은수	
이은준	SJ홀딩스
이은호	대영건축사사무소
이응상	(주)한승계기
이응찬	(주)건화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이인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이재남	DGB생명보험(주)
이재덕	(주)금성가구

성명	회사명
이재덕	한국인의 밥상
이재익	가람테크
이재표	(주)제이에프
이재형	대구발전동우회 삼익HDS
이재호	한경회계법인
이재호	(주)한미인더스
이재훈	푸드원
이정미	아사무역
이정주	
이정훈	(주)TPC
이정훈	(주)부성세라믹스
이종경	도원
이종만	미전커텐
이종복	삼해인더스트리(주)
이종운	덕재건설(주)
이종원	(주)코그
이종현	(주)퓨리치
이주현	엘플러스
이준철	태영전기
이준호	호신섬유(주)
이중근	행정동우회
이중락	대구영화협회
이중원	원호금속(주)
이중호	(주)세신정밀
이지언	(재)운경재단
이지완	명진BS치과
이지환	(주)VIP응급환자이송센터
이진백	지엔비오토모빌(주)
이진복	보람회계법인
이진수	(주)환경에이앤씨
이진호	(주)풍산기연
이진환	삼원회계법인
이창근	(주)극동1급정비공장
이창영	만촌1동성당
이창환	(주)도담건축사사무소
이창희	(주)행복드림마트
이천기	국제자산신탁(주) 대구경북지역본부



성명	회사명
이충경	JUWEL J
이치우	대구음악협회
이철모	네네치킨 대구경북서부지사
이태현	법무법인마음
이태훈	(주)에드앤피알스미스
이필후	대구그린에너지센터(주)
이한일	드림병원
이해봉	(주)봄커뮤니케이션즈
이 헌	(주)두강, 코디박
이현수	MG새마을금고
이현득	변호사이현득법률사무소
이형선	지성건설(주)
이형원	(주)일성침장
이형주	지엠 솔루션(주)
이호경	월드산업(주)
이호경	대영에코건설(주)
이화선	화선(주)
이희도	아진주철
이희준	SG서울보증보험 대동대리점
이희채	이희채건축사사무소
인재현	
임건주	(주)다운비엔에이
임광호	열린치과
임명섭	(주)영남바론상조
신승호	그린그래스-선서인더가든
임병욱	
임상택	위드고
임상훈	엔티엘의료재단
임영미	DGB생명
임익기	(주)브라이트
임재현	(주)현대목재산업
임재형	원규
임화자	예쁜유치원
임흥규	대평산업개발
장극윤	영진수예침장
장기석	주호산업
장기욱	연경반점

성명	회사명
장기철	부강철강
장길화	(주)세안정기
장동렬	경산건업(주)
장민우	(주)대영금속
장병배	상인성당
장선윤	고문당인쇄(주)
장성욱	신창공업사
장성태	대한개발
장세주	(주)한국포장산업
장세철	(주)고려건설
장수미	
장안중	석문전기(주)
장연배	보광테크
장영자	(주)하이리빙
장용호	(주)나라산업
장우영	대구보건대학교
장육진	(주)화랑고무
장원규	(주)화성
장원용	대구광역시 소통특보
장윤제	장윤제연합치과의원
장재철	
장재화	(주)창녕참우축산
장정숙	자원환경
장정호	변호사장정호법률사무소
장철광	(주)유일
장팔술	
장팔환	부동산개발컬설팅
장혜정	백산부동산
장홍석	대원기계공업(주)
전미조	효성복지재단
전병규	일신프라스틱(주)
전성근	SK반야월대리점
전성렬	동양OA
전성봉	오케이포인트마트
전용수	(주)신동아전세관광
전용철	(주)근우정공
전익상	



성명	회사명
전재욱	(주)피플데이터
전중달	제이디건설(주)
전영제(진길)	(주)다원이앤씨
전해영	(주)화인종합건축사사무소
전형노	메가미래라이프
정경용	민초심
정군섭	(주)대영산업
정규익	가구365.COM
정기욱	
정기은	분홍빛병원
정기출	삼성화재 대구법인1지점
정모경	정원자카텍
정민교	대영채비(주)
정병창	세종건설
정병환	(주)삼보이데아
정봉길	가조종합개발주식회사
정성인	GJ에셋
정소영	(주)창성산업
정신유	(주)에이치디패널
정에스더	갤러리제이원
정연일	한패밀리병원
정연환	삼진이엔피, 상진특수판지(주)
정영만	농업회사법인제이아그로(주)
정영목	(주)대한피앤씨건설
정영준	(주)다원아یدی
정영철	제이스마인드의원
정용화	1997 빠리바닷가재
정용화	(주)대서케미칼
정원호	삼화봉재
정일균	(주)다운시스템
정장화	주성안전기
정재간	대구대학교
정재석	(주)탐메디케어
정재현	세영회계법인
정재호	초록들코리아(주)
정정국	(주)지엠이앤씨
정정아	국수꽃이피었습니다

성명	회사명
정찬두	세기리텍(주)
정태경	(주)대성건업
정택수	매일애드(주)
정하용	동진특수인쇄
정현수	(주)보극E&C
정호균	메디피아
정호윤	건축사사무소청연
정홍표	(주)홍성건설
조극래	대구가톨릭대학교
조동희	향우화뉴스
조두석	(주)애드메이저
조득환	(주)금강알텍
조만현	(주)동우씨엔جن설
조민규	
조민성	동영염직(주)
조병래	디자인해밀
조봉준	(주)동일
조선웅	유마스탬메디컬그룹
조성섭	(주)도원이앤씨
조성수	(주)에이엘테크
조승우	이지컴퍼니(주)
조영래	(주)원형D&C
조영만	(주)제이에이치테크놀러지
조용호	(주)어펙시스템
조장형	(주)나래피움
조정연	(주)대청디앤씨
조정욱	두손건축
조준근	대구학원안전공제회
조준호	태일인슈(주)
조지혜	제이커뮤니케이션
조혁준	스카이 아카데미
조현수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주)
조혜림	
주윤수	토정건설
주진현	하늘나리
지용호	(주)대한공조
진경훈	(주)코앤코

성명	회사명
진혜윤	(주)보강디엠에스
차성범	(주)삼인프라임
차순봉	선우종합건설(주)
차영규	(주)민영산업
차영진	제일컴
차인석	(주)대성엔팩스
차훈일	(주)샘초롱농업회사법인
천순화	퀀무역
천용구	(주)가우
천종열	(주)윤성건설
천해성	(주)하림조경
최경목	수성정비센터
최경수	(주)삼익테크
최고현	MBC
최규락	동양이엘
최길영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최대식	(주)동경주산업개발
최동욱	(주)한라개발
최두원	
최만수	인터볼고컨트리클럽
최명수	오성주류판매(주)
최명환	정건사종합건축사사무소(주)
최미경	법무사 최미경 사무소
최미애	(주)뉴니케
최미연	대구은행
최상무	오페라하우스 공연예술본부장
최선주	(주)연호개발
최성문	크레택책임(주)
최성종	통문어전문점(통문어가)
최성주	(주)동진금속
최세욱	우경정보기술
최순미	(주)인터볼고 여행사
최양원	(주)이루케미칼
최영철	(주)삼코
최영훈	KT텔레캅
최오원	(주)이렌트카
최용석	

성명	회사명
최우각	(주)대성하이텍
최원식	건축사사무소 리더
최윤연	
최은미	대구세계합창축제 조직위원회
최은석	참조은병원
최익진	(주)풍국면
최인규	스마트아울렛
최인철	(주)에이스감정평가법인
최인호	(주)명성티엠에스
최일경	(주)명문텐탈
최일권	(주)현대중공업
최일식	
최재호	(주)골든크라운
최재홍	
최종춘	아인종합건축사사무소
최종태	(주)솔트커뮤니케이션즈
최종택	세무사최종택사무소
최종해	동양종합건설(주)
최주열	화원참사랑요양병원
최주희	
최진오	한국디자인모형
최진환	(주)고려이앤씨
최창배	신항도시개발(주)
최철환	광풍퍼니처
최태원	대구축구협회
최한교	(주)디스이즈모든
최현희	(주)아르데코무이
최효욱	(주)월성주택건설
최흥로	흥아공업사
추재엽	대영예코건설(주)
추화엽	대성크린텍
코바체프	
표병관	(주)지에스탑
하달용	(주)삼건환경건설
하승우	하승우내과
하정식	서보정밀
하제연	레인보우스튜디오

성명	회사명
하중범	
하충호	(주)플러스컴
하태욱	에스케이앤씨(주)
하태준	영진종합건설(주)
하호만	(주)도원주택개발
한금재	(주)케이프린텍
한도준	삼익키리우(주)
한동근	의료법인해성병원
한동엽	방천시장가족족발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상섭	대구경상병원
한성교	(주)한빛알앤디
한승훈	(주)유한상사
한영필	(주)에스피코리아
한종건	바르미 호텔인터볼고 대구
한화용	금도에너지(주)
함동호	(주)원에듀엔
허성규	우진시스템(주)
허용훈	건화트렐러보그(주)
허원희	HK GOLF
허정수	명진약품
허정호	(주)프리미엄에셀
허진걸	(주)영산전기
허진구	(주)일성건설
허춘화	블랙앤화이트 대구점
허태조	한국산림보호협회중앙회
허필수	(주)동성중공업
현대백화점	대구점
현용환	(주)유성철강
현정규	(주)영진기공
홍기표	(주)에이플랜
홍민수	(주)우람
홍석준	대구시미래산업추진본부
홍석환	소방감리원기술단
홍성혁	
홍영호	(주)바른로지스
홍장현	(주)엔와이엔

성명	회사명
홍진수	세인트나인
홍철자	한국미술협회 서양화가
홍효정	세영회계법인
황우곤	피아이에이자산운용(주)
황인혁	인성데이터(주)
황재민	(주)우신산업
황재범	오리여인
황정철	제주스프링
황정현	성광전기설계사무소
황종길	성신내장건설(주)
황현호	인터테크(주)
황현호	변호사황현호법률사무소

세상의 바탕은 사람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호약품이
함께 하겠습니다




DF 김우석



Dejan 27.
FW 데얀

대구의 데얀
Photo by 대구FC

대구사랑은 대구FC엔젤클럽!



대구FC엔젤클럽은 시민구단 대구FC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축구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뜻있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대구 전용구장시대 2020년에도 엔젤클럽은 다시 한 번 '대구시민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시민구단 대구FC의 발전은 우리 대구의 발전과 같습니다.
대구FC를 명문구단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대구의 희망을 만드는 진정한 '시티즌 오블리주(Citizen Oblige)'의 실천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기대합니다.

가입문의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

☎ 전화 053-602-7307

📠 팩스 053-602-7306

대구FC엔젤클럽 홈페이지

www.dgfcangel1004.co.kr

대구FC엔젤클럽 회원이 되면 매년 다음과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후원금 납부

- 다이아몬드 1,000만 원 이상
- 일반 100만 원 이상 / 자동이체의 경우 월 83,000원
- 엔시오 12만 원 이상 / 월 10,000원 ※ 엔시오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 자동이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힘드신 경우 일시납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엔젤 릴레이

- 릴레이 방식으로 추천

홈경기 직접관람 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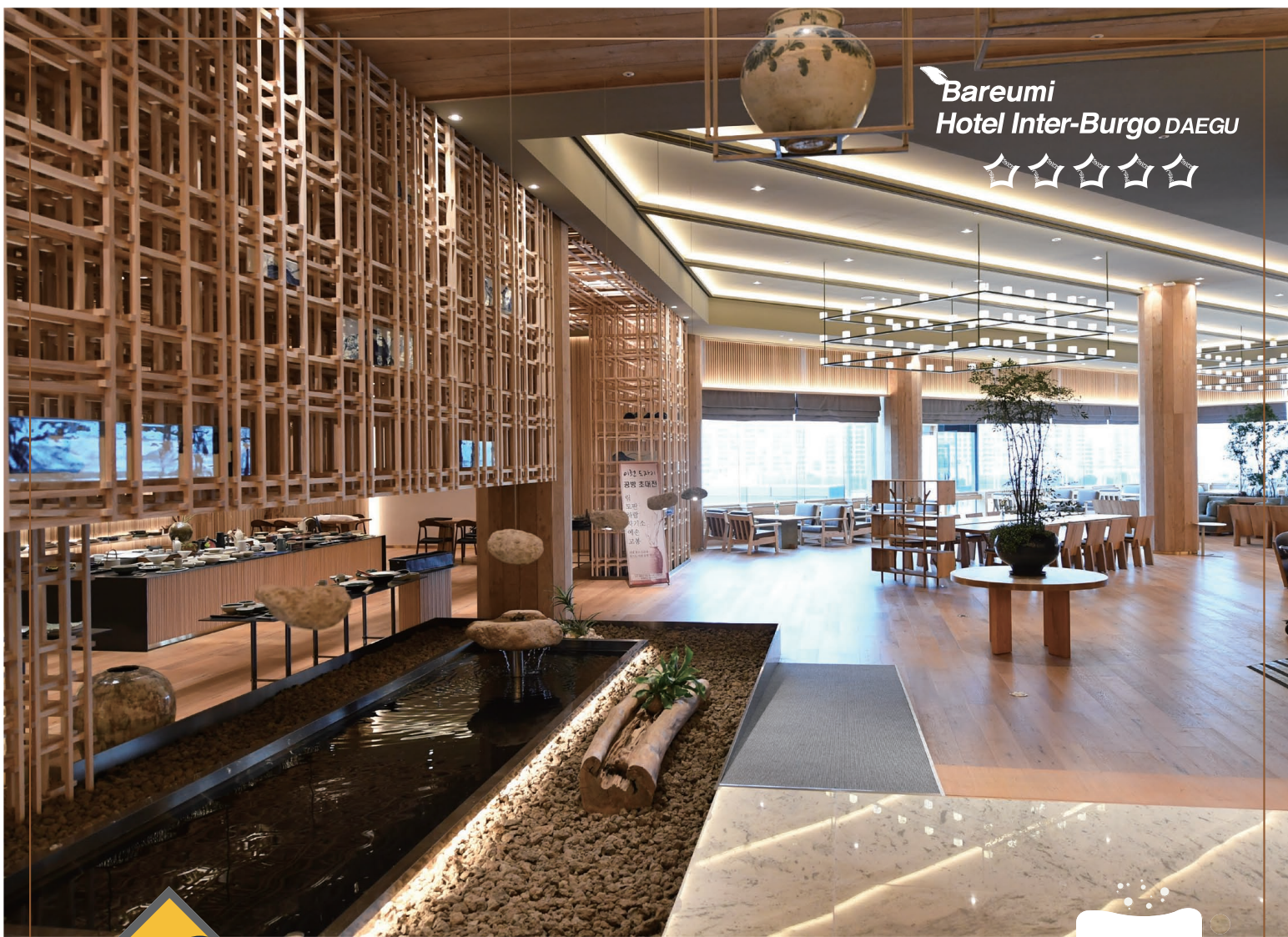
- 대구FC 홈경기 시 엔젤존 운영(DGB대구은행파크 W1, W2, W3)

각종 엔젤클럽 행사 참여

- 엔젤클럽 회원으로 대구FC 홍보 활동 적극 참여 권유

혜택

- 가입기념품
- 행사 참여
- 홈경기 관람(후원금 액수 내에 가능)



Bareumi
Hotel Inter-Burgo DAEGU



치맥하며 놀자 ~

₩664,000

이제, 호텔에서 놀자

₩269,000



특 / 별 / 우 / 대 / 가 (2인기준) 패키지 상품은 당일 취소는 불가합니다.

PREMIUM
PACKAGE

디럭스 더블룸 or 디럭스 트윈룸

+ 호텔조식(2인) + 사우나2인

+ 석식2인 (더뷔페 or 심비디움)

더뷔페 (월-금), 심비디움 바닷가재 (주말 / 공휴일)

+ 프리미엄 치맥

밤별소 야간포차 치킨 & 생맥주 2잔 제공

객실예약

053) 602-7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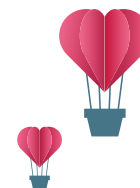


바르미 호텔인터불고 대구

대구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300번지) <http://www.hotel-interburgo-daegu.com>

아름다운 대구·경북을 위해

금복재단이
함께합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50억 후원
대구·경북체육성금 및 독도 후원금 지원
사랑의 쌀 지원 등 복지시설 후원
금복문화상 시상 및 예술인 후원

서문시장 화재 복구 성금 후원
포항·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 후원
영덕 태풍 피해 복구 성금 후원
연말 따뜻한 동행 캠페인 성금 5억 후원



금복문화재단 금복복지재단 금복장학재단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바로본병원 공식모델 이 승 업



무릎·어깨·허리
한방에!

바로보고 바로치료하는
B 바로본병원
BAROBONE HOSPITAL

진료내용
관절클리닉, 척추클리닉, 소화기클리닉, 대장·항문클리닉, 치매·중풍클리닉
제 1,2,3,5,6,7 정형외과|신경외과|일반외과|제 1,2 내과|신경과|영상의학과|운동재활치료클리닉

종합건강검진센터 | 24시간 응급실 운영 | 진료문의 **1644-8575**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NAVER 힐스테이트 대구역



대구역 맨 앞! 49층 초고층 랜드마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중
1899-9839

오피스텔 43A·B, 46타입 150실

아파트 84A·B·C, 112타입 803세대

총 953세대



시행 국제자산신탁 위탁 포스시티 시공 현대건설

